

한글

한 권으로 끝내기

국어 영역 기본편

정답과 해설



시가 문학

개념 한 실전

현대시 1

본문 018~019쪽

개념으로 작품 읽기 | ① 고향 ② 그리움 ③ 가족 ④ 현재

01 ① 02 ③ 03 ①

가 [고향 앞에서 _ 오정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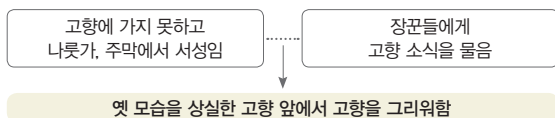
해제 이 시는 일제 강점기에 고향을 떠난 화자가 그리운 고향을 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슬픔을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고향 근처의 나룻가를 서성이기도 하고 주막에 들러 고향의 옛 모습을 추억하려 하기도 하지만 기억 속 옛 고향은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당시 고향을 잃고 떠돌던 우리 민족의 시대적 아픔과 설움을 그려 내고 있다.

주제 고향을 잃은 슬픔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특징 •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사용함
• 현재형 시제를 사용함

구성 1연: 일었던 강이 풀리는 이른 봄의 정경
2연: 나룻가에서 느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3연: 주막에서 늙은 주인과 회한에 젖음
4연: 쓸쓸한 고향 모습과 허탈한 심경
5연: 장꾼들에게 고향 소식을 물음
6연: 마음속에 그려진 고향의 모습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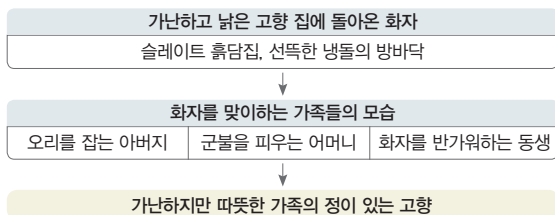
나 [낡은 집 _ 최두석]

해제 이 시는 가난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고향의 모습을 담담한 어조로 그려 낸 작품이다. 가난하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을 비교적 객관적 입장에서 묘사하고 있지만, 고향에 돌아온 화자를 맞이하는 가족들의 모습에서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다.

주제 고향 집의 모습과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

특징 • 산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담담한 어조로 서술함
• 현재형 시제를 통해 시적 상황을 생동감 있게 드러냄

한눈에 보기



0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의 2연에서 화자는 낯선 행인에게서라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 한다. 또한 (나)의 초반부에서 화자는 익숙한 고향 집에 들어서지만 아무도 없고 서늘한 집 안 풍경에 낯선 느낌을 받는다.

오답 풀이 ② (가)의 4연에서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고향이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공간임을 나타낼 뿐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나)에서의 고향은 가난한 공간이지만 이 공간을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인식은 드러나지 않으며, 화자는 이 공간에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의 화자는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고 생각하고, '주인집 늙은이'와 고향을 상실한 슬픔을 나누고 있으므로, 각박한 인심에 좌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나)에는 세상이나 인심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가)의 화자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상실감과 슬픔을 느끼고 있고, (나)의 화자는 공장 노동자로 전락한 농민인 아버지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길 뿐, 이들의 모습을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가)의 6연에서 화자는 고향을 '전나무 우거진 마을'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추억하는 고향의 옛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내세우기 위한 것은 아니다. 또한 (나)의 화자는 농부인 아버지가 공장에서 '차비 정도'를 버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산업화를 통해 농촌이 변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보기 어렵다.

02 표현상의 특징

㉮은 화자가 가상의 청자인 장꾼들에게 자신의 고향을 보았는지 물어봄으로써 화자의 고향 잃은 설움을 표현한 것으로, 독백조의 형식이 아니며 장꾼들의 설움을 나타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답 풀이 ① 겨울을 지나 봄이 되어, 강의 얼음이 갈라지고 강물에 얼음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고향에서의 행복한 추억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자신의 가족을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라고 표현하여 마치 자신과 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객관화하고 있다.

⑤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택한 냉돌인 집 안의 모습을 통해 가난한 농촌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3 화자의 정서 및 태도

(가)의 3연은 화자가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집 늙은이가 고향을 잃은 화자의 슬픔에 공감하며 눈물짓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화자는 고향의 변한 모습에 슬퍼하며 상실감을 토로하고 있을 뿐,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보기>에서는 고향을 떠난 사람에게 고향은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가)의 6연에 나타난 고향의 모습은 평화롭고 따뜻한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③ (나)에서 고향에 돌아온 화자는 가난하고 낡은 고향 집과 그곳에서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가족들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화자에게 현재의 고향은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나)에서 고향에 돌아온 화자를 위해 가족들이 하는 행동을 나열함으로써 고향의 따뜻함과 가족애를 보여 주고 있다.

⑤ (가)에서는 화자의 귀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에서는 화자의 귀향이 이상적인 공간으로의 복귀가 아니라는 점에서 (가)와 (나) 모두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념으로 작품 읽기 | ① 나무 ② 겨울 ③ 봄 ④ 의인화

01 ① 02 ① 03 ⑤

가 [겨울 - 나무로부터 봄 - 나무에로 _ 황지우]

해제 이 작품은 겨울이라는 부정적 현실을 이겨 내고 봄에 꽃을 피우는 나무의 생명력과 굳은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겨울이라는 혹독한 외적 시련을 직접 몸으로 부딪치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나무의 변화 과정이 실감 나게 그려져 있으며 직설적, 단정적 어조가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 작품은 1980년대의 억압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민주화를 향한 의지와 염원을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겨울'은 억압적 시대 상황을, '봄'은 부정적 현실이 극복된 시기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주제 외적 시련을 극복한 나무의 생명력과 굳은 의지

특징 • 직설적이고 의지적인 어조를 사용함

• 계절의 순환이라는 자연 현상을 통해 주제를 드러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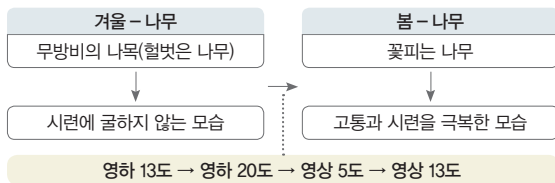
구성 1~3행: 나무의 자립성과 생명력

4~9행: 고통과 시련을 견디는 나무

10~20행: 겨울을 이겨 내려는 나무의 저항과 극복

21~23행: 스스로의 힘으로 꽃을 피워 낸 나무의 생명력

한눈에 보기



나 [봄 _ 이성부]

해제 화자는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 봄을 기다리고 있다. 비록 빨리 오지는 않지만 '더디게'라도 봄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이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봄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즉, '너'로 의인화된 봄은 화자가 그토록 기다리는 희망의 대상으로서, 이성부의 작품 경향으로 볼 때 민주주의나 자유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시대의 아픔과 절망이 언젠가는 사라지고 자유 민주주의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봄에 대한 기다림

특징 • 계절의 순환을 바탕으로 당위성을 강조함

• 대상을 의인화하고 단정적 어조를 사용함

구성 1~2행: 봄이 오는 자연의 당위성

3~10행: 더디지만 결국 오게 될 봄에 대한 확신

11~16행: 마침내 도래한 봄을 맞이하는 감격

한눈에 보기



0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 나무이다' 등의 단정적 어조를 통해 나무의 생명력으로 인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 온다'라는 단정적 어조를 통해 봄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가)와 (나)는 단정적 어조로 희망적인 미래를 확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와 (나)에서는 대상의 의지는 드러나지만 이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가)는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 간다'에서 상승의 이미지를 통해 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처럼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상승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④ (나)는 '너로 의인화된 봄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가)는 이러한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는 둘 다 특별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가)는 화자가 처한 상황이 변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는 기다림에서 맞이함으로 상황은 변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변화 과정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02 시어의 의미와 기능

①은 봄의 나무로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꽃'을 피운 존재이고, ②은 긴 기다림 끝에 역경을 거쳐 '먼데서 이기고 돌아온' 존재이다. 따라서 두 대상 모두 시련과 역경을 이겨 낸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①은 현실에 붙어 닳친 시련과 고통을 이겨 내는 대상으로 현실에 대한 대결 의지를 보여 줄 뿐, 자기 성찰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③ ②은 힘겨운 상황을 이겨 낸 존재이므로 연민의 대상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②은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 꽃피는 나무이다'라는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현재에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①도 '~ 온다'라는 현재형이면서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여 올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내므로 가정적 상황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①과 ②은 둘 다 부정적인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존재로, 이를 개인적 혹은 공동체적 삶의 추구와 연관 짓기는 어렵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가)와 (나)가 창작된 시기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둘 다 군사 독재 정권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할 때, 시인은 독재 정권을 비판하고 참된 민주화를 소망하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나)에서 '너'가 '더디게 온다'는 것은 더디더라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반드시 봄이 올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민주화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영화 13도', '영화 20도'는 혹독한 겨울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무방비의 나뭇'은 독재 정권하에서 힘겨워하는 민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맞서려고 하는 민중의 각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의 '뜨거운 혀는 스스로 '싹'을 틔우는 존재'이므로 독재 정권의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고 민주화를 갈망하는 민중의 의지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의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는' 화자가 처한 절망적 상황을 의미하므로 <보기>를 바탕으로 해석할 경우 독재 정권의 억압적 현실로 볼 수 있다.

개념으로 작품 읽기 | ① 북경(연경) ② 4

01 ③ 02 ⑤ 03 ①

[연행가 _ 홍순학]

해제 조선 후기의 장편 기행 가사로, 홍순학이 1866년(고종 3년) 3월에 왕비 책봉을 주청하기 위한 사신 행차에 서장관으로 북경에 다녀온 후에 그 여정과 견문을 기록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우리말을 사용하여 서민 계층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압록강을 건너기까지는 고국의 산천과 이에 얽힌 역사적 사실들을 사실적이면서도 정감 있게 묘사하고 있으며, 강을 건너 이후에는 청나라의 풍물, 세태, 자연 풍경 등을 치밀한 관찰력으로 묘사하며 생동감을 주고 있다. 청의 문물에 놀라워하며 본받을 만한 풍속에 대해서는 그 실용성을 인정하는 현실주의적인 태도도 보이지만, 지나치게 객관적 사실을 나열한 것이나 병자호란의 상처에서 비롯된 감정을 떨쳐 내지 못하고 반청 의식을 강조한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주제 사신의 일행으로 청나라를 다녀온 견문과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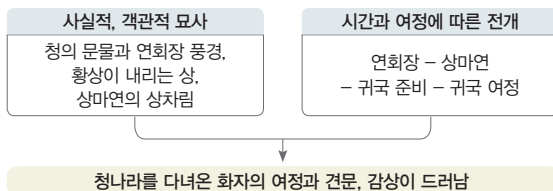
특징 • 우리말 구사가 뛰어나며 표현이 소박함
• 치밀한 관찰을 통해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함

구성 1~15구: 청나라 연회장의 풍경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답답함

16~26구: 황제가 주는 상과 상차림을 받음

27~40구: 조선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출발함

한눈에 보기



01 표현상의 특징

화자는 청나라에서 자명종과 자명악 같은 낯선 풍물을 접하고, 청나라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 필담을 나누며, 황궁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낀 다양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시가의 후반부에서는 조선으로 회환할 때의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는데, '시원하고 상연'하다며 상쾌한 기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자연의 풍광에 대한 서술이나 감상을 드러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② '당연에 먹을 갈아 양호수필 덩뻑 찍어/시전지를 빼어 들고'라는 표현을 통해 학문과 관련된 사물이 나열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상대방과 필담을 나누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일 뿐 입신양명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④ 화자가 청나라 황궁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외양과 감정을 묘사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곡식 추수가 한창이요', '가을빛이 패히 난다'라는 표현을 통해 가을임을 알 수 있으나, 화자는 현재 북경의 승문문에서 통주를 향해 가며 귀국하고 있는 중이므로 여정이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

02 표현상의 특징

⑥은 곡식을 추수하는 풍경을 통해 가을의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청나라로 '올 적'에 심은 곡식을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①에서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운다'는 것은 악기가 소리를 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대상이 지닌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이편저편'이라는 지시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다음 행의 '처음 인사'라는 표현으로 볼 때 청나라 사람들과 처음 마주 앉게 된 상황이므로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③에서 '분분하고'는 음성 상징어가 아닌 형용사로, 일행들이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해 바쁘게 귀국 준비를 하는 떠들썩하고 뒤숭숭한 상황을 나타낸다.

④ ④의 앞 구절과 뒷 구절을 대거적으로 표현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객관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 뿐 화자의 감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03 시어의 의미와 기능

[A]에서 화자는 청나라 사신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 글(한자)로 서로의 의사를 주고받게 된다. 따라서 '간담을 상응하여'는 뒤에 이어지는 '상통하는구나'로 볼 때 상대방과 마음을 터놓는 상황으로,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B]는 청나라 황상과 함께하는 연회의 자리로, 화자는 황상에게 상을 받고 구고두, 즉 공경하는 뜻으로 머리를 땅에 아홉 번 조아린다. 이후 연회를 마친 화자가 '뜰에 내려 북향'한 것은 황상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으로 구고두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② [A]의 '거기 사람 처음 인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를 통해 청나라 사람으로부터 차를 대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의 '황상이 상을 주사 예부상서 거행한다'에서 사신들이 상을 하사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A]에서 화자는 청나라 신하들과 언어가 달라 말이 통하지 않았으나, 한자를 사용한 '필담'을 통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B]에서 '구고두'는 청나라 시대에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려 절하는 공식적 예법으로, 화자는 황제가 상을 주고 잔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 '구고두'하며 감사를 표하고 있다.

④ [A]에서 '글귀 절로 오락가락'은 청나라와 조선의 신하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난처해하다가 필담을 통해 비로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드러낸다. [B]에서 '비위가 뒤집혀서'는 푸짐한 잔치상을 받았으나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들에 화자가 난감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⑤ [A]의 '귀머거리 병어린 듯'은 청나라와 우리나라의 언어가 달라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B]에서 '메밀떡에 밀다식에 곁밥'은 화자가 자신의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음식을 나열한 것으로, 잔치상에 여러 가지 음식이 차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알아 두기 기행 가사

기행 문학의 한 형태로, 여행을 통하여 얻은 견문과 소감 등을 적은 가사이다. 대체로 3·4조나 4·4조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행 가사는 크게 '관유 가사', '유배 가사', '사행 가사'가 있는데, '관유 가사'는 나라 안팎의 산천이나 명승지를 유람하며 쓴 것으로 정철의 '관동별곡'이 여기에 속한다. '유배 가사'는 귀양살이의 경험과 견문을 읊은 것으로, 안조원의 '만언사', 김진형의 '북천가' 등이 있다. '사행 가사'는 사신 행차의 일원으로 외국을 여행한 견문과 감상을 기록한 가사를 말하는데, 김인겸의 '일동장유가', 홍순학의 '연행가' 등이 있다.

개념으로 작품 읽기 | ① 대 ② 낙락장송 ③ 벗

01 ① 02 ④ 03 ③

가 [눈 마자 휘어진 대를 ~ _ 원천석]

해제 고려의 유신(遺臣)인 작자가 조선 개국 후 은둔하며 고려에 대한 절개를 지키며 변치 않는 우국충절을 노래한 작품이다.

주제 고려 왕조에 대한 굳은 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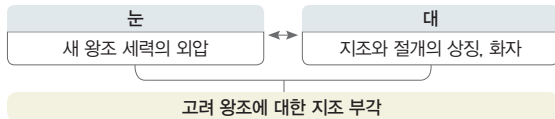
특징 설의법, 의인법 등을 통해 작자의 굳은 의지를 표현함

구성 초장: 눈을 맞아 휘어진 대나무

중장: 대나무의 변함없는 푸름

종장: 대나무의 높은 절개에 대한 예찬

한눈에 보기

**나** [이 몸이 주거 가서 ~ _ 성삼문]

해제 사육신(死六臣)의 한 사람인 작자가 세조를 부정하고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처형당할 때, 자신의 변하지 않을 절개를 비장하게 드러낸 작품이다.

주제 죽어서도 변하지 않는 굳은 절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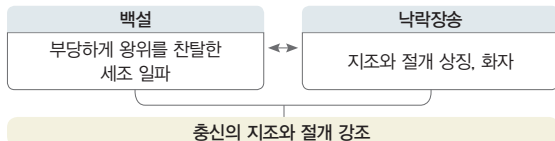
특징 충절의 상징인 소나무를 활용하여 자신의 지조를 부각함

구성 초장: 죽은 후의 자신의 모습을 가정함

중장: 높은 산의 소나무가 되기를 바램

종장: 변함없는 지조와 절개를 다짐함

한눈에 보기

**다** [우중에 택지를 생각하며 _ 박은]

해제 무오사화로 인해 사람들이 옥사를 당하자 이를 탄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파직을 당한 작자가 자연 속에서 묻혀 살며 친구 이행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지어 보낸 작품이다.

주제 현실에서 느끼는 고뇌와 벗에 대한 그리움

특징 화자가 처한 상황을 통해 정서를 드러냄

구성 1~2구: 비 오는 가을날의 쓸쓸함

3~4구: 자신의 늙고 약한 모습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

5~6구: 벗과의 추억과 현실에서의 시름

7~8구: 벗을 만날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화자의 바램

한눈에 보기

**0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와 (나)는 각각 '눈'과 '백설'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겨울에도 푸름을 잃지 않는 '대나무'와 눈 내린 세상에서도 홀로 푸른 '소나무'를 부각하고 있다. (다)는 '찬비'와 '국화'를 통해 어느 비 내리는 가을날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시름으로 세월을 보내며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 (나)에는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다)에는 '찬비를 맞는 국화', '술동이', '붉은 잎' 등으로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 있으나 이를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③ (가)~(다)에는 도치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가)는 상징법, 설의법과 의인법 등을 통해 화자의 지조를 부각하고 있으며, (나)~(다)에는 상징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④ (가)~(다)에는 감정 이입의 표현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가)는 대나무를 화자와 동일시하며 의인화하고 있을 뿐, 대상물이 화자와 같은 감정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는 감정 이입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가)~(다)는 화자의 독백적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을 뿐, 말을 건네는 어조는 드러나지 않는다.

02 표현상의 특징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은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지만 이는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지조를 상징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에서는 눈 속에 덮였음에도 불구하고 푸름을 잃지 않겠다는 화자의 신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 푸름소냐'라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② ㉡에서는 추운 계절에도 불구하고 꽃꽂함을 잃지 않는 '대'를 '너'라고 표현하고 화자와 동일시하여 절개 있는 충신으로 의인화하고 있다.

③ ㉢에서는 화자가 죽은 후의 자신의 모습을 가정하는 극한의 상황을 제시하여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는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⑤ ㉤에서는 남들이 모두 절개를 꺾는 눈이 가득한 시련 속에서도 홀로 푸른 소나무처럼 절개를 굳세게 지키겠다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화자는 붉은 잎 떨어지는 어느 가을날 시를 쓰고 있다. 그러나 시구를 얻어도 흰머리로 상징되는 시름은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흰머리 새롭구나'라는 시구는 젊은 나이에 뜻이 꺾인 화자의 시름과 아픔을 환기하고 있는 표현으로, 화자의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시를 쓰는 행위로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박은은 벗인 이행과 시국을 걱정하며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홀로 술을 마시고 있으므로, '작은 술동이'는 벗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외로움을 달래 주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박은은 파직을 당한 후 자연에 묻혀 살았다고 하였으므로 이 시에서 '문을 닫으니'는 화자가 세상과 단절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화자는 정다운 벗과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행복해하지만, 적막한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해가는 벗에 대한 그리움과 현실에 대한 쓸쓸함과 슬픔을 느끼고 있다.

⑤ 화자는 벗과 만나고 싶지만, 언제쯤 벗과 만나 함께 '양춘(陽春)'을 즐길 수 있을지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양춘'은 그리워하는 대상인 '정다운 벗'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01 ② 02 ② 03 ③

[참회록 _ 윤동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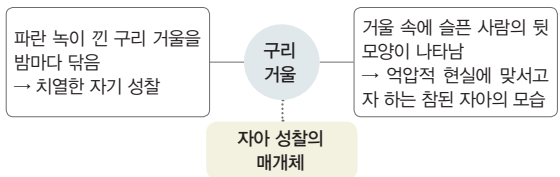
해제 이 시는 ‘부끄러움의 시인’이라 불리는 윤동주의 시적 경향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현실에서 무기력하게 살아온 화자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참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화자는 망국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자신을 ‘욕되다’고 인식하여 참회록을 쓰며 반성을 하고, 치열한 자아 성찰의 의지를 다진다. 이 시에서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상징하기도 하고, 자아 성찰을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또한 ‘거울’을 닦는 행위는 치열하게 자아를 성찰하고 반성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이렇듯 화자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을 통해 내면의 자아를 응시하고, 앞으로 살아갈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주제 부끄러운 삶에 대한 참회, 역사 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아 성찰

특징 • 자기 고백적 태도를 취함
• ‘거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함

구성 1연: 망국의 역사 속의 욕된 자아에 대한 반성
2연: 지나온 삶에 대한 현재의 참회
3연: 현재의 삶에 대한 미래의 참회
4연: 끊임없는 자아 성찰의 의지
5연: 어두운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슬픈 자화상

한눈에 보기



01 표현상의 특징

이 시의 화자는 내면의 자아를 응시하고, 앞으로 살아갈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람이 아닌 대상이나 관념에 사람의 속성을 부여하는 표현 방법인 의인화는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화자는 1연에서 망국민으로서 과거의 삶을 욕되게 여기고, 2연에서 과거의 삶을 현재의 시점에서 참회하며, 3연에서는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의 참회를 다시 참회한다.
- ③ ‘거울’, ‘윤석’ 등은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소재로, 이 시의 주제인 부끄러운 삶에 대한 참회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이 시의 화자는 ‘욕될까’, ‘살아왔던가’, ‘했던가’와 같이 의문형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는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며, 현실 극복을 위한 자기 성찰의 의지를 담담한 말투로 고백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다.

02 시어의 의미와 기능

‘어느 왕조의 유물’은 ‘구리 거울’ 속에 비치는 화자를 비유한 표현이다. 화자를 ‘왕조의 유물’이라고 한 점과 당시의 시대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시구는 역사적 자아로서의 화자, 나라를 잃은 망국민으로서의 화자를 의미한다.

- 오답 풀이** ① ‘구리 거울’은 화자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대상으로, 화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화자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매개체의 기능을 하는 소재이다.
- ③ 3연의 ‘그 어느 즐거운 날’은 화자가 바라는 시대, 즉 조국 광복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4연의 ‘밤’은 역사적 암흑기, 암담한 시대 상황으로서 일제 강점기를 의미한다.
- ④ 3연의 ‘부끄러운 고백’은 현재의 참회를 가리키는데, 이는 화자가 부정적인 역사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과 자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5연의 ‘슬픈 사람의 뒷모양’은 화자가 전망한 미래의 모습으로, 이는 절망이나 체념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기희생적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3연에서 화자는 미래의 시점에서 참회록을 다시 써야 한다고 한다.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에서 드러나듯이 그 참회록은 2연에 나타난 현재의 참회에 대해,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참회에 그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뉘우치는 참회가 담겨 있다. 즉, 미래의 참회는 현재의 참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참회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1연에서 ‘파란 녹이 낀 거울’의 모양은 망국의 현실을 암시하고, ‘어느 왕조의 유물’은 망국민으로서의 화자가 스스로를 욕되다고 느끼는 것이므로, <보기>에서처럼 화자는 민족의 역사와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2연에서의 화자의 참회를 <보기>를 통해 이해한다면, 화자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고 자신을 성찰하는 참회의 계기는 창씨개명으로 볼 수 있다.
- ④ 4연에서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는 행위는 자기 성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화자가 자신의 참모습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를 <보기>를 참고하여 해석하면 화자가 자신이 지향하는 바, 나아갈 길을 찾는 행위로 볼 수 있다.
- ⑤ 5연에서 화자는 성찰의 자세로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찾으려 할 때, ‘슬픈 사람의 뒷모양’을 떠올린다. 이는 화자가 양심과 윤리를 추구할 때 정립한 자신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알아 두기 ‘거울’의 의미

‘거울’은 화자(시인)의 모습을 직접 투영하는 사물이기 때문에 여러 시에서 ‘자기 성찰’의 의미를 지니고 자아 성찰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윤동주의 ‘참회록’에는 ‘구리 거울’이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온 역사적 유물로서의 거울로, 시적 화자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몸으로써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되고, 이는 나아가 민족과 역사에 대한 성찰로까지 이어진다. 결국 화자는 거울을 통해 부정적인 현실에 맞서 참된 자아를 찾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게 된다.

01 ③ 02 ③ 03 ③

[종소리 _ 박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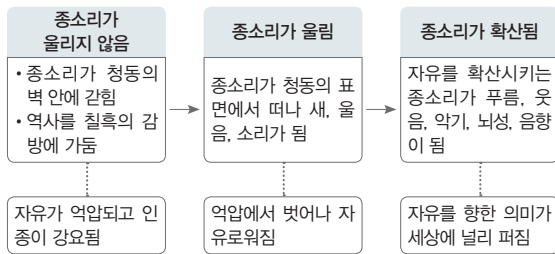
해제 이 시는 종소리를 화자인 '나'로 의인화하여, 억압적 현실에서의 오랜 인종 끝에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신념을 바람을 타고 퍼지는 종소리에 비유하여 노래하고 있다. 종소리는 '청동의 벽', '칠흑의 감방'이라는 억압적 현실에 갇혀 있다가 하나의 '울음'과 '소리'가 되어 청동의 표면을 떠난다. 그 종소리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 들의 '푸름'과 꽃의 '웃음'을 되찾아 주고, 천상의 '악기'를 울리게 하여 자유, 해방, 환희를 확산시킨다.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인 '먹구름'이 깔려도 종소리는 오히려 '뇌성'이 되어 더 넓은 곳으로 흩뿌려진다. 이는 억압적 상황에 저항하는 자유를 향한 강한 의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주제 종소리가 확산시키는 자유와 환희(자유와 환희의 세계에 대한 바람)

특징 • 종소리를 '나'로 설정하여 의인화함
• 대립적 의미를 가진 상징적 표현을 사용함

구성 1연: 청동의 표면에서 울려 퍼진 종소리는 새, 울음, 소리가 되어 날아감
2연: 억압적 현실 속에서 강요된 인종의 시간은 끝이 남
3연: 바람을 타고 퍼지는 종소리가 푸름, 웃음, 악기가 되어 확산됨
4연: 종소리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억압적 세력에 저항하며 광대한 대지로 내려옴

한눈에 보기



01 표현상의 특징

이 시에서는 종소리를 의인화하고, 종소리가 퍼지는 모습을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모순된 서술이지만 그 안에 진실을 담고 있는 역설법과 같은 수사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종소리가 울리는 모습으로 자유의 확산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긴박한 시적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청동의 벽', '칠흑의 감방', '먹구름'은 억압을 상징하는 시어이며, 이와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는 '푸름', '웃음', '악기', '뇌성', '음향'이다. 이는 종소리가 실현하는 자유, 환희 또는 그것에 대한 의지를 상징한다.

② 1연에서는 '~ 되어가', 3연에서는 '~에서는 ~이/가 ~ 된다.'와 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되며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종소리를 '나'로 의인화하여 종소리가 실현하는 자유에 대한 화자의 바람과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⑤ 종소리를 '진폭의 새가 되어', '가루 가루 가루의 음향이 된다.'라고 표현하여 울려 퍼지는 종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시각화한 공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02 작품의 종합적 감상

어둡고 차가우며 억압된 공간인 '청동의 벽', '칠흑의 감방'에서의 인종을 끝낸 종소리는 바람을 타고 퍼져 나가며 자유와 환희가 된다. 3연의 '들에서는 푸름이 된다. / 꽃에서는 웃음이 되고'를 통해 종소리는 천상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지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며 생명력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소리가 천상으로 상승하면서 비로소 생명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이 시에서는 울리는 종소리를 무한히 퍼져 나가는 자유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종소리가 청동의 표면에서 떠나는 모습을 표현한 '하나의 울음', '하나의 소리'는 자유의 소리라고 할 수 있다.

② 이 시에서 종소리는 들에서 '푸름'이 되고, 꽃에서 '웃음'이 되고 있다. <보기>에서 종소리가 수평축과 수직축으로 확산되었다고 하였는데, 들과 꽃은 지상에 속한 것이므로 '푸름'과 '웃음'은 수평축으로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종소리는 '천상'에서는 '악기'가 되고 있다. '천상'은 하늘에 속한 것이므로 '악기'는 종소리가 수직축으로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종소리는 '하늘의 꼭지'라는 수직축의 최고점에서 '먹구름'과 대결하여 '뇌성'을 터뜨린다. 이는 억압적 상황에 맞서는 강한 저항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4연에서 천상에서 뇌성으로 터진 종소리는 '가루 가루 가루의 음향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하늘까지 확산되었던 종소리가 하강하여 높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뿌려지는 가루가 된 상황으로, 자유가 온 대지를 뒤덮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03 시어의 의미와 기능

1연에서 종소리는 청동의 표면에서 벗어나 거침없이 울려 퍼진다. 2연에서는 종소리를 가두고 있는 '청동의 벽'을 '칠흑의 감방'으로 표현하여 종소리가 청동의 표면을 떠난 것은 억압과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임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은 종소리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아니라, 인종과 억압이 끝나고 자유가 확산될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종소리를 '나'로 의인화하여 청동으로 된 종의 표면을 떠나 종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② ㉡은 종소리가 울려서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이다.

④ ㉢은 '청동의 벽' 안에 종소리를 가두듯이, '칠흑의 감방'에 역사를 가두었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자유가 없는 역사적 암흑기를 종소리가 인고해 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⑤ ㉣은 종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모습으로, 더 멀리, 더 높게 종소리가 확산되는 동적인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알아 두기 '종소리'에 드러난 박남수 시의 특징

박남수의 시에는 사상이나 유희와 관념은 작품 속으로 감추어지고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주로 세련된 감각적 표현과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주제를 형상화하는 작품이 나타난다. '종소리'에서도 시인은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우리 삶과 역사에 대한 깊은 사고와 철학을 드러내고 있다.

01 ③ 02 ④ 03 ④

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_ 이용악]

해제 이 시는 이국 땅에서 초라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을 노래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아버지는 이국 땅을 전전하며 힘겨운 삶을 살다가, 결국 낯선 땅에서 침상도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 화자는 아버지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전달하며 감정을 절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슬픔의 강도는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온다. 또한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는 ‘풀벌레 소리’는 아버지의 죽음과 대조되어 상황의 비극성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제 아버지의 죽음에서 느끼는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비애
특징 • ‘풀벌레 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함
 • 같은 시구가 반복되는 수미상관 구조를 사용함

구성 1연: 아버지의 임종과 풀벌레 소리
 2연: 유언도 남기지 못한 아버지의 임종
 3연: 아버지의 죽음 확인
 4연: 아버지의 죽음과 가족의 슬픔

한눈에 보기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	풀벌레 소리
초라하고 비참한 아버지의 죽음	• 고요하고 적막한 분위기 • 화자의 비통한 감정 투영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비극성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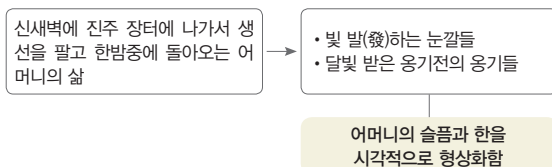
나 [추억에서 _ 박재삼]

해제 이 시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회고하며 어머니의 한스런 삶을 노래하고 있다. 어머니는 신새벽에 진주 장터에 나가서 생선을 팔고 돌아와야 하는 고단한 삶을 살았는데, 화자는 이와 같은 애뜻한 기억을 향토적 시어로 표현하였다. ‘빛 발하는 눈갈들’, ‘은전’, ‘별발’, ‘달빛 받은 웅기전의 웅기들’과 같은 시어는 모두 반짝인다는 공통점이 있는 소재들로, 남몰래 글썽이던 어머니의 눈물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어른이 된 화자는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슬픔까지도 이해하며 과거를 추억하고 있다.

주제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어머니의 한
특징 • 향토적 시어와 방언을 사용함
 • 의문형, 추측형 종결 어미로 감정을 절제하는 효과를 줌

구성 1연: 생어물전에 깔린 어스름
 2연: 생선 장사를 하며 힘겹게 살아가던 어머니의 한
 3연: 골방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오누이
 4연: 어머니의 눈물과 한

한눈에 보기



0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는 타지에서 임종을 맞은 아버지를, (나)는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애상적 정서로 노래하고 있다. (가)에서는 ‘풀벌레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에 화자의 슬픔을 투영하여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에서는 ‘달빛 받은 웅기전의 웅기들’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어머니의 한스런 삶과 가난으로 인한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1연에서 ‘우리 집도 아니고 ~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라는 점층적 시구를 통해 아버지가 타지에서 돌아가셨음을 강조하고 있다. (나)에는 반복적인 표현은 사용되었으나 점층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에서는 화자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을 뿐, 시적 대상인 ‘아버지’의 심정을 추측하고 있지 않다. 반면 (나)에서는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의문형, 추측형 어미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슬픔을 추측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힘겨운 현실에서 느끼는 슬픔과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서 (가)의 화자나, (나)의 어머니가 느끼는 안타까움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에서는 ‘풀벌레 소리’에 화자의 슬픔을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으나, 현실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성찰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는 여러 자연물의 모습을 시각적 심상을 통해 드러내어 어머니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02 작품의 종합적 감상

(가)의 ‘고향’은 아버지가 떠난 곳이다. <보기>에 따르면 우리 민족은 일제의 수탈과 징용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유랑했던 것이므로, 고향은 수탈을 피할 수 있는 이상적 장소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이용악은 개인의 삶이 민족의 문제로 확대되는 필연성을 표현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가)의 ‘아버지’는 개인이 아닌 우리 민족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아무울만’과 ‘니코리스크’는 (가)에서 아버지가 떠돌던 국외의 장소이다. <보기>에서 일제의 수탈과 징용으로 인해 유랑하거나 국외로 강제 이주하여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였으므로, ‘아무울만’과 ‘니코리스크’는 우리 민족들이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침상도 없이 비참한 죽음을 맞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당시 유이민의 힘겨운 삶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시인의 체험은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에 겪었던 아픔과 관련되어 작품에 드러나고 있다.

03 시어의 의미와 기능

[D]에서 ‘울 엄매’는 진주 남강을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새벽부터 밤까지 고된 일을 하였던 어머니의 힘겨운 삶을 짐작할 수 있으며, ‘울 엄매의 마음은 어퍼했을꼬.’에서 가난으로 인해 서러웠을 어머니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진주 장터 생어물전’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해 다 진 어스름’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울 엄매’의 삶을 환기하며 시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② ‘남은 고기 몇 마리의/빛 발(發)하는 눈갈들’은 어머니의 처지를 드러내며, 여기에 어머니가 가질 수 없는 ‘은전(銀錢)’을 결합하여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머니의 힘겨운 삶을 드러내고 있다.

③ ‘별발’은 ‘골방’과는 멀리 떨어진 소망의 세계를 상징하고, 멀고 있는 ‘오누이’의 모습은 가난하고 외로운 삶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⑤ ‘달빛 받은 웅기전의 웅기들같이/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은 남몰래 흘렸을 ‘울 엄매’의 눈물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화자는 이를 통해 가난으로 힘겨웠을 어머니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01 ② 02 ② 03 ①

가 [수라 _ 백석]

해제 이 작품은 시적 화자가 방바닥에 연이어 나타난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는 일을 반복하면서 느끼는 안타까움과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에서 거미 가족은 일제의 수탈로 인해 해체된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상징한다. 거미 가족의 이별과 ‘수라’라는 제목을 통해 가족 공동체의 붕괴가 심각했던 우리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을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제 가족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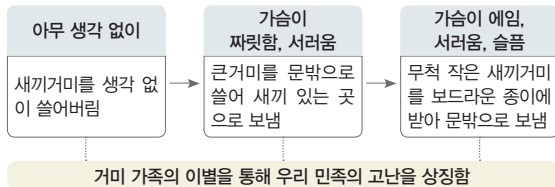
특징 • 구조의 반복과 변용을 통해 정서를 점층적으로 제시함
• 화자의 행동과 정서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나타나

구성 1연: 새끼거미를 문밖으로 쓸어버림

2연: 새끼를 만나라고 큰거미를 문밖으로 쓸어버림

3연: 작은 새끼거미도 가족을 만나라고 문밖으로 쓸어버리고 슬퍼함

한눈에 보기



나 [못 위의 장 _ 나희덕]

해제 이 작품은 못 위에서 꾸벅거리며 잠을 자는 아버 제비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는 시이다. 화자는 지붕 아래 작은 제비집의 제비 가족을 보며, 지난날 실직자인 아버지와 함께 늦은 밤 어머니를 마중하러 나갔다가 돌아왔던 쓸쓸한 장면을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가정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여 비애와 좌절감을 느꼈을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 제비의 모습에 투영하여 아버지 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 ‘늦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등의 시각적 심상을 통해 과거의 장면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주제 유년 시절의 아버지에 대한 회상과 연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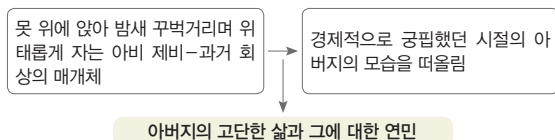
특징 •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시상을 전개함
• 화자의 회상과 시공간적 배경의 구체적 제시로 화자의 어린 시절을 사실적으로 그려 냄

구성 1~8행: 못 위에서 꾸벅거리는 아버 제비(현재)

9행~25행: 실업자인 아버지와 생계를 책임진 어머니에 대한 회상(과거)

26행~27행: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못 위의 아버 제비

한눈에 보기



0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는 ‘거미새끼’, ‘큰거미’, ‘작은 새끼거미’에 대한 관찰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가슴이 찢릿함’, ‘서러워함’, ‘가슴이 애타는 듯’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비좁은 등지 옆에 박혀 있는 못 위에서 불편하게 자고 있는 ‘아버 제비’에 대한 관찰을 통해 화자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아버지 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한 소재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어, 대립하는 이미지의 시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는 현재 화자가 겪은 상황을 사실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못 위에서 잠 든 아버 제비의 모습을 보고 어렸을 적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으나 화자의 처지가 아닌 아버지 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에서 ‘창백했던가요’와 같이 해요체를 사용하여 화자의 진술을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화자가 겪은 일과 그에 대한 심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해요체의 종결 어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에서 ‘반쪽달 달빛’,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어린 시절 아버지 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거미 가족의 헤어짐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드러날 뿐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지 않는다.

02 시상 전개 방식

[A]에서 화자는 시적 대상인 ‘거미’를 보고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가 [B]에서 연민, 동정의 감정이 생기고 [C]에서는 슬픔을 느낀다. 그러나 이는 모두 화자의 방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감정이며, 화자의 공간 이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A], [B], [C]에서는 ‘거미’를 문밖으로 쓸어버리는 화자의 행동이 거듭 반복되고 있다.

③ [A]에서 화자는 새끼거미를 아무 생각 없이 쓸어버렸으나 [B]에서는 큰거미를 보고 가슴이 찢릿했다고 하였다. 또 그 거미를 버릴 때는 서러워하였다. 더 나아가 [C]에서 더 작은 새끼거미를 보고는 가슴이 애타는 듯하다고 했고, 그 새끼거미가 가족을 만나기를 바라며 슬퍼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거미 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A]에서 [C]로 갈수록 시행이 점차 길어지면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시구도 늘어나고 있다.

⑤ [A]에서는 ‘거미 새끼’를 쓸어버린 화자의 상황만 표현하였으나 [B]에서는 ‘큰거미’가 새끼를 잃어버린 상황 및 정서를, [C]에서는 ‘무척 작은 새끼거미’가 엄마를 찾는 상황 및 정서를 화자가 추측하고 있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A)는 과거 사진을 현재의 시점에 중첩시켜 한 사진 안에 담고 있다. 또 (나)에서는 현재 못 위의 아버 제비의 모습과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중첩시키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A)와 (나) 모두 과거와 현재를 중첩시켰다고 할 수 있다(ㄱ). 또한, (A)에서는 앨범 속에서 꺼낸 옛 사진이, (나)에서는 ‘아버 제비’의 모습이 아버지를 떠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ㄷ).

오답 풀이 나. (나)에서 화자는 아버지가 가정으로서 느꼈을 무게감을 떠올리며 연민의 마음을 느낀다. 하지만 (A)에서는 아버지를 멋진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

ㄹ. (A)도 (나)와 마찬가지로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과거의 사진 속 실제 공간과 현재의 공간을 결합하고 있다.

01 ⑤ 02 ③ 03 ③

[강호사시가 _ 맹사성]

해제 전체 4수로 된 연시조로, 자연 속에서 사계절을 즐기며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삶과 그 속에서 느끼는 임금의 은혜를 노래한 강호가도 작품이다. 춘하추동 사계절에 따라 각각 한 수씩을 노래하며, 한 수는 모두 '배경(자연)-생활상(삶의 특성)-정서(만족감과 감운은)'의 전형적인 틀을 따른다. 즉, 초창에서는 계절의 풍요로움을, 중창에서는 안빈낙도하는 군자의 삶의 모습을, 종창에서는 이 모든 것이 임금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연에서 한가한 생활을 누리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점에서 태평성대에 유유자적하는 사대부의 전형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주제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안빈낙도하는 삶

특징 • 사계절에 따라 한 수씩 노래함

• 각 수마다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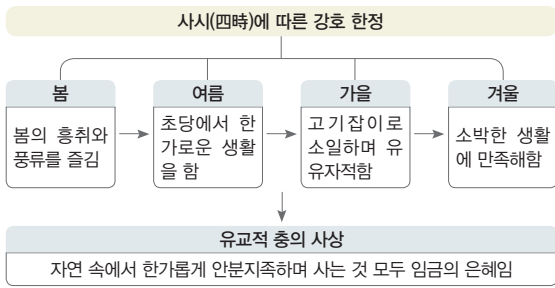
구성 <춘사(春詞): 시냇가에서 느끼는 봄의 흥취

<하사(夏詞): 초가집에서 느끼는 여름의 시원함

<추사(秋詞): 고기 잡으며 즐기는 가을의 정취

<동사(冬詞): 설경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겨울의 생활

한눈에 보기



01 표현상의 특징

이 작품은 각 수가 '춘(春)-하(夏)-추(秋)-동(冬)'으로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져 있으며, '탁료계변에 금린어', '유신한 강파', '고기마다 살져 있다.', '눈 깊이 자히 남다.' 등으로 정취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계절의 정취를 여유롭게 즐기며 안분지족하는 화자의 생활 모습과 정서가 나타나 있다.

오답 풀이 ① 설의적 표현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방법인데, 이 시가에서는 '역군은(亦君恩)이샷다'라며 단정적인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② 이 시가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을 뿐, 삶에 대한 깨달음은 드러내고 있지 않다. 또한 자신이 나타내려는 것과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적 표현도 활용하지 않았다.

③ 이 시가는 '탁료계변에 금린어', '고기마다 살져 있다.'와 '소정에 그물 실어 흘리 띄워 던져 두고', '눈 깊이 자히 남다.'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배경을 구체화하고 있다. 촉각적 이미지인 '서늘하움도'도 사용하고 있으나 공감각적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시가는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연에서 받은 인상을 드러내고 있으나 뚜렷한 빛깔을 드러내는 시어는 '눈' 정도이며, 이와 대비되는 색채가 드러나지도 않는다.

02 시상 전개 방식

이 시가의 각 수는 초창의 ①에서 계절의 변화가, ④에서 그로 인한 흥취가, 중창인 ⑤에서 화자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이 드러나며, 종창의 ⑥에서 각 계절마다 화자가 느끼는 감정과 삶의 모습이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⑥에서는 임금에 대한 유교적 충의의 자세를 보인다. 화자는 물질적 만족의 태도는 보이지 않으며 정신적 만족을 통한 안분지족의 자세와 물아일체의 경지를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각 수의 초창의 앞부분인 '강호(江湖)에 ~이 드니'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초창의 뒷부분에서는 이러한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정취를 표현하고 있다.

② 화자는 봄의 흥취로 시냇가에서 막걸리와 물고기 안주를 먹고 있고, 여름에는 강의 물결이 시원한 바람을 보내 준다고 하여 강가에서 쉬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가을에는 작은 배를 띄워 소일로 물고기를 잡고 있고, 겨울에는 많은 눈이 와서 샷갓과 누역을 입고 있다.

④ 화자는 봄에는 한가하고, 여름에는 서늘하고, 가을에는 소일하고, 겨울에는 춥지 않으며 각 계절마다 느끼는 감정과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화자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사는 자신의 삶이 모두 임금의 은혜 때문이라며 임금에게 감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당대를 태평성대로 여기고자 한 조선 전기 사대부의 유교적 이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더운 여름 화자에게 시원한 바람을 보내 주는 대상으로, 자연 속에서 여름을 보내며 화자가 느끼는 만족감과 관련이 있다. 벼슬을 지냈던 것에 대한 성취감과는 의미상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이 시가의 '춘사'를 보면,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안주 삼아 막걸리를 마시며 봄의 흥취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는 자연 속에서 화자가 느끼는 미적 감흥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초당(草堂)에 일이 없다.'는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삶을 말해 주는 것으로, 작자가 평생 한 벼슬살이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여유롭게 지내는 삶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④ '고기마다 살져 있다.'는 화자가 자연을 풍요로운 대상으로 여기는 것으로, 이는 작자가 큰 풍파 없이 높은 벼슬까지 지낸 정치 인생으로 인해 자연을 낙관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샷갓'과 '누역'은 소박한 생활을 상징하는 소재로, 정치적으로 성공한 작자가 더 이상 욕심을 낼 이유도 없고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며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알아 두기 '강호가도' 시가에 드러난 자연관과 유교적 가치관

'강호가도'란 조선 시대 시가 문학의 흐름 중 자연을 예찬하고, 그 속에 묻혀 살면서 유교적 관념을 노래한 일련의 작품 경향을 말한다. '강호사시가'도 강호가도의 작품에 속한다. 이러한 작품은 무거운 벼슬을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고향에 은거하면서 산과 물을 벗하고,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내용이 많다. 자연을 인간과 조화를 이루는 풍요로운 대상으로 인식하면서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임금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데서 유교적 충(忠) 사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시조의 향유층이 사대부라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01 ⑤ 02 ③ 03 ③

[사미인곡 _ 정철]

해제 임금에 대한 신하로서의 충성과 정성을 노래한 연군 가사이다. 임금을 임으로, 화자를 임과 생이별하고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으로 설정하여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고 있다. 즉 임금인 선조를 사모하는 연군의 정을, 한 여인이 이별한 임을 연모하는 마음에 빗대어 노래한 것이다.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면서 그 속에서 느끼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외로움 등을 표현하였다.

주제 연군의 정

특징 •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다양한 표현 기법과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린 절묘한 언어를 구사하여 문학성이 뛰어남

구성 서사: 임과의 인연과 이별 후의 그리움

본사 1-춘원(春怨): 충정을 임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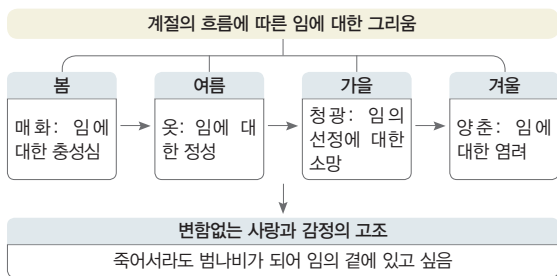
본사 2-하원(夏怨):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

본사 3-추원(秋怨): 임이 선정을 베풀기를 바램

본사 4-동원(冬怨): 임에 대한 염려와 외로움

결사: 죽어서도 임을 따르겠다는 다짐과 변함없는 마음

한눈에 보기



01 시상 전개 방식

이 시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느끼는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화자는 동풍이 부는 봄에는 ‘매화’를 임에게 보내어 자신의 변함없는 마음을 알리고 싶어 하고, 녹음이 깔리는 여름에는 자신의 정성과 사랑을 담아 오색실로 ‘웃’을 지어 임에게 보내고 싶어 한다. 기러기 우는 가을에는 ‘청광’을 임금에게 보내어 임금이 선정을 베푸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천지가 얼고 막히는 겨울에는 추운 곳에 계실 임을 염려하여 임에게 ‘양춘’을 보내고 싶어 한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자연물의 속성을 빌려 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를 인간의 삶과 대비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화자의 시선은 주로 화자가 거처하는 장소와 주변 사물에 머물러 있을 뿐, 특별하게 이동하고 있지는 않다.

③ 계절의 변화에 따라 ‘방, 누각’ 등으로 공간을 이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화자의 내면은 임에 대한 충정과 그리움 등으로 일관되어 있다. 따라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내면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화자와 청자가 대화하는 방식의 전개는 나타나지 않으며, 이 시가는 화자의 독백에 가까운 방식이 나타난다.

알아 두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시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과거-현재-미래’, ‘봄-여름-가을-겨울’, ‘아침-점심-저녁’과 같이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며, 추보식 시상 전개라고도 한다.

예 • 이육사, ‘광야’: 과거(까마득한 날)-현재(지금)-미래(천고의 뒤)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김광균, ‘외인촌’: 해 질 무렵부터 다음날 아침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02 시어의 의미와 기능

‘양춘’은 따뜻한 봄기운으로, 겨울에 춥게 지낼 임에게 따뜻한 햇살을 보내고 싶은 화자의 걱정과 염려를 의미한다. 화자가 임과 천생연분임을 나타내는 표현은 현재 제시된 지문이 아니라 서사에서 드러난다. 서사에서 화자는 자신이 임이 생길 때 따라 생겨난 한평생 연분이며, 자신을 하늘에서 임금을 모시다가 지상으로 떨어진 선녀에 비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금자’와 ‘백옥함’은 ‘자’와 ‘함’을 미화한 표현으로, 임을 위한 옷을 지을 때 값비싸고 좋은 도구로 짓고 싶어 하는 화자의 정성을 드러낸다.

② ‘달’과 ‘북극성’은 하늘 높이 떠 있는 자연물이다. 이는 ‘임’을 상징하는 것으로, 임이 그만큼 고귀한 존재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고전 시가에서 해, 달, 북극성 등과 같은 자연물은 하늘에 높이 떠 있다는 속성으로 인해 임금을 비유하는 시어로 자주 사용된다.

④ 화자는 현재 임을 만날 수 없으므로 꿈속에서라도 만나고 싶어 한다. 따라서 ‘꿈’은 임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범나비’는 훨훨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다. 따라서 임의 곁에 가까이 가고 싶은 화자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자연물이라 할 수 있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 시가는 서인인 작자가 반대파인 동인의 탄핵을 받아 벼슬에서 물러난 후, 고향에 머물면서 지은 가사이다. 따라서 임은 ‘임금’을, 임에 대한 그리움은 ‘화자의 충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C]에서 화자는 ‘청광’을 임금 계신 궁궐에 부쳐 보내고 싶어 한다. 임금이 이 ‘청광’으로 온 세상을 내달같이 환하게 비추어 주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이는 임금이 선정을 베풀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C]에서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주체는 화자가 아니라 임금이므로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화자가 ‘매화’를 임금에게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은 임금이 ‘매화’를 보고 자신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알아주고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매화’는 전통적으로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소재이다.

② ‘산’과 ‘구름’은 임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자연물이다. 따라서 임금의 충명을 어지럽히는 간신의 무리나 동인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겨울의 풍경을 천지가 얼고 막혀 ‘사람’은 물론 ‘날짐승’조차 없다고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주변 풍경의 묘사는 임과 이별해 홀로 있는 작자의 외로움을 나타낸 것이다.

⑤ 화자는 임에 대한 사랑, 즉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의미하는 ‘항’이 묻은 날개로 임을 좇을 것이라며 충신의 변함없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01 ④ 02 ⑤ 03 ④

가 [동동 _ 작자 미상]

해제 남녀의 이별을 제재로 하여, 입에 대한 그리움을 애절하게 노래하고 있는 월령체 형식의 고려 가요이다. 각 달의 세시 풍속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며 입에 대한 송축과 찬양, 입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원망,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애환 등을 솔직하고 진솔한 태도로 표출하고 있다.

주제 입에 대한 송축과 연모

특징 • 1년을 열두 달로 나누어 구성된 월령체 노래임
• 입과 화자를 다양한 자연물에 비유하여 표현함

구성 <정월령>: 삶의 고독함과 입에 대한 그리움
<이월령>: 입의 인품에 대한 찬양
<삼월령>: 입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
<사월령>: 오지 않는 무심한 입에 대한 원망
<오월령>: 입의 만수무강 기원
<유월령>: 입에게 버림받은 슬픔

한눈에 보기

이월령	'등불'에 입의 인품 비유	→	입에 대한 송축
삼월령	'진달래꽃'에 입의 모습 비유		
정월령	'열고 녹는 냇물'로 화자의 외로움 표현	→	입에 대한 연모
사월령	'피꼬리새'를 통해 입에 대한 원망 표출		
오월령	'수릿날 아침 약'으로 입의 만수무강 기원		
유월령	'벼랑에 버린 빗'으로 버림받은 슬픔 표현		

나 [황계사 _ 작자 미상]

해제 이별한 입을 그리워하며 속히 돌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을 드러낸 작품으로, 조선 시대 십이 가사 중 하나이다. 입이 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짓는 개, 깊은 물, 높은 산, 밝은 달을 제시하고, 병풍에 그려진 닳아 울면 입이 올 것 이라며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오지 않는 입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오지 않는 입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특징 • 입을 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나열함
•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구성 1~9구: 오지 않는 입에 대한 원망
10~25구: 오지 않는 입에 대한 기다림과 그리움

한눈에 보기

입을 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	입이 오는 상황		
개가 짓음	물이 깊음	산이 높음	달이 밝음		병풍 그림 속 황계가 날개를 치고 울		
↓							
입이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01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에서는 '녹사님은 옛 나를 잊고 신더.'를 통해 입이 화자의 곁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나)에서는 '일조 난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야'를 통해 난군과 이별한 화자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즉 (가)와 (나)는 모두 입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화자의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는 '아으 동동다리', (나)에는 '이 아해야 말 들소', '지어자 종을시키고'라는 후렴구가 사용되었다. 이 후렴구들은 음악적 흥취를 표현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가)는 시적 대상인 입의 모습을 비유적으로는 표현하고 있으며 자연물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역시 입에 대한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을 뿐 대상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

③ (가)는 세시 풍속에 따라 입에 대한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을 나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는 입이 올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을 나열하여 입을 기다리는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⑤ (가)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시 풍속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유월령>에 입을 좇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므로 오히려 운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봄 - 여름 - 가을'에 따라 입이 오지 못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입이 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을 뿐, 운명의 순응과는 관련이 없다.

02 작품의 종합적 감상

'피꼬리새'는 소식이 없는 녹사님(입)과 달리 4월마다 화자를 찾아 오는 존재이므로, 입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는 소재이다. 그리고 '돌아보실 입을 잠시나마 좇노이다.'는 입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을 표현한 시구일 뿐이므로 입이 돌아올 가능성이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정월령>에서 화자는 '세상 가운데 나곤 몸이여 홀로 살아가는 구나.'라고 하며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표현하고 있다. 화자가 외로운 이유는 이별한 입이 화자를 잊었기 때문인데, 이는 <사월령>과 <유월령>에서 드러난다.

② <이월령>에서는 만인을 비추는 입의 모습을 '등불'에 비유하였고, <삼월령>에서는 남이 부러워할 입의 모습을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꽃'에 비유하였다. 이는 모두 입에 대한 찬양의 표현이다.

③ <사월령>에서는 화자를 잊고 돌아오지 않는 입에 대한 원망을 입과 대조적인 존재인 '피꼬리새'를 통해 표현하였다. 다른 월령에서는 입에 대한 원망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월령>과 <삼월령>에서 화자는 입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다. 이러한 찬양은 <오월령>에서 오래 사실 약을 바치고, <유월령>에서 입의 모습을 좇는 화자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03 시어의 의미와 기능

'바람 불고 물결치는 대로'는 입이 물이 되고 화자는 배가 되어 함께 노닐 때, 어떤 상황이라도 함께 있고 싶다는 화자의 심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시구이다.

오답 풀이 ① '하운이 다기봉하니 산이 높아 못 오던가'에서 '산'은 입이 오지 못하게 막고 있으므로, 입과 화자의 사이를 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한다.

② '병풍에 그린 황계 수탉'이 운다는 것은 그림 속의 수탉이 살아 움직이는 상황이다. 이는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 입이 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황하수는' '너'가 죽어서 되는 존재이므로 입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분신 역할의 자연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저 달아 보느냐'에서 '달'은 입을 보고 싶은 화자와는 대조적으로 입을 볼 수 있는 자연물이면서, '임 거신 데 명휘'를 빌리려는 데서 화자의 바람을 성취해 줄 수 있는 자연물이다.

개념 찬 실천

현대 소설 1

본문 054~056쪽

개념으로 작품 읽기 | ① 장인 ② 성례

01 ② 02 ① 03 ⑤ 04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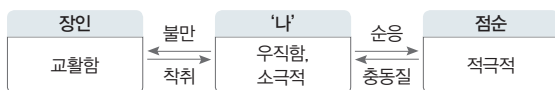
[봄·봄 _ 김유정]

해제 이 작품은 1935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성례 문제를 두고 대립하는 데릴사위와 장인의 이야기를 해학적으로 다루고 있다. 강원도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여 순박한 '나'를 서술자로 내세워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토속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여 해학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주제 우직하고 순박한 데릴사위와 그를 이용하는 교활한 장인의 해학적 갈등

특징 • 현재와 과거가 교차하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함
• 토속어와 비속어, 희극적 상황을 통해 향토성과 해학성을 유발함

한눈에 보기



▲ 장면 IN 줄거리

발단	'나'는 점순과의 성례를 조건으로 점순네 데릴사위로 들어가 샅을 받지 않고 일하고 있음
전개	장인은 점순과의 성례를 계속 미루고, 점순의 충동질에 '나'는 피병을 부려 보지만, 별 성과가 없음 수록 지문
절정 1	점순이 다시 충동질을 하여 '나'는 성례 문제로 장인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임
결말	올가을에 성례를 시켜 준다는 장인의 화유에 '나'는 장인과 화해를 하고 다시 일을 하려 감
절정 2	'나'와 장인의 싸움에서 점순은 장인의 편을 들고, '나'는 장인에게 심하게 얻어맞음

01 서술상의 특징

장인이 '나'의 뺨을 때린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데, '나'는 '작년 이맘때' 장인이 자신의 발목을 빼게 해 놔다가 혼인을 시켜 주겠다고 회유했던 일을 회상한다. 이를 통해 점순이와 혼인을 하기로 하고 장인의 집에 데릴사위로 들어가 일을 하고 있는 '나'가 장인과 혼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장인에게 뺨을 맞은 현재의 사건을 서술하다가, 태업을 했던 '작년 이맘때'의 사건을 서술하고, 또 점순이가 자신을 충동질했던 '그 전날'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다. 따라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병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순박하고 어리석은 인물로, 현학적 표현은 사용하지

고 있지 않으며 일상적인 구어체를 사용하여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④ 이 글의 서술자는 작중 인물이자 주인공인 '나'이며, '나'는 자신이 겪은 일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⑤ '액자식 구성'은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 있는 구성으로, 보통 서술자 중심의 외부 이야기와 서술자가 관찰하는 인물이나 사건 중심의 내부 이야기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주인공인 '나'가 자신이 겪은 일을 직접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점순이는 '나'에게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하며 종알거리기도 하고,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떻게." 하고 쏘아붙이기까지 한다. 이로 볼 때 점순이는 성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는 '나'에게 불만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나'는 성례를 재촉하는 점순이의 태도에 오히려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라고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나'가 점순이와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앞서 '나'가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나까.'하고 언급한 것은 자신의 뺨을 때린 장인이 당황해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③ "애,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가을에 벼 잘 되면 너 장가들지 않 니.", "이 자식아 미처 커야지. 조걸 데리고 무슨 혼인을 한다고 그러니 웬!"이라고 하는 장인의 말이나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 줘야 원 경우 가 옳지 않겠나.'라고 하는 '나'의 서술로 봤을 때, '나'와 장인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점순이와의 성례 때문이다.

④ '하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읊의 배참봉 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라는 서술로 볼 때, 장인이 동리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게 된 주된 이유는 마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횡포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⑤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라는 서술에 서도 알 수 있듯이 '나'는 동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장인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또한 장인이 동리 사람들에게 취하는 행동을 서술하고 있지만 이를 옹호하고 있지는 않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은 점순이가 겉으로 보이는 키는 크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는 성숙해진 것 같다는 '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은 욕을 잘하는 장인의 '욕필'이라는 별명이 '봉필'이라는 장인의 이름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알려 주고 있다.

② ㉡은 괄호를 제거해도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③ '이 망할 자식의 소'라는 표현에 ㉢을 덧붙인 것으로 보아, '나'는 성례를 이루는 장인에 대한 반감을 장인의 소에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은 점순이의 행동이 '너무 빨리빨리 논다.'라는 '나'의 평가에 '채신이 없이 들까본다'는 장인의 평가를 덧붙인 것이다.

04 배경의 의미와 기능

'나'는 점순이의 키가 작아 성례를 올릴 수 없다는 장인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점심을 이고 '밭'으로 온 점순이의 작은 키를 보고 올화가 생겨 이를 장인의 소에게 풀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은 장인이 마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소작농에게 횡포를 부리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시간으로, 장인과 같은 마름들이 많았다면 '가을'에 소작농들은 소작하던 땅을 빼앗길까 봐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나'는 가을에 장가를 들게 해 주겠다는 장인의 회유에 넘어가 '논'에서 남들이 이를 동안 할 일을 혼자 하루 만에 해치우며 일꾼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 ③ ㉔에서 '나'는 생동하는 봄 풍경에 휩쓸려 꿈꾸는 것 같은 나른함과 울렁거림을 느끼며 분위기에 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봄'이라는 배경이 인물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 ⑤ '이날' 점순이는 밤을 가져와 내외하던 평소 모습과 달리 '나'에게 성례 이야기를 꺼내어, '나'가 점순이도 자신과 혼례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이다.

현대 소설 2

본문 057~059쪽

개념으로 작품 읽기 | ① 선학동 ② 백학

01 ④ 02 ② 03 ④

[선학동 나그네 _ 이청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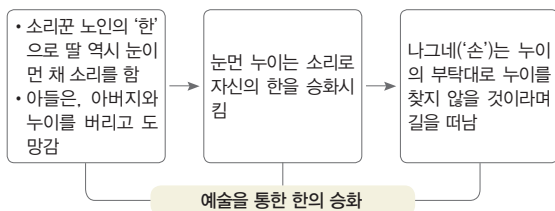
해제 이 작품은 '남도 사람' 연작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소설로, 전라남도 장흥 근처의 해안가 마을인 선학동을 배경으로 소리꾼 아버지와 눈먼 딸, 그리고 이복 남매인 오라비('손')의 굴곡진 운명을 그리고 있다. '소리'에 신명을 바치며 떠돌이로 일생을 살아온 아버지, 아버지에 의해 눈이 멀게 된 딸, 그리고 그들을 버리고 떠났으면서도 계속 누이를 찾아 헤매는 오라비 등 모두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작품은 현실 속의 한(恨)을 치열한 예술혼으로 승화시켜, 마침내 학이 되는 소리꾼의 삶을 통해 진정한 예술혼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주제 예술을 통한 한의 초월과 승화

특징 • 후일담 형식으로 회상의 기법을 사용함

• 환상적인 묘사로 자연과 예술의 조화를 보여 줌

한눈에 보기



▲ 장면 IN 줄거리

발단	선학동을 찾은 나그네가 마을의 변한 모습과 기대했던 선학을 볼 수 없다는 것에 실망함
전개	주막집 사내는 30년 전에 주막에 머무르던 소리꾼 노인과 그의 아들, 눈먼 딸에 대해 회상함
절정	주막집 사내는 나그네에게 눈먼 소리꾼 여자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찾아와 아버지의 유골을 묻고 떠나며 자기 오라비에게 자신을 찾지 말라는 마지막 부탁을 했다고 전함
결말	주인 사내는 사내에게 아버지에 대한 한을 풀어 버리라고 하지만 사내('손')는 그대로 선학동을 떠나고 주인 사내는 백학의 비상을 봄 수록 지문

01 서술상의 특징

이 작품은 후일담 형식으로 소리꾼 여인에 대한 회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제시된 부분은 주막집 주인 사내가 소리꾼 여인에 대한 내력을 나그네('손')에게 전달해 주는 부분으로, 주막집 사내와 '손'의 대화를 통해 소리꾼 여인의 과거 행적이 제시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글에서 인물의 성격은 주로 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② 이 글은 주막집 사내의 말을 통해 과거의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는 부분으로, 과거 장면이 삽입되어 있지는 않다.
- ③ 이 부분에 나타나는 공간은 '선학동', '주막', '들판' 등으로 서로 대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 또한 이 글은 갈등이 점차 해소되는 부분이다.
- ⑤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은 소리꾼 여인으로, 그 여인의 과거 행적을 전달하는 내용이 주된 부분이다.

0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주막집 '주인'은 '손'의 누이가 했던 말을 전해 주고, 떠나는 '손'에게 답을 요구하며 누이의 부탁대로 '손'이 더 이상 누이를 찾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인'이 '손'이 언젠가 누이를 만나 화해하기를 기대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손'은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누이가 자신의 종적을 찾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누이의 심정을 이해하고 누이를 찾는 일이 부질없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누이를 찾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있다.
- ③ '주인'은 '손'이 눈먼 소리꾼 여자의 오라비임을 알고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며, "그래, 그 오라비는 그 딸 마지막으로 누이를 다시 만날 수가 없었소?"라고 말한다. '손'이 그 소리꾼 여자의 오라비임을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는 것이다.
- ④ '손'이 "나도 알고 있었소."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그는 이미 '주인'이 눈이 먼 여자를 도와 '그 어른('손'의 의붓아버지)'의 묘소를 만들어 줬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손'은 누이를 버리고 떠난 후에 딱 한 번 누이를 만났으나 끝내 자기가 오라비란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여자가 종적을 감췄다고 했으므로 다시 만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보기〉를 참고할 때, 이 작품은 한을 품은 인물들이 예술을 통해 한을 승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버지의 욕심으로 눈이 멀게 된 여인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소리라는 예술로 극복하고 승화시킨다. ㉔에서는 이미 한을 극복하고 승화하여 '학'의 모습으로 비상하는 여인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소리를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삶의 굴레를 초월하여 예술 행위로 승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㉔에서 여인은 오라비에게 자신을 찾지 말라 하면서 오라비와 삶의 굴레를 끊고 소리꾼으로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 ② 〈보기〉에서 아버지가 소리꾼 여자의 눈을 멀게 했음을 알 수 있다. ㉔은 한을 심어 주기 위해 딸의 눈을 희생시킨 아버지의 불행한 운명을 의미한다.
- ③ ㉔은 배경 묘사로 오라비와 누이가 직접 만나서 화해를 할 수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갈등을 해소할 것임을 암시한다.
- ⑤ 이 작품에 드러나는 '백학'은 상징적인 의미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한이 '소리'라는 예술로 승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개념으로 작품 읽기 | ① 옥진 ② 수정궁

01 ⑤ 02 ④ 03 ② 04 ②

[심청전 _ 작가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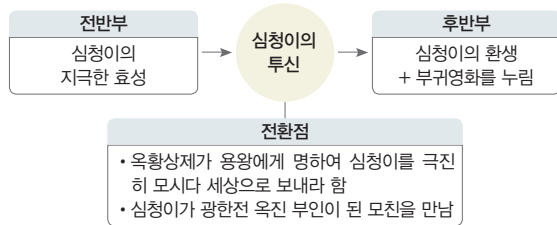
해제 이 작품은 판소리 열두 마당 중 하나인 '심청가'가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로 유교적 관념인 '효(孝)'와 '인과응보(因果應報)' 사상을 주제 의식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의 구성은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전반부와 환생의 세계가 중심을 이루는 후반부로 나누어진다. 가난하고 눈먼 아버지께 대한 외동딸 심청이의 헌신적 사랑이 부각되는 전반부에서는 '효성(孝誠)'이라는 사회 윤리적 가치가 교훈적으로 제시되며, 인신공희(人身供犧)의 제물이 되었던 심청이가 환생하면서 전개되는 후반부에서는 심청이가 귀한 신분으로 영화를 누리게 되고 심 봉사가 광명을 찾게 됨으로써 전형적인 '인과응보(因果應報)' 사상이 드러난다.

주제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 인과응보(因果應報)

특징 • 유교, 불교, 도교 사상, 민간 신앙과 같은 다양한 사상이 반영됨

• '현실계 - 환상계 - 현실계'의 구조로 이루어짐

한눈에 보기



▲ 장면 IN 줄거리

발단	황주에 심학규라는 봉사가 객씨 부인과 살았는데, 지성으로 불공을 드린 후에 딸 심청이를 낳지만 부인이 7일 만에 죽음
전개	동냥짓을 먹으며 자란 심청이는 아버지를 지극한 효성으로 모심. 어느 날 심 봉사는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몽운사 승려의 말에 시주하겠다는 약속을 함
위기	심청이는 시주로 약속한 공양미 삼백 석을 마련하기 위해 남경 상인에게 인당수 제물로 자신의 몸을 팔. 인당수에 빠진 심청이는 용궁에서 웅숭한 대접을 받고 연꽃을 타고 다시 인당수로 돌아옴 수록 지문
절정	남경 상인들이 돌아오는 길에 인당수에 떠 있는 연꽃을 건져 황제에게 바치고, 황제는 연꽃에서 나온 심청이를 황후로 삼음
결말	심청이는 부친을 찾으려고 맹인 잔치를 벌여 전국의 맹인들을 초대하고, 황후가 된 심청이와 재회한 심 봉사는 눈을 뜸

01 서술상의 특징

심청이가 이승에 홀로 있을 아버지를 걱정하는 말에서 효성이 지극한 인물임을 알 수 있고, 심청이의 제사를 정성껏 지내는 행동에서 장 승상 댁 부인이 심청이를 아끼는 정이 많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용궁 세계에 사는 바다의 장군과 군사들을 열거하여 장면을 극대화하고 있다.

② 심청이의 제사를 지내는 부분에서 자연물과 사물도 고요해지는 신비로운 배경 묘사를 통해 심청이가 다시 살아가는 특별한 인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③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진 후에는 현실 세계에서 용궁이라는 환상 세계로 공간이 바뀌며 심청이가 환생한 어머니를 만나는 등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④ 서술자의 설명으로 광한전의 옥진 부인은 심 봉사의 아내이자, 심청이의 어머니인 객씨 부인이 환생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02 사건의 전개 양상

심청이는 눈먼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바칠 정도로 효심이 지극한 인물이다. 초월적 공간인 용궁에서 신선이 된 모친을 만나서도 여전히 현실 세계에 있는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으므로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기 이전의 삶을 부질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② 심청이의 모친 객씨 부인은 심청이를 낳자마자 죽었으나, 달나라 궁전인 광한전의 옥진 부인이라는 고귀한 신분이 되어 용궁에서 심청이와 재회하고 있다.

③ ⑤ 옥황상제는 하늘이 낸 효녀라며 물에 빠진 심청이를 구해 용궁에서 대접하다가 3년 뒤에 세상으로 돌려보내라 하고, 옥진 부인 역시 심청이가 부친과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알 수 있다.

03 소재의 의미와 기능

㉠은 빛이 변하여 검어졌다가 도로 황홀해지면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 죽을 뻔했다 다시 살아난 상황을 보여 주는 소재이고, ㉡은 심청이의 모친이 살아생전에 끼던 것으로, 심청이와 옥진 부인이 모녀지간임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오답 풀이 ① ㉠은 장 승상 댁 부인이나 심청이의 심리와는 관련이 없는 소재이다. ㉡은 어머니의 유품이기 때문에 심청이에게 안정감을 줄 수는 있으나, 이 글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을 뿐, 부정적인 면모를 보이지 않고 있다.

④ 이 글에서는 등장인물끼리 감정적으로 대립 관계를 형성하거나 화해의 과정을 거치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⑤ ㉡은 심청이의 능력에 의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며, ㉡은 이 글에서 특별히 신분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04 속담 및 한자 성어

[A]의 상황은 인당수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한 심청이가 옥황상제에 의해 목숨을 구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거의 죽게 되어 곧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름'이라는 뜻의 '명재경각(命在頃刻)'의 순간에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움. 또는 그런 일'이라는 뜻인 '천우신조(天佑神助)'로 살아났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 또는 그런 일/인자상정(人之常情):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마음

③ 백척간두(百尺竿頭):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

④ 사고무친(四顧無親):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학수고대(鶴首苦待):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

⑤ 사면초가(四面楚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심사숙고(深思熟考): 깊이 잘 생각함

개념으로 작품 읽기 | ① 김 진사 ② 채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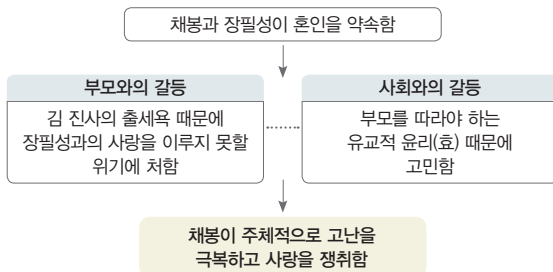
01 ④ 02 ⑤ 03 ⑤

[채봉감별곡 _ 작자 미상]

해제 이 작품은 ‘채봉’이라는 여인이 부모의 출세욕 때문에 자신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고난을 겪게 되는데, 조력자의 도움과 자신의 주체적인 의지로 고난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남녀 간의 애정과 혼사 과정에서 생기는 장애를 극복하고 사랑을 성취하는 전형적인 애정 소설의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고전 소설의 특징인 우연성과 비현실성을 탈피하고 사실적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인 조선 후기에는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이 성행했는데, 이를 작품 속에 사실적으로 담아내어 당시의 타락하고 부패한 세태와 봉건 제도의 모순을 고발하고 있다.

주제 권세에 굴하지 않는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

특징 • 주체적이고 근대적인 여인상을 창조함
• 매관매직이 성행하던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드러냄
한눈에 보기



▲ 장면 IN 줄거리

발단	평양에 사는 김 진사의 딸 채봉은 가난한 선비인 장필성과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혼인을 약속함
전개	한양에 갔던 김 진사는 허 판서에게 돈을 주는 것과 채봉을 허 판서의 첩으로 들어가는 것을 대가로 벼슬을 약속받고 돌아와, 한양으로 가기 위해 모든 재산을 처분함
위기	한양으로 상경하는 도중에 채봉은 몰래 도망쳐 평양으로 돌아오고, 김 진사 부부는 도적을 만나 재산을 모두 빼앗김. 이 사실을 알게 된 허 판서는 대노하며 김 진사를 가두고, 채봉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가생이 되기로 결심함 수록 지문
절정	채봉은 ‘송이’라는 이름의 기생이 되고, 새로 부임한 평안 감사 이보국은 서화가 뛰어난 채봉의 재주를 보고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맡김. 장필성은 채봉을 만나기 위해 이방으로 자원하지만 둘은 만날 기회를 가지지 못함
결말	장필성을 그리워하던 채봉은 ‘추풍감별곡’을 지어 외로움을 달래다 이보국에게 속해를 들리게 되고, 사정을 들은 이보국은 둘의 재회를 도움. 허 판서는 역모죄로 파국을 맞게 되고, 김 진사 부부가 돌아온 후 채봉과 장필성은 혼인을 하게 됨

01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채봉은 평양으로 돌아온 이 부인과 만나 부모의 지난 사연을 들은 후, ‘지난날 만리교 주막에서 취향과 약속하고 밤중에 도망하여 온’ 자신의 사연을 이 부인에게 말하였다.

오답 풀이 ① 이 부인은 재물을 잃은 사연을 딸인 채봉에게 전하고는 있지만, 재물을 잃게 된 것을 채봉의 탓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다.

② 채봉은 평양으로 도망친 후, 취향의 집에서 부친의 기별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부모와 연을 끊으려고 취향의 집에 숨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채봉을 찾을 수 없다는 허 판서의 말에 김 진사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있어야지요. 대감 위력이나 빌어가지고 찾고자 하여 올라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김 진사는 채봉을 스스로 찾아 데려오는 것을 포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김 진사는 벼슬에 대한 대가로 허 판서에게 약속한 것들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책임을 받지 못하지만, 곧 ‘절을 하여 책임을 받아 앞에 놓고’ 허 판서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김 진사의 모습에 허 판서도 “현감은 할 터이니까, 지금 와서 그까지 소리를 한단 말이나.”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김 진사가 책임을 받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2 서술상의 특징

㉠은 ‘채봉’의 내적 독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애를 서술하고 있다.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서술하는 편집자적 논평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은 이 부인의 내적 독백으로, 이 부인은 도망친 채봉이 평양으로 돌아와 취향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취향의 집으로 가고자 한다.

② ㉡은 오랜 시간 변함이 없는 자연의 모습과 한 달 동안에 행색이 초췌해진 이 부인의 모습을 대비하여, 재물을 잃고 혼자 평양으로 돌아온 이 부인의 암담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③ ㉢은 김 진사가 허 판서에게 붙잡혀 혼자 평양으로 돌아오게 된 이 부인이 채봉을 만나 현재의 상황에 대한 막막한 심정을 의문형의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④ ㉤은 도적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김 진사가 허 판서에게 붙잡혀 있는 등 채봉의 부모가 직면한 절박한 상황을 ‘범의 아구리에 들었으며’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채봉은 장필성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이 부인이 잠든 틈을 타 도망친 것일 뿐, 만리교에서 도적이 들 것을 예측하고 피한 것은 아니다. 또한 채봉은 부모가 도적을 만난 것을 취향의 집에서 이 부인과 재회한 후에 알게 되었다.

오답 풀이 ① 채봉은 이미 장필성과 혼약을 하였지만, 자신의 뜻과 달리 허 판서의 첩이 될 처지에 놓이자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평양으로 돌아와 혼약을 지키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채봉은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채봉은 “세상에 누가 만일 돈을 주어 내 부모를 구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데려다가 종노릇을 시키거든 종노릇을 하고, 기생 노릇을 시키거든 기생 노릇이라도 하리라.”라고 말하며 천한 신분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자 하므로 능동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벼슬을 대가로 김 진사에게 돈과 딸을 요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김 진사를 가둬 두기까지 하는 허 판서의 모습을 통해,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부패했던 조선 후기의 부정적 현실을 살펴볼 수 있다.

④ 벼슬을 사기 위해 자신의 딸인 채봉을 허 판서의 첩으로 보내려고까지 하였던 김 진사는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개념으로 작품 읽기 | ① 소유 ② 사랑

01 ③ 02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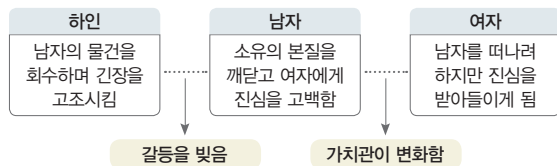
[결혼 _ 이강백]

해제 이 작품은 결혼을 목적으로 맞선에 나온 여자를 속이는 가난한 사기꾼 남자의 해프닝을 그리고 있다. 전통적인 회곡과 달리 실험적인 기법을 활용한 단막극으로, 특별한 무대 장치 없으며 배우가 관객을 극 속에 참여시키고 있다. 결혼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소유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작품이다.

주제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

특징 • 소품을 빌리거나, 말을 걸어 관객을 극 중에 참여시킴
• 사물에 빗대어 시간과 소유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우의적 기법을 활용함

한눈에 보기



▲ 장면 IN 줄거리

발단	남자가 결혼할 여자를 만나기 위해 여러 가지 물건을 빌려 놓고 기다림 수록 지문
전개	부를 과시하는 남자에게 여자는 호감을 가지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남자는 하인에게 물건을 하나씩 빼앗김
위기	실제로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남자의 상황을 알게 된 여자가 남자를 떠나려고 함
절정	자신을 떠나려는 여자에게 남자는 자신의 진심을 호소하며 설득함 수록 지문
결말	남자에게 연민을 느끼고 남자의 진심을 이해하게 된 여자가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임

01 작품의 종합적 감상

[A]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남자의 실상을 알게 된 여자가 남자를 사기꾼이라고 하자, 남자가 소유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철학적 사고를 밝히며 여자를 설득하는 내용이다. ㉔은 남자가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에 실망한 여자의 행동으로, 남자의 말을 거짓이라 생각하여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㉔에서 '책은 남자가 빌린 것으로, 정해진 시간이 되자 하인이 강제로 회수하고 있다. [A]에서의 남자의 말을 바탕으로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며, 정해진 시간이 되면 되돌려 줘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㉔의 '회중시계'는 시간의 경과를 알리는 소품으로, 하인이 회중시계를 내밀어 보이는 것은 빌린 물건을 돌려주기로 한 시간이 다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누구도 물건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㉔에서 남자는 자신이 벡타이를 빌렸던 남자 관객에서 직접적으로 말을 걸며 자신이 벡타이를 소중히 쓰고 되돌려 준 사실을 환기시킨다. 그리고 여자에게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끝나는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데 그 남자 관객을 증인으로 삼고 있다.

⑤ [A]에서 여자는 자신을 속인 남자에게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대하고 있는데, ㉔에서 여자가 남자를 부축하고 포옹하는 것은 '구둣발'로 상징되는 하인의 폭력 앞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남자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02 형상화 방식

이 글에서 하인은 소통을 거부한 채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남자가 빌린 물건을 회수해 가는 인물로, 남자와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 남자와 하인만 있던 무대 공간에 여자가 등장한 후 본격적인 사건이 진행되므로 여자의 등장이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남자와 하인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남자의 첫 대사 중 '그래서 즉시 여성 잡지를 뒤져 사교란에 주소를 낸 여자에게 전보를 쳤습니다.'를 통해 남자가 전보를 치는 행동이 현재의 무대 공간에서 인물의 대사를 통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하인은 무대에서 남자가 빌린 책을 빼앗은 뒤 무대 밖으로 퇴장하고 있다. 책 외에 남자가 빌린 물건들도 정해진 시간이 있으므로 하인의 등퇴장은 물건을 빌린 시간을 의식해야 하는 남자의 초조함을 고조시키고 관객들의 긴장감도 유발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③ 하인이 남자가 빌린 물건을 빼앗아 무대 밖으로 나가 그 물건을 처리하고 돌아오는 것은 무대에서 보여주지 않는 공간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④ 남자는 관객에게 말을 걸거나 물건을 빌리고, 또 여자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밝히는 데 관객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를 통해 관객을 극의 진행 과정에 참여시켜 관객성과 무대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념으로 작품 읽기 | ① 통곡헌 ② 통곡

01 ② 02 ③ 03 ④

[통곡헌기 _ 허균]

해제 이 글은 새로 지은 서실을 '통곡헌'이라 이름 지은 조카 허균을 옹호하는 허균의 수필이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좋은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슬피 운다는 뜻을 지닌 통곡을 이름으로 삼느냐고 비웃는 것에 대해, 글쓴이는 불우한 시대 때문에 통곡한 옛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낸 뒤 오늘날이 훨씬 더 말세에 가깝다고 하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비판하고, 이러한 불우한 시절을 맞아 통곡하고 싶은 심정을 '통곡헌'에 담은 것이라고 하며 '통곡헌'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고 있다.

주제 '통곡헌'의 내력과 시대에 대한 비판

특징 문답법을 통해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성찰을 드러냄

구성 기: 통곡헌이라는 이름에 대한 사람들의 비웃음

승: 조카의 대답

전: 허균의 설명 - 역사적 인물들이 통곡을 했던 이유

결: 허균의 설명 - 통곡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현실

한눈에 보기

조카가 서실을 '통곡현'이라 이름 지음

- 사람들이 통곡만큼 싫어하는 것은 없음
-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고자 함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 세상에는 즐거운 일이 많고 통곡은 가족을 잃었을 때나 하는 것임
- 사람들은 통곡하는 울음소리를 싫어하므로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을 이름으로 삼을 필요 없음

글쓴이의 옹호

- 불우한 시대를 맞아 통곡했던 인물들을 제시함
- 부패한 세태를 개탄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꼬집음

01 서술상의 특징

글쓴이는 불우한 시대에 대해 통곡했던 군자들의 사례를 나열하여 조카를 비웃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통곡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조카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직설적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통곡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오늘날은 그들의 시대와 비교해 보면 더욱 말세이고, ~'라는 표현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현재의 부정적인 면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 ④ 글쓴이는 '가이', '목적' 등 자신들이 품은 생각이 따라 통곡했던 역사적 인물을 나열하고 있을 뿐, 이들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이 글에는 글쓴이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므로 객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02 글쓴이의 관점 및 태도

가이, 목적, 양주 등은 불우한 시대를 맞아 비극적인 삶을 살아간 인물이다. 그들의 상황으로 볼 때, 그들은 부정적인 시대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절망감을 통곡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군자들의 통곡은 품은 뜻, 즉 세상이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과 통탄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② 글쓴이는 군자들의 통곡을 좋은 의미로 여기고 있다.
- ④ 군자들의 통곡이 세상을 향한 비판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군자가 되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글쓴이가 군자들의 통곡은 개인적인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였으므로 세상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여 통곡했다고 하기 어렵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㉔에서 글쓴이는 불우한 시대를 맞아 '통곡현'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오히려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쓴이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현실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통곡은 부모를 잃은 사람이나 남편을 떠나 보낸 아내가 아니면 하지 않는 법이라 하였다. 허친이 서실의 이름을 통곡현이라고 지은 것은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것이다.
- ② 허친은 '통곡현'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통곡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즉 허친은 역설적인 발상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내세움으로써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 ③ 허친과 글쓴이는 통곡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고정 관념을 깨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통곡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⑤ 글의 마지막 부분의 '마침내 비웃던 사람들이 깨우치고 물러갔다.'를 통해 처음에는 허친을 비웃던 사람들이 허친의 행동을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점수 올리는 실전

현대 소설 1

본문 070~072쪽

01 ⑤ 02 ④ 03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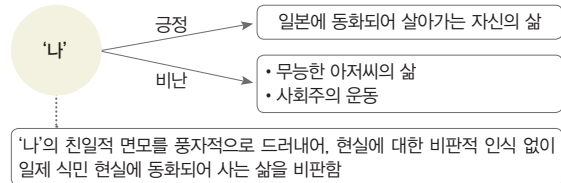
[치숙 _ 채만식]

해제 이 소설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나온 아저씨의 모습을 조카인 '나'의 눈을 통해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일본의 지배에 동화되어 스스로 완전히 일본화하여 살아가려는 '나'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서술자이다. 이러한 '나'가 아저씨를 비난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오히려 '나'를 부정적인 인물로 느껴지게 하며, 아저씨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갖게 하는 효과를 낸다. 이는 칭찬과 비난을 서로 역전시키는 방법으로, 식민 통치에 협력하는 현실 순응형 인물을 반어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주제 일제 식민 통치에 순응하는 '나'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아저씨의 갈등

특징 • 부정적인 서술자를 통해 현실을 이중적으로 풍자함
• 구어적 표현, 대화적 문체를 사용함

한눈에 보기



▲ 장면 IN 줄거리

발단	일제 강점기 지식인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던 아저씨를 서술자인 '나'가 소개함
전개	'나'는 대학교까지 나왔으나 전과자가 된 아저씨와, 무능력한 남편을 끝까지 돌보는 아주머니를 보며 답답해함
위기	'나'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상점의 점원으로, 앞으로 철저히 일본인으로 동화되어 살아가겠다고 다짐함 주목 지문
절정	'나'는 아저씨가 하려는 사회주의 운동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아저씨는 '나'에게 아직 세상물정을 모른다고 함
결말	'나'는 아저씨에 대해 실망하고 아저씨 같은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01 서술상의 특징

[A]와 [B] 모두 '나'가 사건을 서술하는 1인칭 시점이므로 서술 시점에 변화가 드러나지 않으며, [A]에서는 아저씨, [B]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므로 같은 사건에 대하여 서술한 것 또한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서술자인 '나'는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돈도 명예도 생기지 않는 일에 몰두하는 아저씨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러한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A]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② [B]에서 서술자는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 일본인 주인에게 들은 말을 전달하고 있다.

③ 서술자는 [A]와 [B]에서 '아, 그런데', '내 참 기가 막혀!', '아아니', '아아' 등과 같은 구어적 표현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구어적 표현은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현장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④ [A]와 [B]는 모두 서술자가 가상의 청자(독자)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0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㉔에서 '나'는 일본인 주인 밑에서 앞으로 10년 더 열심히 일하면 따로 장사할 밑천을 줄 것이며, 이를 자본 삼아 30년 동안 장사를 해서 10만원을 모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허황된 꿈을 좇는다고 보다는 민족적 주체성을 버리고서라도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는 태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아저씨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기껏 막벌이 노동밖에 해먹을 게 없고, 보통학교 사 년 다닌 '나'만도 못하다고 하는 말을 통해, 지식인에 대해 냉소적인 '나'의 태도를 알 수 있다.

② '밥이 생기는 노릇, 명예를 얻는 노릇'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돈과 같은 물질적 가치와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것을 그대로 두었으면 세상이 큰일이 났을 것이라며 사회주의를 세상에 피해를 끼치는 요소로 이해하고 있다.

⑤ 일본 성명으로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인같이 생활하겠다는 '나'의 말에서 민족적 주체성을 상실하고 일제의 식민 논리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알 수 있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보기〉에서 풍자는 왜곡된 거울을 통해 진실을 보여 준다고 했다. 이 글의 '나'는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 온 아저씨의 무능함을 조롱하고, 일제 통치에 잘 적응하며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나'는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신만 편히 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보기〉의 왜곡된 거울은 바로 '나'이며, 독자는 '나'의 태도와 현실 인식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가지고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 그러므로 독자는 아저씨가 감옥에 간 사건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저씨를 비롯, 일제에 순응한 '나'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풍자 소설은 왜곡된 거울을 통해 세계를 비추다고 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일제에 동화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나'를 긍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식민 통치에 순응하는 부정적 모습을 '나'의 시각에서 왜곡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② 〈보기〉에 따르면 풍자 소설에서는 인물의 가치 기준을 왜곡하여 독자의 비판을 이끌어 낸다고 하였다. '나'는 돈만 벌 수 있다면 일본인처럼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하고 이러한 자신의 가치 기준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나'의 가치관은 사실상 부정적인 것으로 '나'의 시선이라는 왜곡된 거울을 통해 긍정적으로 비추진 것이다.

③ '나'는 일본인인 다이쇼에 대해 자상하다는 표현을 쓰며 자신을 귀여워하고 신용하는 마음 좋은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다이쇼의 사회주의에 대한 생각을 아무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나'가 자신의 잘못된 시각을 통해 현실을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다.

⑤ 〈보기〉에서 독자는 왜곡된 거울에 비추진 현실의 본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일제 통치에 적응하며 개인적 성공만을 생각하는 '나'는 이러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왜곡된 '나'의 모습을 통해 일제 강점기 현실에 동화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01 ④ 02 ④ 03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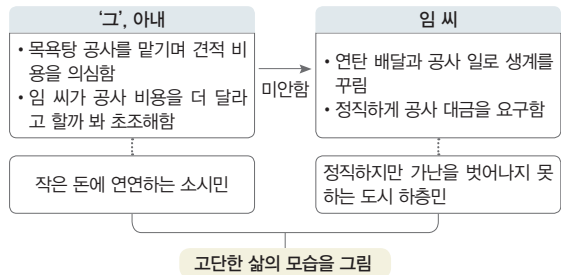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_ 양귀자]

해제 이 작품은 연작 소설인 〈원미동 사람들〉의 여섯 번째 작품으로, 사소한 이익에 휘둘리는 소시민의 일상과 정직하고 성실하지만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도시 하층민의 삶을 그리고 있다. '그'와 아내는 목욕탕 공사를 맡은 임 씨를 못미더워하다가 성실하고 정직한 임 씨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임 씨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된다. 작은 이익에 연연해지는 '그'와 아내의 모습에서 소시민의 속물적 태도를, 연탄 배달과 공사 일을 병행해야 할 정도로 가난하지만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임 씨의 모습에서 도시 하층민의 깨끗한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작가는 '원미동'이라는 도시 변두리 동네에서 이웃 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 따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소시민의 일상적인 삶과 가난한 도시 하층민의 힘겨운 삶을 그려 내고자 하였다.

주제 소시민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상의 갈등과 해소

특징 • 일상적 사건을 통해 소시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 냄
•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지만 '그'의 심리를 주로 제시하고 있으며, 사건의 진행에 따라 임 씨에 대한 '그'의 심리 변화를 나타냄

한눈에 보기



▲ 장면 IN 줄거리

발단	'그'와 아내는 임 씨에게 목욕탕 공사를 맡기는데, 임 씨의 본업이 연탄 배달부라는 사실을 알자 미심쩍어 함 수록 지문
전개	'그'와 아내는 공사가 간단해지자 처음의 견적대로 돈을 주는 것이 아까워 옥상 공사까지 요구하고 계속 임 씨를 경계하지만, 임 씨는 옥상 공사를 정성껏 마무리함
위기	공사를 마친 임 씨가 처음 견적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수정해서 공사 비용을 청하자 '그'와 아내는 당황해하며 미안함을 느낌 수록 지문
절정	'그'는 임 씨와 맥주를 마시며, 일이 없는 비 오는 날에는 때인 연탄 값을 받으러 가리봉동에 간다는 임 씨의 사연을 들음
결말	임 씨는 술에 취해 모순된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그'는 술에 취한 임 씨의 울음 섞인 하소연을 들으며 연민을 느낌

01 서술상의 특징

이 글에는 목욕탕과 옥상 공사라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임 씨에 대한 '그'의 심리 변화가 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의 '그'는 임 씨가 견적을 다시 낼 때 비용이 올라갈까 봐 잔뜩 애를 태우면서도 그런 자신의 모습에 역겨움을 느낀다. 하지만 공사가 간단하게 되었다는 임 씨의 말에서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임 씨가 애

초의 견적보다 턱없이 낮은 비용을 말하자 ‘그’는 아연해지며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인물 간의 대화와 인물의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되고는 있으나, 인물 간의 갈등은 대화의 전개에 따라 점차 해소되고 있다.
- ②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목욕탕 공사 사건에 대한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그’와 아내의 과거나 임 씨의 과거,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대한 암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목욕탕 공사라는 한 가지 이야기만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 ⑤ 이 작품에서 서술자는 주로 ‘그’의 심리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그’의 입장에서 다른 인물들의 행동이나 말을 주시하고 있다.

02 인물의 심리 및 태도

㉔에서 ‘그’의 아내는 임 씨가 다시 책정한 공사 비용이 예상보다 너무 적자 임 씨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아내가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는 것은 남편이 중재하여 임 씨에게 금액을 더 주었으면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7만 원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처음 견적인 18만 원을 다 주려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아내는 임 씨가 청구한 비용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돈을 주기 전 ㉔에서 말끝을 흐리고 있다. 이는 공사 비용을 깎으려는 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그’는 아내가 공사 대금을 깎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자신의 말을 거들어 달라는 아내의 눈길을 피하고 있다. 그리고 ㉔의 뒷부분에서 목욕탕 공사와 옥상 일까지 한 임 씨에게 처음에 약속한 공사 대금을 주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임 씨가 다시 공사비를 책정하는 중에 ‘그’는 공사비에 대해 계산적으로 생각하며 혹시 대금이 많이 나올까 봐 초조해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계산적인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고 있다.
- ⑤ ㉔에서 임 씨는 자신이 공사에 사용한 비용을 다 받은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의 불편한 마음을 덜어 주고 있고, 겨울에 연탄이나 주문해 달라고 말하며 훗날을 부탁하고 있다. 이는 공사비를 깎지 않고 더 주려고 하는 ‘그’의 호의에 대한 임 씨의 배려라고 볼 수 있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서비스’는 옥상 일을 한 품삯을 받지 않겠노라는 임 씨의 순박함을 드러내며, 고달픈 삶 속에서도 이웃에 대한 이해와 공감감이 남아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그’의 아내는 목욕탕 공사 비용을 계산하며 임 씨가 일은 수월하게 하면서 공사 비용을 많이 청구하지는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은 이익에 전전긍긍하는 소시민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② <보기>에서 이 작품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을 소재로 하여 소시민의 일상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이 글은 ‘목욕탕 공사’라는 일상적인 사건을 소재로 인물들의 심리와 내적 갈등을 그리고 있다.
- ③ <보기>에서 이 작품에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이 등장한다고 하였다. 연탄 배달 일과 공사 일을 함께 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 나가는 임 씨의 모습을 통해 정직하게 살아가지만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도시 빈민층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④ ‘칠만 원’은 임 씨가 새로 내놓은 견적이다. 애초의 견적 비용보다 터무니없이 줄어든 비용으로 임 씨의 양심적인 면모를 보여 주며, 가난하지만 순박한 임 씨의 성품이 나타난다.

01 ② 02 ② 03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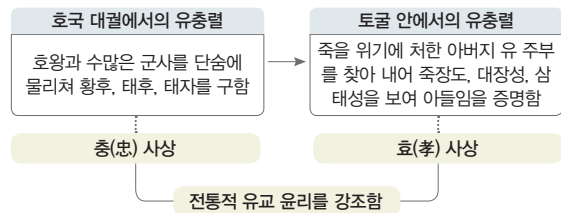
[유충렬전 _ 작자 미상]

해제 이 소설은 유충렬의 영웅적 일생을 담고 있는 영웅 군담 소설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충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천상계의 신선이었던 주인공이 죄를 짓고 지상으로 격강하여 간신의 모해와 반역으로 위기에 처하지만,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여 위기에 처한 가문과 국가를 구출한다는 내용이다. 신분이 하락한 주인공이 전란에서 공을 세워 신분이 상승하는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몰락한 양반들의 소망을 보여 주고, 충신과 간신이 대립하다가 충신이 마침내 승리한다는 설정을 통해 조선 시대의 충신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충렬이 뛰어난 능력으로 호국과 반역자들을 정벌하고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은 병자호란으로 당한 수모를 씻고자 하는 민족의식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주제 유충렬의 고난과 영웅적인 면모

- 특징** • 영웅 소설의 전형적 요소를 갖추고 있음
•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표현함

한눈에 보기



▲ 장면 IN 줄거리

발단	명나라 고관인 유심은 늦도록 자식이 없자 산천에 기도하여 신이한 태몽을 꾸고 충렬을 낳음
전개	유심의 정적인 간신 정한담은 누명을 씌워 유심을 귀양 보내고 충렬 모자마저 죽이려 하나 충렬은 간신히 위기를 넘기고 강희주의 사위가 됨
위기	강희주마저 정한담에 의해 귀양을 가게 되고 충렬은 아내와 헤어져 광덕산의 도술을 만나 도술을 배우게 됨
절정	정한담이 남적, 북적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충렬이 등장해 천자를 구해 냄
결말	충렬은 반란군을 진압하고 황후, 태후, 태자를 구출하며 유배지에서 고생하던 아버지와 장인을 구한 뒤 아내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림 수록 지문

01 서술상의 특징

이 글에서 주인공 유충렬은 호국에 도착해 선녀의 도움으로 태자와 황후가 처한 위기를 알고 동문 대로로 가서 그들을 구해 낸다. 이후에 아버지 유 주부가 갇힌 토굴에 찾아가 상봉하고 있다. 즉 주인공의 공간 이동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인격화하여 표현하는 우화적 수법이 사용되지 않았고, 인물을 희화화하는 장면도 나타나지 않는다.
- ③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는 드러나 있으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은 ‘호국’이 등장하는 것 외에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 ④ 환몽 구조란 ‘현실 - 꿈 - 현실’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인데, 이 글은 계속적으로 현실의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⑤ 이 글에는 유충렬이 태자 등을 구하는 사건과 아버지 유 주부를 만나는 사건이 나타나지만, 이는 모두 유충렬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이므로 두 인물의 이야기로 볼 수 없다. 또한, 유충렬이 호왕을 물리치는 대목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인물 간의 대결이 아닌 유충렬의 일방적인 승리가 제시되므로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02 소재의 의미와 기능

선녀가 준 과실을 먹은 충렬이 여행의 피로를 풀고 결국 태자를 구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과실은 충렬을 위한 것이지 태자를 살리려는 하늘의 뜻이 담긴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 충렬의 비범함은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영웅 소설 주인공으로서 태생부터 지니고 있었던 특성이다.

- 오답 풀이** ① 유충렬은 천사마를 타고 순식간에 나는 듯이 이동하여 장성검으로 호왕의 군사들을 무찌르고 황후와 태자를 구한다.
 ③ 실과는 선녀가 준 것으로, 기절했던 유 주부는 이것을 먹고 정신을 수습하며 맑은 기운을 얻게 된다.
 ④ 유 주부는 죽은 줄 알았던 충렬이 살아 나타나자 과거에 충렬과 헤어질 때 자신이 준 죽장도를 꺼내 보라고 하였다. 여기서 죽장도는 부자 관계를 증명하는 신표로서 기능한다.
 ⑤ 죽장도를 본 유 주부는 충렬의 가슴과 등에 있는 대장성과 삼태성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충렬이 자신의 아들임을 확인하며 기뻐한다.

03 작품의 종합적 감상

충렬이 정한답으로 인해 위기에 빠졌다가 결국 극복하고, 호국을 정벌하는 등의 활약을 펼쳐 국가에 큰 공을 세우는 것은 몰락했던 자신의 가문을 부흥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왕권의 약화라는 현실의 정치 상황이 유충렬전에 반영된 것에서 독자층이 정치 변혁에 관심이 많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이고, 충렬 역시 기존의 왕권에 충성하고 있는 인물이므로 새로운 왕권의 등장에 대한 바람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황후와 태자가 호국에 잡혀 있고, 누군가가 구출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왕권이 무능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충렬이 신이한 능력으로 호국 군사들을 물리치는 것은 주인공이 펼쳐는 영웅적 활약의 한 면모이다.
 ③ 충렬이 아버지 유 주부를 구하기 위해 찾아가고 다시 만나 자신이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 정신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충렬이 호왕을 물리치고 태자와 황후를 구해 내는 것은 국가와 왕에 대한 충성이라는 전통적 유교 윤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알아 두기 역사 군담 소설과 창작 군담 소설

역사 군담 소설의 등장은 임진왜란·병자호란 양란이 우리 민족에게 가한 수난과 충격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류의 소설은 외적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민족의 능력을 과시하여 훼손된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의식과, 외침을 방관한 무능한 집권층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임진록', '임경업전', '박씨전' 등이 해당한다. 창작 군담 소설은 작중 인물이나 사건이 허구인 작품으로, 대개 가상의 전쟁에서 주인공이 영웅적 활약으로 큰 공을 세우면서, 왕권을 수호하고 높은 벼슬을 받아 몰락한 가문을 부흥시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대성전', '장풍운전', '조웅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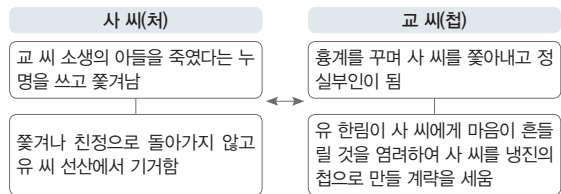
01 ④ 02 ④ 03 ① 04 ③

[사씨남정기 _ 김만중]

해제 첩의 계략으로 고생하던 본처가 고생 끝에 남편의 사랑을 되찾는다는 내용의 가정 소설로, 처첩 간의 갈등을 그려 당시 사회의 축첩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실부인 사씨를 고매한 인격을 지닌 인물로, 첩 교씨를 간악한 인물로 설정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는데, 사씨의 인격을 강조함으로써 인현 왕후 폐출의 부당성을 풍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작품은 사씨를 인현 왕후에, 유 한림을 숙종에, 교씨를 장희빈에 대응시켜 인현 왕후를 폐위하고 장희빈을 종전으로 책봉한 숙종의 잘못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것이다.

주제 처첩 간의 갈등과 권선징악

특징 선인과 악인의 대립적 구조를 통해 사건을 전개한 한눈에 보기



▲ 장면 IN 줄거리

발단	중국 명나라 금릉 순천부에 사는 유현은 아들을 얻는데, 아들 연수는 15세에 장원 급제하고 학림학사가 됨
전개	유 한림은 덕성과 학식을 겸비한 사 씨와 결혼하는데, 9년이 넘도록 후사가 없어 사 씨의 권유로 교 씨를 첩으로 맞아들임. 교 씨는 아들을 낳자 정실부인이 되기 위해 유 한림에게 사 씨를 참소함
위기	교 씨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그 죄를 사 씨에게 덮어씌움. 유 한림은 사 씨를 내쫓고 교 씨를 정실부인으로 맞아들임 수록 지문
절정	교 씨는 동청과 간통하면서 유 한림을 참소하여 유배시킴. 이후 조정은 유 한림에 대한 혐의를 풀고 동청을 처형함
결말	유 한림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사 씨를 찾아 사과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교 씨를 처형하고 사 씨를 다시 정실로 맞아들임

01 서술상의 특징

사 씨가 쫓겨나 초가삼간에 머무는 장면에서 '자신의 처량한 신세 생각에 나오는 건 눈물이요 한숨뿐이었다.'라 한 것, 교 씨가 사 씨의 소식을 들은 장면에서 '교 씨는 마음이 불안하여'라 한 것, 한림의 말을 교 씨가 듣는 장면에서 '교 씨는 그 일이 마음에 꺼림칙하나 도리가 없었다.'라 한 것 등에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하여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녹의홍상이나 옥패를 통해 허영심 많은 교 씨의 성격을 알 수는 있으나 작품의 주제를 암시하는 소재는 찾아볼 수 없다.
 ② 이 글에 나타난 공간은 유 씨 집안과 유 씨 선산인데, 이 공간들이 사 씨의 처지를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각각의 공간이 대립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글은 선인인 사 씨와 악인인 교 씨의 대립적 구조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③ '사 씨가 쫓겨남-교 씨가 정실 자리에 오름-사 씨가 시부모의 선산에 머무름-교 씨와 동청이 사 씨를 속일 계획을 꾸밈' 등의 사건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되고 있으므로 순행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너희들은 힘써 새 부인을 섬기며'에서 사 씨의 고매한 인격을, 교 씨가 계락을 꾸미는 것에서 교 씨의 간악함을 알 수 있듯이,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성격이 제시되고 있을 뿐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02 작품의 종합적 감상

사 씨는 인아를 두고 쫓겨나며 눈물을 흘리고, 유 씨 선산에 머물면서 돌아가신 시부모님과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 이는 억울하게 쫓겨난 상황에서 느끼는 슬픔 때문이지, 자신이 추구했던 유교적 가치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는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교 씨와 사 씨의 갈등은 처첩 간의 갈등으로 축첩 제도가 존재했던 가부장적 사회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② <보가>를 통해 교 씨가 사 씨를 참소한 것은 사실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사 씨는 억울하게 쫓겨나지만 친정으로 가지 않고 유 씨 선산에 머무른다. 이는 사 씨가 여자는 시집을 가면 죽을 때까지 그 집안 사람이라는 당대 사회의 지배적인 유교적 이념을 충실히 지향하고 실천하는 인물임을 보여 준다.
 ⑤ 교 씨는 사 씨가 유 씨 선산에 거주한다는 것을 알고 불안해한다. 이는 자신이 정실부인의 자리를 차지한 후에도 스스로의 위치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03 사건의 전개 양상

[A]에서 동청은 사 씨를 냉진의 첩으로 만들기 위해, 두 부인의 필적을 위조함으로써 사 씨를 속여 곤경에 빠지게 하자고 말한다. 동청의 이러한 음모는 앞으로의 사건을 예상하게 하여 긴장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교 씨와 사 씨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 씨와 사 씨의 갈등이 더 고조될 것임을 알게 해 준다.
 ③ 사 씨를 냉진의 첩으로 만들려는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알게 해 주나, 과거 사건과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④ 동청의 말은 사 씨를 냉진의 첩으로 삼으려는 계획일 뿐, 반동 인물인 교 씨, 동청, 냉진의 관계 변화는 알 수 없다.
 ⑤ 전형적인 악인인 동청의 간악함을 드러낼 뿐, 복잡한 심리를 제시하지 않는다.

04 속담 및 한자 성어

①은 사 씨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하인들이 교 씨에게 허락을 받아, 쫓겨나는 사 씨를 배웅하는 장면이다. '은혜를 입은 고마움이 뼈에 깊이 새겨져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각골난망(刻骨難忘)'으로 종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교 씨는 정실부인의 역할을 맡게 되어 종들이 사 씨에게 인사하는 것을 허락해 주고 있을 뿐 실력이 없으면서 허세로만 떠벌리는 허장성세(虛張聲勢)를 부린다고 보기 어렵다.
 ② 교 씨가 종들의 인사를 허락하는 것은 자신이 정실부인의 위치가 되었기 때문으로, 유 한림의 위세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을 뜻하는 호가호위(狐假虎威)와 관련이 없다.
 ④ 종들은 정실부인이 된 교 씨에게 예의를 갖추어 말하고 있을 뿐,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를 뜻하는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교 씨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고 볼 수 없다.
 ⑤ 결자해지(結者解之)란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인데, 사 씨는 모함을 받아서 쫓겨나는 것이므로 관계가 없다.

회곡

본문 082~084쪽

01 ⑤ 02 ⑤ 03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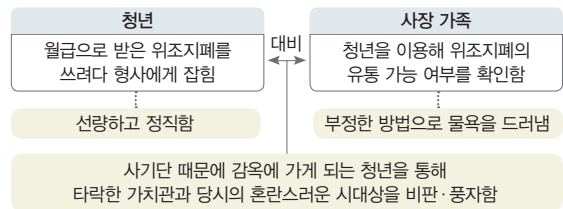
[정직한 사기한 _오영진]

해제 이 회곡은 일가족으로 구성된 위조지폐 사기단의 사기 행각과 이들에 의해 희생당하는 순박한 청년의 모습을 통해 광복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상과 타락한 가치관을 희극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위조지폐 사기단은 정직한 청년을 속여 위조지폐를 시험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이로 인해 청년은 결국 사기꾼으로 몰려 감옥에 가게 된다. 작가는 선량하고 정직한 인물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모순된 현실을 통해 당대의 부정적인 사회 상황과 타락한 인간상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주제 광복 직후의 타락한 사회상과 부정한 인물에 대한 비판

특징 모순된 상황 설정을 통해 사회 현실을 비판함

한눈에 보기



▲ 장면 IN 줄거리

발단	일가족으로 구성된 사기단이 가난을 면하기 위해 위조지폐를 만들
전개	이들 사기단은 '간편 무역사'라는 유령 회사를 차리고, '정직하고 순진하되 미련한 사람'을 구하는 사원 모집 광고를 냄
절정	과거 애인으로 인해 누명을 써 전과자가 되는 바람에, 취직이 어려웠던 선량한 청년이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오자 사장은 그의 과거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사원으로 채용함. 그리고 한 달 월급을 가불해 주고 양복을 새로 맞춰 오라고 지시함
하강	양복을 맞추러 갔던 청년을 월급으로 받은 위조지폐를 사용하다가 사복형사에게 붙잡히고, 사장 가족은 청년을 사원으로 채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함
대단원	청년은 결국 경찰서로 연행되고 순박한 청년을 비난하던 사장 가족은 관리인의 노크 소리를 듣고 경찰이 찾아온 것으로 착각하여 몰래 도망침. 사원 정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청년을 떠올림 수록 지문

01 형상화 방식

관리인은 사무실에 흠어져 있는 지폐를 보고는 이를 챙기는 속물적이고 부도덕한 인물이므로 이와 같은 인물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연기하는 것은 적절한 지시이다. 그러나 관리인은 회사에 노크를 하였고, 관리비를 받으러 온 것이지 사장실에 몰래 들어온 것은 아니므로 관리인 역할을 맡은 배우가 긴장한 모습을 연기할 필요는 없다.

- 오답 풀이** ① 무대 장치로 사장실과 복도라는 공간이 제작되어야 하며 사장실 안에는 인물들이 도망갈 수 있는 비상 출입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 사복과 청년의 퇴장, 사장과 사원들의 퇴장, 관리인의 등장 등 인물의 움직임이 많으므로 인물의 동선과 방향을 미리 점검해야 하며, 사원 정이 사장실과 복도로 이동하는 움직임도 점검해야 한다.
 ③ 사장과 사원들이 달아나는 장면에서 그들이 당황하여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함으로써 풍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와

어울리는 배경 음악이 제시된다면 의도를 부각할 수 있다.

④ 정직한 사람이 도리어 피해를 보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원 정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조명을 이용하여 비출 수 있다.

02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직한 사기한’이라는 제목은 정직한 청년이 ‘사기한(사기꾼)’으로 몰리는 상황을 통해 정직한 인물이 피해를 입는 모순된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사장과 그의 가족 같은 부도덕한 인물을 풍자하는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청년은 정직하고 선량한 인물이며 사장과 사원들은 위조지폐를 만들며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부정적인 인물이다. 그러므로 범죄를 저지른 사장과 사원들이 아니라 선량한 청년이 사기한으로 몰려 잡혀가고 있는 것에서 선과 악이 전도된 양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② 사장과 사원들이 위조지폐를 만드는 행동은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한 양심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③ 관리인은 사장 일당이 위조지폐를 책상 위에 남기고 도망을 가자, 그 돈이 진짜인 줄 알고 미친 듯이 주워 넣고 황급히 나가려 한다. 이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돈에 눈이 멀어 도둑질을 하는 것이므로 당대의 물질주의의 풍조가 반영된, 부도덕한 면모를 보이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아무 죄 없는 선량한 청년이 잡혀가는 상황을 통해 부정직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03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에서 사장은 사복형사가 청년을 끌고 오자 청년을 전혀 모르는 인물인 척하고 있다. 이는 청년이 위조지폐 때문에 잡혀 왔음을 예감하고, 청년이 쓴 위조지폐는 자신과 관련이 없음을 형사에게 보여 주기 위한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에 청년에 대한 의심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에서 청년이 아씨를 애타게 찾는 것은 아씨가 온다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청년이 형사에게 끌려가게 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인물을 찾고 있는 것이다.

③ ㉢에서 청년은 사장의 거짓말로 인해 사복형사에게 끌려가면서도 왜 자신에게 취직자리를 줬냐고 물어보고, 다음 대사에서 취직만 안 했더라면 감옥에 안 갔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사장이 청년을 취직시킨 이유는 위조지폐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청년은 마지막까지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④ 사원 갑과 을, 병이 각각 도안, 종이, 잉크가 잘못되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을 때, ㉤에서 사장은 청년을 ‘미련한 녀석’이라고 이야기하며 그에게 실패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⑤ ㉥에서 사원 정은 정직하고 선량한 청년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알아 두기 '오영진'의 작품 세계

‘맹진사 댁 경사’,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정직한 사기한’ 등을 쓴 오영진 작가는 한국의 전통 정서와 언어 미학을 해학적으로 엮는데 탁월한 솜씨를 지녔으며, 희극 정신을 살리면서도 역사와 정치, 인간관계를 냉소적인 시선으로 고발하였다. 그는 민족적 소재를 차용하여 한국인의 해학과 풍자를 잘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물질주의적 욕망에 파묻힌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꾸짖는 작품을 창작하였다.

시나리오

본문 085~087쪽

01 ② 02 ④ 03 ②

[공동 경비 구역 JSA _ 박찬욱 각본]

해제 이 작품은 박상연의 원작 소설 ‘DMZ’를 각색한 시나리오로, 공동 경비 구역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의 진상을 추리극의 형식으로 밝혀 나가며 이념을 넘어선 남북한 병사들의 우정과 분단의 아픈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분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 경비 구역은 남한과 북한이 긴장을 유지한 채 대립을 유지하는 공간이지만 서로 함께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남북 병사들이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인간적으로 교류하는 모습을 통해 분단의 현실이라는 이념적 갈등이 휴머니즘에 의해 극복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 이념을 초월한 남북한 병사들의 우정과 분단의 아픔

특징 분단 문제를 휴머니즘적인 방법으로 접근함

한눈에 보기



▲ 장면 IN 줄거리

발단	공동 경비 구역 부근 북한 초소에서 북한군이 남한군의 총격으로 죽는 사고가 발생함. 이에 중립국 감시 위원회를 통해 한 국제 스위스인인 소피가 파견되어 진상 조사를 하게 됨
전개	- 소피는 당시 사건 장소에 있었던 수혁과 경필의 진술에 등장하지 않던 성식이 사고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게 되고, 성식은 심문을 받던 중 창문으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함 [과거] 수혁은 공동 경비 구역을 순찰하던 중 지뢰를 밟게 됨. 이를 경필과 우진이 제거해 준 것을 계기로 수혁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경필과 우진을 만나 우정을 키움. 수혁은 자신의 제대 후를 불안해하는 성식에게도 경필과 우진을 소개하고, 이후 이들은 함께 우정을 쌓아 감 수록 지문
절정	수혁과 경필의 대립 신문 과정에서 경필이 수혁에게 덤벼들어 계획이 흐지부지됨. 소피는 아버지가 인민군 출신이라는 남측의 항의로 수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통보를 받음
하강	소피는 떠나기 전에 경필의 안전 등을 조건으로 수혁에게 진실을 말해 달라고 하여 사건의 경위를 들음
대단원	소피는 후송되는 수혁을 만나 우진의 부검 결과를 알려 줌. 수혁은 우진을 죽인 사람이 성식이 아닌 자신이었음을 알고 죄책감을 느껴 옆에 있던 병사의 총으로 생을 마감함

01 인물의 심리 및 태도

S# 55.에서 북한 측 병사인 우진은 경필의 실전 경험이 풍부함을 자랑스럽게 언급하면서 경필에게 총을 겨누는 수혁의 행동이 경솔했음을 넌지시 지적하고 있다. 수혁은 자신에게 총을 마주 겨누는 경필의 행동에 당황하고 있으나, 경필이 총을 내리고 긴장감이 누그러지자 휴전선 보초를 서고 있는 경필의 처지를 놀린다. 이로 보아 수혁은 이미 친분을 쌓은 경필, 우진에게 경계심을 가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수혁은 경필에게 보내는 쪽지에서 자신이 대학에 두 번 떨어졌던 사실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신의 단점까지도 말하는 수혁의 솔직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③ 성식은 군사 분계선을 넘을 때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필을 만났을 때도 식은땀을 흘리고 머뭇거리면서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고 있다.

- ④ 수혁과 경필은 서로 쪽지를 주고받으며 자신에 대해 진솔하게 터놓으면서 인간적인 교감을 하고 있다.
- ⑤ 수혁이 갑자기 총을 빼 들어 긴장된 상황이 발생하고 종료될 때까지 경필은 침착하게 행동하고 있다.

02 작품의 종합적 감상

수혁의 허세에 대한 반응으로 경필이 남한 군대가 전투력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친숙한 관계에서 장난스러운 말을 한 것이지,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적대적 의식을 드러낸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에 나타난 군사 분계선은 전쟁 중인 남북의 협정에 따라 설정한 군사 활동의 한계선으로, 분단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 ② 북측 초소에서 보여지는 '혁명의 총 폭탄이 되자!',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타도하라!' 등의 구호는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남북한의 대립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 ③ 남한의 병사인 수혁, 성식, 북한의 병사인 경필, 우진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 만나 우정을 나눈다. 이러한 개개인의 만남과 우정은 이념적 갈등을 극복한 화해의 가능성을 엿보게 하고 있다.
- ⑤ 남북한 병사들이 총을 마주 겨는 장면은 그들이 인간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남과 북의 병사라는 신분으로 인해 남북한의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언제든지 긴장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03 형상화 방식

㉠은 수혁이 자신을 놀리는 경필의 말에 발끈하여 총을 빨리 뽑을 줄 안다는 것을 직접 보여 주는 장면이다. 이 행동은 순간적인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지만, 이에 여유롭게 대응하는 경필과 바로 웃으며 총을 내리는 수혁의 모습으로 보아 빠르고 경쾌한 분위기의 배경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부분에서는 정적을 유지하거나 적절한 효과음을 사용하는 편이 낫다.

- 오답 풀이** ① 수혁과 경필은 각각 남한과 북한의 병사로 군사 분계선을 지키고 있는 처지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남모르는 유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경필이 농담을 건네는 태도로 미루어 보아, 서로 잠깐 동안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은 적절하다.
- ③ 두 인물의 얼굴을 한 화면에 담아 긴장감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장면을 표현할 수 있다.
- ④ 카메라가 두 사람의 발만을 촬영하면서 발소리만을 들리게 한다면 긴장감을 표현할 수 있다.
- ⑤ 남한 병사인 수혁이 성식을 데려와서 북한 병사인 경필과 우진에게 소개해주는 장면에서 성식과 경필 두 인물의 심리가 표정을 통해 드러나도록 클로즈업하는 것이 적절하다.

수필

본문 088~089쪽

01 ⑤ 02 ④

[별들을 잃어버린 사나이 _ 김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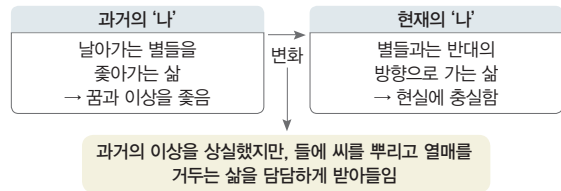
해제 이 수필은 농촌의 과수원 일을 체험한 글쓴이가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돌아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젊은 시

절의 글쓴이는 더 높은 데로 날아가는 '별들'을 쫓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현재의 글쓴이는 이러한 '별들'을 잃어버리고 그것들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즉 일상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으며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은 현실의 삶에 충실하려는 의지를 단단하게 밝히고 있다.

주제 현실의 삶에 충실하려는 의지

- 특징** • 풍경에 대한 감각적 묘사가 나타남
• 삶에 대한 담담하고 관조적인 태도가 드러남

한눈에 보기



01 글쓴이의 관점 및 태도

이 글에서 과거의 '나'는 더 높은 데로 날아가는 별들을 쫓는 삶을 살았지만, 현재에서 '나'는 별들을 잃어버리고 그것들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나'의 삶의 모습이 변화하게 된 계기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나'가 현실의 냉혹함 때문에 현재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하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일찍이 청춘이라고 하는 특권이 나에게 아름다운 저 별들을 쫓아가는 환상의 날개를 주었다.'에서 ㉠은 별들을 쫓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다.
- ② '더 높은 데로 더 높은 데로 날아만 가는 별들 — 나는 그것들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슴에 밤을 안고 굴러가는 수레에 몸을 맡긴다.'에서 ㉠은 별들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은 '긴 불행과 고난 뒤에 돌아오는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느낀다고 표현하며, 현실에 충실한 삶 속에서 얻는 작은 보람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별들을 쫓아갔지만, ㉠은 그것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면서 대지 위에 발판을 찾고 있다. 따라서 '별'들은 젊은 시절에 추구하던 꿈과 이상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02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 글에서 당시의 근대적 물질문화를 보여 주는 소재인 '정거장', '역부', '아크등', '화물차', '플랫폼', '국경형 최후 열차' 등이 등장하지만, 이를 통해 근대화로 인해 삭막하게 변해 가는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이 글에서는 문명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현실에 충실하면서 느끼는 보람,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에는 농촌의 소박한 풍경도 나타나지만, 정거장이나 아크 등, 플랫폼 등의 소재에서 근대화 시기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 ② 이 글에서 '바람'은 얼굴 위를 씻고 달아나고, '침묵한 산들'은 별들의 숨은 노래를 도적질해 듣고 있고, '별들의 노래'는 천사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자연물이 의인화된 표현을 통해 작품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과수원에서 일하는 사나이들과 아낙네들의 모습을 통해 일상적이고 소박한 농촌의 삶을 엿볼 수 있다.
- ⑤ 의성어를 사용한 표현이나 '어둠의 저쪽에 잠기는 긴 기적 소리'라는 청각을 시각화한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독서

개념 찬 실천

인문

역사

본문 098~099쪽

개념으로 지문 읽기 | ① 기념비 ② 역사

01 ① 02 ④ 03 ①

[니체의 역사 _ 이상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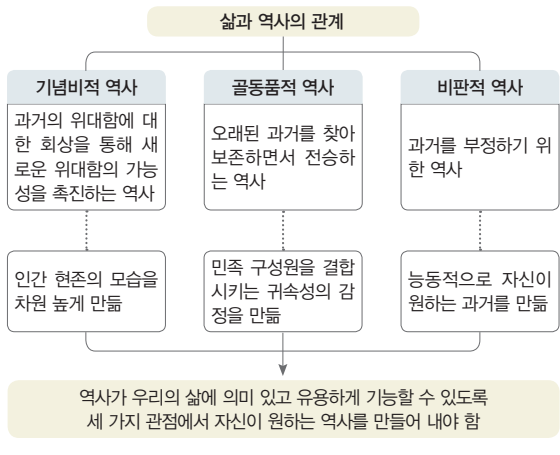
해제 이 글은 삶과 역사의 관계를 기념비적 역사, 골동품적 역사, 비판적 역사로 나눈 니체의 역사관을 드러낸 글이다. 기념비적 역사는 과거의 위대함에 대한 회상을 통해 새로운 위대함의 가능성을 촉진하는 역사이며, 골동품적 역사는 오래된 과거를 찾아 보존하면서 전승하는 역사이다. 또한 비판적 역사는 과거를 숭상하거나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를 부정하기 위한 역사이다. 이 글은 위상이 동일한 세 가지 관점을 나열하고, 각 관점의 특징과 장단점을 제시하는 동일한 구성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가 세 가지 관점의 특성과 장단점을 파악하여 균형감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의미 있고 유용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세 가지 관점을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역사를 만들어 내야 함을 당부하고 있다.

주제 역사의 올바른 의미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기념비적, 골동품적, 비판적 관점에서 역사를 만들어 내야 한다.

특징 • 삶이 역사와 관계를 맺는 것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함
• 각 항목의 내용을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하여 병렬식으로 나열함

구성 1문단: 삶과 역사의 관계에 관한 세 가지 유형
2문단: 기념비적 역사의 특징과 장단점
3문단: 골동품적 역사의 특징과 장단점
4문단: 비판적 역사의 특징과 장단점
5문단: 역사의 올바른 기능을 위해 갖추어야 할 태도

한눈에 보기



01 전개 방식의 특징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삶과 역사의 관계'이다. 이 글은 삶이 역사와 관계를 맺는 유형을 기념비적 역사, 골동품적 역사, 비판적 역사로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글은 중심 화제인 '삶과 역사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설명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된 논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3문단에서 기념비적 역사와 골동품적 역사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중심 화제에 대한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반대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도 않다.

⑤ 중심 화제의 개념을 정의하였다기보다는 중심 화제에 따른 유형의 특징을 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02 정보 간의 관계 파악

3문단의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 실증적 사실의 확인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① 3문단에서 ㉠과 ㉡의 차이점을 설명한 부분을 보면, ㉠이 비범한 대상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이 '민족 구성원 모두를 결합시키는 귀속성의 감정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이 '과거의 위대함에 대한 회상을 통해 새로운 위대함의 가능성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4문단에서 ㉡이 '보존되고 전승된 과거와 투쟁을 벌여 새로운 관습과 본능을 창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 ㉡은 모두 과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형성하고자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을 통해 ㉢은 과거를 숭상하거나 보존하지 않고 '과거를 부정'함을 알 수 있는데, 2문단과 3문단을 통해 과거를 숭상하는 것은 ㉠, 과거를 보존하는 것은 ㉡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과 ㉡은 과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은 과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3 구체적 사례에 적용

<보기>의 (가)는 비판적 역사, (나)는 기념비적 역사, (다)는 골동품적 역사의 사례이다. 이 글의 4문단에 따르면, 비판적 역사에서 정치적 특권, 지배적 관습 등과 같은 과거의 관철 기준은 절대적이고 선협적인 정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구에 따른 삶 자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서 절대적 정의에 근거해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판단한 것이라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비판적 역사는 과거를 부정하고 새로운 관습과 본능을 창안하고자 하므로, (가)에서 남녀평등에 근거한 새로운 가족 제도는 과거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에 대한 부정을 통해 새롭게 창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기념비적 역사는 과거의 위대함에 대한 회상을 통해 인간 현존의 모습을 보다 차원 높게 만든다. (나)에서는 이순신의 위대하고 영웅적인 면모를 기리고 보존함으로써 인간 현존의 모습을 보다 차원 높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골동품적 역사는 실증적 사실의 확인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다)에서 단군을 시조로 만들 때 단군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⑤ 골동품적 역사는 민족의 역사적 고유성 속에서 민족 구성원 모두를 결합시키는 귀속성의 감정을 만든다. (다)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단군의 자손임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한 민족으로서의 귀속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

개념으로 지문 읽기 | ① 행위 ② 미성년자

01 ⑤ 02 ③ 03 ⑤ 04 ①

[저도 계약할 수 있나요]

해제 이 글은 우리 민법에서 미성년자가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미성년자는 의사 능력은 있으나 행위 능력이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계약할 경우에도 일단 계약은 유효하지만, 본인이나 그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법은 미성년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거래 상대방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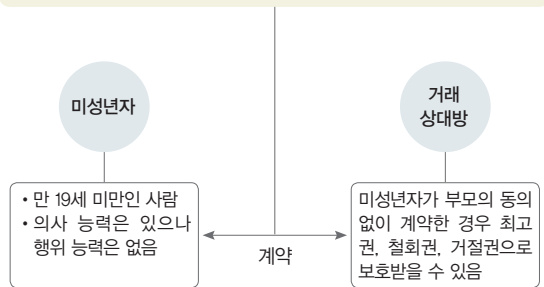
주제 미성년자가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법

특징 • 법률 용어의 개념을 풀이하고 예를 들어 설명함
• 문답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전개함

구성 1문단: 계약을 맺기 위해 갖춰야 하는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2문단: 미성년자가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요건
3문단: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계약했을 경우 취소 방법
4문단: 우리 법이 미성년자 혼자서 계약을 할 수 없게 한 이유
5문단: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한눈에 보기

-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계약도 일단 유효함
-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계약의 경우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



01 세부 정보 추론

3문단에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한 경우 본인 혹은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미성년자 단독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일단 유효하다고 했으므로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으면 그 계약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만 18세까지는 미성년자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되면 스스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②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맺었을 때는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 반면 미성년자가 이를 악용할 수도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③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할 경우 상대방이 그런 의사 표현을 들은 적 없다고 발뺌해도 내용 증명 우편 제도를 이용하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④ 우리 법이 미성년자가 마음대로 계약하지 못하게 한 까닭은 미성년자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02 글쓴이의 의도 및 관점

미성년자의 각종 계약 사례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 글의 글쓴이는 이와 관련된 법률적 지식에 대한 설명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상식을 높이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최고권', '철회권과 거절권'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는 있으나 이는 미성년자의 계약과 관련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자체의 대중화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미성년자의 계약 행위를 잘못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률적 정보를 통해 독자를 일깨워 주려는 의도는 찾아볼 수 없다.

④ 이 글은 법률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실생활과 법률적 해석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⑤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도는 미성년자의 계약과 관련한 것에 한정되어 있지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03 구체적 사례에 적용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가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 특별한 계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구매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만 19세가 되지 않으면 미성년이므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초등학교생이 아동복 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으려는 것이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고용 계약을 맺으려는 것이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④ 단지 기계만을 사는 것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동 전화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04 어휘의 이해

'갖추다'는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장만하다'는 '필요한 것을 사거나 만들거나 하여 갖추다.'라는 의미이므로, 능력을 장만한다는 표현은 어색하다.

오답 풀이 ② '규정하다'는 '양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체결하다'는 '계약이나 조약 따위를 공식적으로 맺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취소하다'는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 버리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무르다'에는 '이미 행한 일을 그 전의 상태로 돌리다.'라는 뜻이 있다.

⑤ '요구하다'에는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청하다.'라는 뜻이 있다.

개념으로 지문 읽기 | ① 발광기 ② 아인슈타인

01 ③ 02 ① 03 ⑤

[$E=mc^2$ _ 김민희 역]

해제 이 글은 아인슈타인이 정리한 $E=mc^2$ 공식을 통해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E=mc^2$ 공식은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발표한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에너지와 질량이 사실상 동등하며 상호 교환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상대성의 원리’와 ‘광속 일정의 원리’라는 두 가지 공리에 기반을 두고 가상의 사고 실험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상대성의 원리란 모든 물리 법칙이 서로에 대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모든 기준틀에서 동일한 수학적 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광속 일정의 원리란 빛의 속력은 관찰자의 속도나 광원의 속도와 관계없이 모든 관성 틀에서 동일한 값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 글은 에너지와 질량이 전환 가능한 물리량으로 볼 수 있다는 아인슈타인의 공식을 설명하고 있으며, 나아가 아인슈타인의 공식이 가진 의미를 밝히고 있다.

주제 에너지와 질량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생각

특징 • 물리 공식을 가상의 사고 실험을 통해 설명함
• 실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자료를 활용함

구성 1문단: $E=mc^2$ 이라는 공식의 정립
2문단: 가상의 사고 실험에서 A와 B에게 발광기의 운동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
3문단: 가상의 사고 실험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생각
4문단: 아인슈타인의 공식의 의미

한눈에 보기

빛의 발사라는 에너지의 방출
= 발광기 질량의 손실

에너지와 질량이 광속(c)을 환산
인자로 하여 서로 환산될 수 있는
물리량이 됨

매우 작은 질량의 물질도 엄청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음

01 핵심 내용 파악

이 글은 에너지와 질량이 전환 가능한 물리량이라는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가상의 사고 실험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와 질량을 환산하는 공식에서 광속이 환산인자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광속 일정의 원리’에 기반을 두어 광속은 일정한 값으로 제시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4문단에는 진공 중에서 광속(c)이 대략 초속 30만km라고 제시되어 있다.

② 아인슈타인의 공식에서 광속의 역할은 3문단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광속을 환산인자로 하여 에너지와 질량이 서로 환산될 수 있는 물리량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④ 4문단에서 아인슈타인의 공식을 통해 매우 작은 질량의 물질도 엄청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1문단을 통해 아인슈타인 이전 과학자들은 에너지와 질량을 별개의 독립적인 물리량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02 수용 및 해석의 적절성 평가

<보기>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과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 전환 전후의 에너지 총합이 일정하게 보존된다고 하였지만, 아인슈타인의 생각에 따르면 에너지와 질량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너지의 전환 역시 질량을 고려할 수 있지만, 에너지의 전환이 곧 에너지의 총합이 증가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② 아인슈타인의 공식에 따르면 에너지와 질량은 전환이 가능하므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엄밀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질량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아인슈타인의 공식에 따르면 질량의 증가는 에너지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생성물의 질량이 크다면 생성물에 잠재된 에너지 또한 증가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에너지와 질량은 전환이 가능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에너지의 유입이나 유출은 질량의 변화를 수반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⑤ 아인슈타인의 공식에서 환산인자인 광속의 제곱값은 천문학적인 수임을 알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되더라도 일상적인 수준에서는 감지하기 어려울 만큼 적은 양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알아 두기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

운동 에너지, 열에너지, 빛 에너지 등 많은 형태의 에너지들은 갑자기 생기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날 뿐이다. 이렇게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 전환 전후의 에너지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 물질의 총 질량과 반응 후 생성된 물질의 총 질량은 같다는 법칙을 말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고, 원자의 배열만 달라지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에너지와 질량은 독립적인 물리량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후에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전환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03 세부 정보 확인

사고 실험에 대한 판단에서 빛을 방출하는 것에 따른 감속과 질량을 잃는 것에 따른 가속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고 되어 있으므로, B에게도 발광기는 상자에 대해 정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발광기에서 발사된 두 빛은 발광기의 운동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상의 사고 실험에서 A의 입장에서나, B의 입장에서나 모두 빛의 방출로 인한 반응은 고려되고 있다.

② 사고 실험에서 A의 입장에서는 빛이 정반대의 방향(a1, a2)으로, B의 입장에서는 비스듬히 좌우로 퍼지는 방향(b1, b2)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⑥에서는 빛의 발사라는 에너지의 방출이 질량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④ ⑥에서는 B에게도 발광기가 상자와 같은 속도로, 즉 상자에 대해 정지 상태로 이동한다고 보고 있다.

인문 1 서양 철학

본문 104~105쪽

01 ③ 02 ④ 03 ③

[베르그송의 웃음, 희극성 _ 이창익]

해제 생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이 저서 '웃음: 희극성의 의미 작용에 관한 시론'에서 밝힌 웃음의 원리와 사회적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베르그송은 희극성의 원천을 '생명적인 것에 덧붙여진 기계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웃음은 이런 기계적 경직성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되며, 경직성을 유연성으로 교정하고 개인을 다른 사람들과 조화할 수 있도록 재적응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글쓴이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희극성의 원인을 설명하고, 희극성의 세 가지 확산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서술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주제 웃음의 원리와 사회적 기능

특징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념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를 도움

구성 1문단: 웃음의 원리와 기능에 대한 궁금증

2문단: 웃음의 원인-생명적인 것에 덧붙여진 기계적인 것

3문단: 웃음의 원인과 대상인 인간의 '경직성'과 '자동성'

4문단: 희극성이 확산되는 세 가지 방향성

5문단: 웃음의 의의 및 사회적 기능

한눈에 보기

희극성의 원천	생명적인 것에 덧붙여진 기계적인 것 → 기계적 '경직성'과 '자동성'
희극성의 확산	• 자연 속에 끼워 넣어진 기계주의 또는 사회의 자동적 규칙 • 주의력이 내용에서 형식으로, 정신적인 것에서 신체적인 것으로 전환되는 경우 • 어떤 사람이 사물로 느껴지는 경우

웃음은 경직성을 유연성으로 교정하고, 각 개인을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재적응시킴

01 세부 정보 추론

3문단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집중하고 주의해야 하는 상황에 쉽게 대처하기 위해 이미 알고 있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려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순간에 기계적인 경직성과 자동성이 드러나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4문단에서 희극성이 확산되는 세 가지 방향 중 사람이 사물과 같이 느껴질 때에도 희극성이 확산된다고 하였다.

② 2문단에서는 베르그송의 말을 인용하여 '생명적인 것에 덧붙여진 기계적인 것'이 희극성의 원천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웃음은 생명이 있는 것의 테두리 안에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④ 5문단에서 사회는 개개인의 구성원들이 유연성을 지니고 있을 때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면서 발전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개개인이 기계적인 경직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사회 역시 경직되고 구성원들 간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주변 상황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정신과 신체를 새로운 상황에 적응시키는 과정을 알 수 있다.

02 핵심 내용 파악

5문단에서 웃음은 기계화되고 유연성을 잃은 인간에 대한 벌이면서, 이를 통해 경직성을 유연성으로 교정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으므로 웃음의 기능은 딱딱하게 굳어진 인간의 경직성을 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웃음은 경직을 일으킨 요인들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직이 일어난 후 경직을 웃음으로 교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② 웃음은 사회 구성원들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지, 사회 구성원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③ 웃음은 부정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계화된 개인이 자신의 경직성을 깨닫고 그 말과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⑤ 사회는 기계와 같아진 인간을 교정하기 위해 웃음을 활용한다고 하였으나, 사회가 이런 인간들을 직접적으로 제재하지는 않는다.

03 구체적 사례에 적용

①은 자연을 기계처럼 반복 가능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희극성이다. 이와 관련이 있는 사례는 이미 끝난 자연 현상인 월식을 다시 한 번 시작해 달라고 요청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나)이다. ①은 논리와 규칙에 갇혀 그 밖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기계주의에서 발생하는 희극성이다. 이와 관련이 있는 사례는 추론이 경험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당하자 경험이 틀렸다는 말을 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다)이다. 직업적인 자동주의에 매몰되어 주변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형식에 매달리는 경우는 ⑤에 해당하는데, 이와 관련이 있는 사례는 간신히 살아난 사람들에게 세관원이 세관 업무를 물어 웃음을 유발하는 (가)이다.

인문 2 철학(인식론)

본문 106~107쪽

01 ③ 02 ④ 03 ④

[같은 대상을 관찰한 두 사람이 과연 같은 대상을 관찰한 것인가 _ 최충덕]

해제 이 글은 우리가 대상을 안다고 할 때, 무엇을 아는지(존재론) 혹은 어떻게 아는지(인식론) 물을 때 후자의 범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같은 대상을 관찰한 두 사람이 있을 경우, 그 두 사람의 사유 배경과 관습에 따라 두 사람이 관찰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관찰이 맥락 의존적이라고 볼 때 같은 대상에 대한 관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을 객관적 사실로만 간주할 경우에는 관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식 주체의 주관적 지각 때문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다.

주제 관찰(경험적 지각)의 이론 의존성

특징 여러 철학자들의 견해를 통시적으로 나열함

구성 1문단: '관찰의 이론 의존성'의 의미

2문단: 관찰의 이론 의존성에 대한 여러 철학자들의 논쟁

3문단: 헨슨의 주장 및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인식론에 기여한 점

4문단: 처음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대답

한눈에 보기

'같은 대상을 관찰한 두 사람이 과연 같은 대상을 관찰한 것인가?'

관찰의 이론 의존성

관찰 행위는 기존의 이론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 이론에 의해 관찰 결과가 구성됨

결론

- 경험적 지각에 의한 관찰은 맥락 의존적 → 두 사람의 관찰 결과는 다름
- 대상은 엄연한 객관적 사실임 → 관찰 결과가 달라도 이는 주관적 지각 차이 때문임

01 전개 방식의 특징

ㄱ. 관찰과 사실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논쟁의 과정을 18~19세기 철학자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고 있다.
ㄴ. '같은 대상을 관찰한 두 사람이 과연 같은 대상을 관찰한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글을 시작함으로써 화제를 제시하고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ㄴ. 관찰과 사실의 관계에 대한 여러 철학자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ㄷ. 관찰의 이론 의존성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상반된 관점은 나타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변증법적으로 절충하였다고 된다고 볼 수 없다.

02 세부 정보 확인

2문단에서 파이어아벤트는 객관적 사실이나 대상의 인식은 그 대상, 그 사실만을 고립적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그 대상과 사실이 속해 있는 상황적 맥락에 의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에서 관찰과 사실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논쟁은 칸트의 오성 인식 논쟁이 시초가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논쟁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② 모든 관찰과 실험의 결과들이 기존 이론의 도움을 받아서만 해석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은 뒤옴이다.

③ 3문단에서 헨스는 관찰의 이론 의존성 문제를 통해서 개념의 혁명 혹은 인식 구조의 변화까지를 논의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실증주의 논제의 편파적 이해를 수정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하였다.

⑤ 뒤옴은 모든 관찰과 실험의 결과들이 기존 이론의 도움을 받아서만 해석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대상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인식 주체가 가진 관점의 변화로 인식 구조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본 것은 헨스이다.

03 수용 및 해석의 적절성 평가

관찰의 이론 의존성은 기존의 이론이 관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기존의 이론에 의해 관찰 결과가 구성되는 것이므로, 대상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지각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관찰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존의 이론이나 문화적 배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일지라도 계단의 뒷면이 보이는 구조물 혹은 아랫면이 보이는 구조물로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② 1문단에서 개인의 관찰 행위는 기존의 이론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 이론에 의해 관찰 결과가 구성된다고 하였다.

③ 1문단에서 지각에 의한 인식 결과는 기존의 이론에 의해 비롯된 탐구 성향에 의존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개인의 탐구 성향의 차이로 인해 계단 구조물에 대한 인식의 결과가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1문단에서 개인이 속한 집단의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풍토는 관찰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시인은 계단을 접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계단 구조물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사회 1 경제

본문 108~109쪽

01 ⑤ 02 ① 03 ②

[성장과 분배 _ 김기원]

해제 이 글은 성장과 분배 중 어느 쪽을 중시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글쓴이는 먼저 성장을 우선시하는 입장과 분배를 우선시하는 입장인 기존의 주장을 소개하고, 역사적 사례로 볼 때 성장과 분배는 반드시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서로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도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므로 성장과 분배가 서로를 촉진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구축

특징 • 상반된 기존의 두 입장을 차례로 소개함
• 사례를 들어 기존 입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구성 1문단: 성장과 분배의 우위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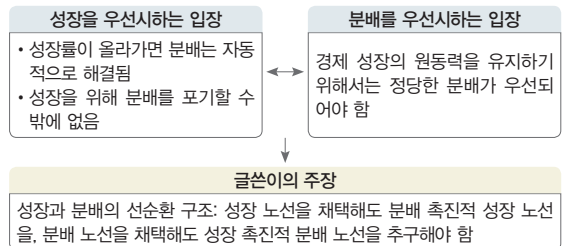
2문단: 성장을 우선시하는 입장

3문단: 분배를 우선시하는 입장

4문단: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대한 여러 역사적 사례

5문단: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구축의 필요성

한눈에 보기



01 전개 방식의 특징

첫 번째 문단에서는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문제를 언급하며 논의를 시작하고, 2문단에서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3문단에서는 분배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4문단에서는 이러한 기존 관점에 대해 성장과 분배가 반드시 상충되는 것도 아니며, 성장이 자동적으로 분배를 보장하지도 않고 분배가 자동적으로 성장을 보장하지도 않는다는 역사적 사례를 들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 문단에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기존의 주장을 소개하고 그 주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후 글쓴이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성장을 우선시하는 입장과 분배를 우선시하는 입장의 여러 이론을 소개한 것은 맞으나, 어느 한 이론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② 성장과 분배가 충돌하는 원인 그 자체에 대해 분석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 해결책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성장과 분배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에 대한 기존 이론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④ 성장과 분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는 있으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02 글쓴이의 의도 및 관점

글쓴이는 성장과 분배 중, 그 어느 쪽만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지 않으며, 둘 다 무시할 수 없으므로 양쪽 모두를 고려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② 성장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 '성장-분배 상충론'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③ 분배를 우선시하는 입장에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④ 1문단에서 성장과 분배가 경계를 이끄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글쓴이가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어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전제에 해당한다.

⑤ 글쓴이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소득의 양극화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지, 소득의 불평등이 해결되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

03 수용 및 해석의 적절성 평가

<보기>의 누진세 제도와 사회 보장 제도는 소득의 불평등을 막고 분배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 입장에서는 성장률이 올라가면 분배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 보장 제도와 같은 분배 문제의 해결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은 부자로부터 투자 자금이 나온다고 본다. 따라서 ㉠은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가 고소득층의 투자 의욕을 꺾는다고 볼 것이다.

③ ㉠은 저소득층에 대한 분배 정책이 그들에게 소비 지원을 마련해 주어 유효 수요를 늘리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게 한다고 본다. 따라서 실업 급여가 지급되면 실업자들에게 소득이 생기는 것이므로, ㉠은 이를 내수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볼 것이다.

④ ㉠은 노동자들은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해 불만을 가지게 된다고 본다. 누진세 제도는 부의 흐름이 고소득층에만 집중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므로, ㉠은 누진세 제도가 소득의 불평등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어 노동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근로 의욕을 높여 줄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⑤ ㉠은 경제 성장에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은 상실되고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한 불만은 사회 불안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사회 보장 제도는 소득이 적을 때, 또는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은 사회 보장 제도가 잘 이루어지면 사회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사회 2

경제

본문 110~111쪽

01 ④ 02 ③ 03 ⑤

[선물환 거래]

해제 이 글은 선물 거래의 일종인 선물환 거래의 개념을 설명하고, 국내 수출입 기업들의 선물환 매도 과정을 국내 조선 업체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글쓴이는 선물환 매도가 환율 변동의 위험성으로부터 수출입 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

제점 때문에 결국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제 선물환 매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특징 • 다양한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
•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개념의 이해를 도움

구성 1문단: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의 개념

2문단: 선물환 거래의 개념

3문단: 선물환 매도의 개념과 부작용

4문단: 국내 조선 업체의 선물환 매도 과정

5문단: 선물환 매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한눈에 보기

선물환
매도

수출 대금이 들어오는 시점의 환율이 현재보다 더 내려갈 것에 대비하여 수출 대금으로 받을 달러를 은행에 특정 가격에 파는 거래

문제점

•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부추김
• 단기 외채가 늘어남
• 환율 급등 요인으로 작용함

01 세부 정보 추론

조선 업체의 경우 주문을 받고 선박을 제조하여 인도할 때까지 2~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현재보다 환율이 떨어질 것을 대비하여 선물환 매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3문단에서 수출 기업들은 수출 대금이 들어오는 시점의 환율이 현재보다 떨어질 것에 대비해 선물환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했지만, 이것이 선물 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으로는 볼 수 없다.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 중 어느 쪽을 더 좋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3문단에서 선물환 매도가 급증할 경우 외환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경제 불황의 일차적인 원인이 되는지는 알 수 없다.

③ 5문단을 보면, 선물환 매도 과정에서 국내 은행이 달러를 국외에서 빌려와 단기 외채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단기 외채 비중과 그 수준이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알 수 없다.

⑤ 조선 업체들이 선물환 매도를 늘리면 국내 은행이 국외 은행에서 달러를 빌려와 외환 시장에서 원화로 바꾸게 된다. 그러면 외환 시장에 공급되는 달러가 늘어나 달러의 가격은 내리게 된다. 달러 가격이 오르는 경우는 선물환 매도 만기에 국내 은행이 조선 업체에게 받은 수출 대금으로 국외 은행에서 빌렸던 달러를 바로 갚아 버릴 때이다.

02 정보 간의 관계 파악

㉠ 선물 거래, ㉡ 선물환 거래는 둘 다 계약을 이행하는 시점에 매겨지는 상품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계약할 때 약속했던 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

오답 풀이 ① ㉠ 현물 거래는 계약 시점 혹은 직후에 물건과 돈을 맞교환하지만, ㉡ 선물 거래는 계약만 먼저 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는 나중에 이루어진다.

② ㉡ 선물 거래는 원래 농산물 거래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원자재 등과 같은 상품뿐만 아니라 주식·채권·외환 같은 금융 상품에도 이용되어 ㉠ 선물환 거래와 같은 거래 방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④ ㉡ 선물환 거래는 환율 변동의 위험성으로부터 수출입 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고, ㉢ 선물환 매도는 수출 기업이 환율이 내려갈 것을 대비해 수출 대금을 미리 국내 은행에 특정 가격으로 파는 것이다.

㉑ 우리나라에서 수출입 기업들의 ㉒선물환 매도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외환 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꼽히자, 정부가 ㉓선물환 거래를 규제했다고 하였다.

03 수용 및 해석의 적절성 평가

㉑, ㉒, ㉓, ㉔는 달러, ㉕는 원화에 해당한다. 국내 은행은 국외 은행에서 빌려온 달러를 외환 시장에서 원화로 환전하고 이를 대출이나 채권 투자에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㉕는 국내 은행이 달러를 가지고 바꾼 원화이지 외환 시장에서 빌린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국내 조선 업체가 해외 선주에게 주문을 받고 배를 넘기기까지 2~3년이 걸리므로 대금 역시 2~3년 후에 들어오게 된다. 이때 환율이 현재 보다 하락하면 배를 만들어 팔아도 손해를 보게 되므로 미리 지금의 환율로 고정해서 은행에 달러를 팔기로 약정을 하는 것이다.

② 국내 은행 역시 몇 년 뒤에 국내 조선 업체에서 달러를 받게 되는데, 그때 환율이 하락하면 손해를 입기 때문에 조선 업체에서 받을 달러와 같은 금액의 달러를 국외 은행에서 빌려오게 된다. 국외 은행에 달러를 갚는 시기 역시 국내 조선 업체에게서 달러를 받는 시기와 같다.

③ 국내 은행은 선물환 만기가 돌아오면 국내 조선 업체에서 약정했던 금액의 달러를 받는데 이는 국내 은행이 국외 은행에서 빌려온 달러의 액수와 같다. 여기에 국외 은행에서 빌렸던 달러 원금에 이자를 합하여 갚게 되는 것이다.

④ 국내 은행은 선물환 만기 때 원금은 국내 조선 업체에게 달러를 받고 약정했던 원화로 주고, 얻은 이자 수익 중 일부는 국외 은행에서 빌린 달러의 이자로 준다. 국외 은행에서 빌렸던 달러 원금은 국내 조선 업체에서 받은 달러로 갚는다. 국내 은행은 환율 변동의 위험을 피해 안정된 수수료 수입을 얻는 것이다.

과학 1 지구과학

본문 112~113쪽

01 ① 02 ④ 03 ③

[온난화와 한파]

해제 이 글은 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데도 왜 지역적으로는 한파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풀어 나가고 있다. 국지적 한파의 요인 중 하나인 북극 진동의 세기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주요 원인인 시베리아의 폭설이 한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고 있다.

주제 북극 진동과 이상 한파 발생 과정

특징 온난화가 한파를 일으키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함

구성 1문단: 지구의 온난화에도 불구하고 한파가 일어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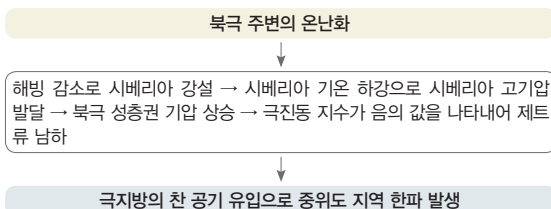
2문단: 북극의 찬 공기를 막는 제트류와, 북극 진동의 의미

3문단: 극진동 지수가 음의 값일 때 한파가 발생하는 과정

4문단: 북극의 온난화가 중위도 한파에 미치는 영향

한눈에 보기

〈북극 진동과 이상 한파 발생 과정〉



01 핵심 내용 파악

이 글은 지구 온난화와 한파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국지적 한파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북극 진동의 세기 변화에 의해 한파가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북극 주변의 온난화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한파가 왜 일어나는지 설명하고 있으므로 표제는 적절하지만, 세 가지 요인을 모두 살펴보고 있지는 않다.

③ 이 글은 북극 온난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중위도 한파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있을 뿐, 북극 온난화 자체의 심각성을 파헤치고 있지는 않다.

④ 제트류의 역할 및 발생 위치는 이 글의 중심 화제를 이해하기 위한 부분적인 정보일 뿐,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제목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이 글의 전체 내용으로 보면 지구는 추워지고 있다기보다는 온난화로 인해 더워지고 있으며, 한파는 국지적으로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세부 정보 확인

3문단에서 북극 기압이 중위도보다 높을 때 극진동 지수를 음의 값으로 표시한다고 하였다. 시베리아 기온 하강으로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면 북극의 공기 압력이 중위도보다 높아지므로 제트류가 중위도 지역까지 내려온다.

오답 풀이 ① 4문단에서 북극 주변 온난화로 바닷물이 얼어서 된 얼음인 해빙이 감소하게 되고, 증발하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진다고 하였다.

② 4문단에서 높은 태양 에너지를 일반 땅보다 잘 반사하므로, 눈이 많이 내리면 지표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해 기온은 내려가게 된다고 하였다.

③ 4문단에서 시베리아의 고기압이 발달하면 주변의 공기가 몰려들게 되므로 북극의 찬 공기도 이동하게 됨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제트류가 남하하여 중위도 지역까지 내려오면 동아시아, 북미 중동부 등 대륙에 속한 곳은 바다보다 더 빠르게 냉각되어 차가운 공기의 세력이 강해진다고 하였다. 제트류가 더 남쪽으로 쏠리면 그만큼 차가운 공기가 더 내려와 거기에 속한 지역에 한파가 몰아치는 것이다.

03 구체적 사례에 적용

1문단에서 지구는 자체의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안정을 유지해 왔으며, 국지적 한파가 급격한 온난화에 대한 지구의 반작용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하였다. ㉑은 이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므로 이와 유사한 것은 물이 스스로 정화되는 것을 보여 주는 자정 작용이다.

오답 풀이 ① 관성의 법칙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고,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㉑이 관성의 법칙으로 나타나려면 더워지면 계속 더워지려고 하고, 추워지면 계속 추워지려고 해야 한다.

② 풍선 효과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을 규제 등의 조치를 통해 억압하거나 금지하면 규제 조치가 통하지 않는 다른 경로로 우회하여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 현상을 의미한다.

④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과학 이론이다. 이 글과 연관시켜 본다면 극지방의 온난화가 중위도의 한파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연관시켜 볼 수는 있다.

⑤ 대기를 가지고 있는 행성 표면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가 대기를 빠져나가기 전에 흡수되어, 그 에너지가 대기에 남아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대기가 온실의 유리처럼 기능하기 때문에 '온실 효과'라 부르게 되었다.

01 ③ 02 ⑤ 03 ②

[인체의 방어 작용]

해제 이 글은 병원체에 대항하는 인체의 1차 방어 작용과 2차 방어 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체의 1차 방어 작용인 피부와 점막, 염증 반응, 2차 방어 작용인 면역 반응(세포성 면역와 체액성 면역)을 알아보고, 항원 항체 반응의 특성과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주제 인체의 방어 작용

특징 • 질문의 방식으로 화제를 제시함

- 인체의 방어 메커니즘을 1차 방어와 2차 방어로 구분하여 설명함

구성 1문단: 인체의 방어 체계인 1차 방어 작용과 2차 방어 작용

2문단: 비특이적 방어 작용 - 피부, 점막, 염증 반응

3문단: 특이적 방어 작용 - 세포성 면역와 체액성 면역

4문단: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의 원리

한눈에 보기

〈인체의 방어 작용〉

1차 방어 작용		
병원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비특이적 방어 작용		
피부	점막	염증 반응
피부가 병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분비되는 땀은 세균을 죽이고 피지는 항균 작용을 함	피부로 덮여 있지 않은 인체 부위는 점막으로 덮여 보호됨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백혈구가 혈관을 빠져나와 식균 작용으로 병원체 제거
↓		
2차 방어 작용(면역 반응)		
병원체의 종류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는 특이적 방어 작용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T 림프구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 등을 직접 공격하여 파괴	B 림프구가 T 림프구의 도움을 받아 형질 세포로 분화하여 만들어 낸 항체로 항원 제거	

01 세부 정보 확인

인체의 방어 체계를 나누는 기준은 병원체의 종류를 구별하여 대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병원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막는 것이 1차 방어 작용, 즉 비특이적 방어 작용이고, 특정 병원체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 대응하는 것을 2차 방어 작용, 즉 특이적 방어 작용이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인체는 병에 걸려도 휴식만 취하면 쉽게 회복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는 약을 먹지 않아도 인체 자체의 방어 메커니즘을 통해 질병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이다.

② 병원체가 체내로 침입하면 염증 반응에 의한 비특이적 방어 작용이 일어나지만, 병원체를 물리치기 위한 면역 반응인 특이적 방어 작용도 일어난다.

④ 인체는 한 번 병을 앓게 되면 그 항원에 대한 기억을 통해 항체를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해당 질병에 대한 면역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병을 앓지 않더라도 백신을 접종하면 인체의 면역계는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항체를 생산하게 되므로 인공적으로 면역을 얻을 수 있다.

⑤ T 림프구와 B 림프구는 둘 다 골수에서 생성되지만, B 림프구가 그대로 골수에서 성숙되는 것과 달리 T 림프구는 가슴샘으로 이동한 후 성숙된다.

02 핵심 내용 파악

1차 방어 작용은 광범위한 병원체에 대한 신속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피부와 점막에 의한 일차적 방어와 이것이 뚫렸을 때 염증 반응을 통한 백혈구의 식균 작용을 말한다. 2차 방어 작용은 특정 병원체에 대한 반응으로 느리게 일어나는데 세포성 면역와 체액성 면역(항원 항체 반응)이 그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② 피부는 척추동물의 몸을 싸고 있는 조직으로, 신체 보호, 체온 조절, 배설, 피부 호흡 등의 기능을 한다. 점막은 위장기관, 기도과 같은 대롱 모양 구조의 속 공간을 덮고 있는 부드럽고 끈끈한 막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피부처럼 인체의 각 기관을 보호하는 조직이다.

③, ④ 염증 반응은 병원체에 감염된 조직 부위에서 방출된 화학 물질에 의한 부종, 충혈, 통증, 열 등이 나타나는 반응을 말한다.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백혈구가 혈관을 빠져나와 상처 부위에 모여 병원체를 공격하는 식균 작용으로 제거하게 된다.

03 수용 및 해석의 적절성 평가

일부 T 림프구의 자극으로 B 림프구가 형질 세포와 기억 세포로 분화되는 것이다. T 림프구는 직접 항원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공격하기도 하는데 그림으로 보아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 림프구를 자극하는 것은 보조 T 림프구로, B 림프구의 대부분은 형질 세포로 분화하고 일부는 기억 세포가 된다.

오답 풀이 ① T 림프구는 항원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제거하는데 이를 세포성 면역이라고 한다.

③, ⑤ 1차 면역 반응은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고 항체를 생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백신을 접종하여 1차 면역 반응을 일으켜 기억 세포를 형성하게 해 두면,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2차 면역 반응으로 빠르게 다량의 항체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

④ T 림프구는 직접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기도 하지만 B 림프구가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돕는다. 즉,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은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01 ⑤ 02 ② 03 ③

[사용 후 핵연료의 최종 저장고는 어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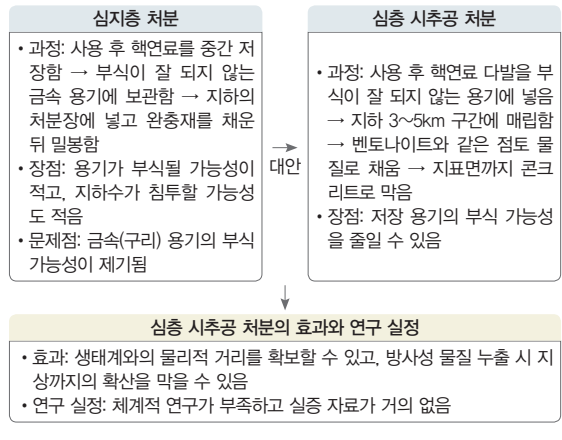
해제 이 글은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 방법인 심지층 처분과 심층 시추공 처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먼저 심지층 처분의 과정과 장점,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심층 시추공 처분의 과정과 장점 및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심층 시추공 처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을 덧붙이고 있다.

주제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 방법인 심지층 처분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심층 시추공 처분

특징 심지층 처분과 심층 시추공 처분의 과정과 장점을 비교하여 설명함

- 구성 1문단: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법인 심지층 처분과 심층 시추공 처분
 2문단: 심지층 처분의 과정과 장점
 3문단: 심지층 처분의 문제점
 4문단: 심층 시추공 처분의 과정과 장점
 5문단: 심층 시추공 처분의 효과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태

한눈에 보기



01 전개 방식의 특징

이 글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를 오래 관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심지층 처분을 제시하면서, 심지층 처분 기술에서 제기되는 단점과 이를 극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층 시추공 처분 방식의 장점과 효과를 소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심지층 처분의 과정에 대한 가정이 잘못일 수 있다는 주장을 소개하고 있으나, 이 가정(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모의 실험을 하고 있지는 않다.
- ②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심지층 처분이나 심층 시추공 처분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론이라 하기도 어렵다. 심지층 처분은 효과를 인정받다가 비판받는 기술이고, 심층 시추공 처분은 최근 각광받는 기술이다.
- ③ 심지층 처분이나 심층 시추공 처분은 문제에 대한 비슷한 대안으로 상반된 이론이라고 하기 어렵고, 이를 절충한 해결책도 드러나지 않는다.
- ④ 사용 후 핵연료를 오래 관리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02 정보 간의 관계 파악

이 글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 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다. <보기>에서도 당분간은 핵폐기물을 보관하면서 기다리다가 기술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핵연료의 최종 처리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마지막에서 심층 시추공 처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고 하고 있으며, <보기>에서도 심층 시추공 처분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고 했다.
- ③ 이 글에서는 심층 시추공 처분의 장점 및 안전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보기>에서는 심층 시추공 처분의 안전성이 확실하지 않다고 하였다.
- ④ 이 글에서는 100~200년 동안 능동적으로 핵폐기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이 방법대로 핵폐기물을 자성에서 보관하면서 최종 폐기물 처리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⑤ 이 글에서는 심지층 처분의 대안으로 심층 시추공 처분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기술의 발전으로 더 안전한 최종 폐기물 처리 방식을 결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03 세부 정보 추론

5문단의 지층 아래 암반은 물이 잘 빠지지 않으므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더라도 멀리 퍼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으로 보아, 심층 시추공 처분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는 있지만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④ 4~5문단에서 심층 시추공 처분은 심지층 처분보다 고준위 폐기물을 훨씬 깊은 곳에 매립할 수 있는 기술로, 기술과 비용 등의 문제로 심지층 처분의 대안으로 꼽히지 못하다가 시추 기술이 석유 개발과 함께 발전하면서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비용 역시 앞으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다.
- ② 4문단에서 심층 시추공 처분은 고준위 폐기물을 지하 3~5km 구간에 매립하므로, 지하수층이 별로 없고 산소도 적어 저장 용기의 부식 가능성을 더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 ⑤ 5문단에서 심층 시추공 처분 기술을 사용하면 고준위 폐기물과 생태계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심지층 처분보다 더 멀어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출 2 전기·전자

본문 118~119쪽

01 ② 02 ④ 03 ③

[태양 전지]

해제 이 글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 주는 태양 전지의 구성과 특징, 작동 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태양 전지의 구조와 전류 발생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최근 기존의 태양 전지 기술을 발전시켜 전자와 정공의 전도율을 높여 에너지 변환 효율성을 높인 새로운 태양 전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태양 전지의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제 태양 전지의 특징과 원리

- 특징** · 태양 전지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설명함
 · 태양 전지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순서대로 제시함

- 구성** 1문단: 태양광 발전의 구성 및 장점
 2문단: 태양 전지의 구성 요소와 구조
 3문단: 태양 전지에서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
 4문단: 태양 전지의 한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

한눈에 보기

태양광 발전	· 개념: 태양광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 · 구성 요소: 태양 전지로 구성된 모듈, 축전지, 전력 변환 장치 · 장점: 무제한 사용 가능, 무공해, 설치의 용이성
태양 전지	· 전기 발생 원리: 빛 에너지 입사 → 반도체 내에 전자와 정공 발생 → P-N 접합 부분에 생긴 전계로 인해 전자는 N형으로, 정공은 P형으로 이동 → 전계에 전선을 연결하면 N형에서 P형으로 전자가 이동하여 전류 발생 · 태양 전지의 낮은 에너지 변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진행

01 세부 정보 확인

2문단에서 태양 전지에 사용되는 재료인 실리콘은 최외각 전자들이 안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이러한 실리콘 원자로 된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하여 전자와 정공을 가진 두 가지 성질의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였다. 태양 전지의 재료와 원자 수와의 관계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성된 전기는 직류이기 때문에 이를 교류로 바꾸어 주는 변환 장치가 필요하다고 한 데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방식은 주로 교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실리콘에 대한 설명 중에, 실리콘은 최외각 전자들이 안정적으로 결합되어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④ 1, 3문단에서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태양 전지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임을 알 수 있다.

⑤ 1문단에서 태양광 발전의 장점을 제시하면서, 태양광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소음과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데에서 알 수 있다.

02 핵심 내용 파악

2~3문단의 내용을 통해 태양 전지의 전기 발생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보기>에서 전자가 모이는 것으로 보아 ⑥는 N형 반도체, 정공이 모이는 것으로 보아 ④는 P형 반도체임을 알 수 있다. ⑤는 P-N 접합 부분으로, 전자와 정공을 각각 N형과 P형으로 밀어내므로 전자와 정공이 자유롭게 이동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3문단에서 태양광이 반도체에 입사되어서 광전 효과에 의해 반도체 내에 새로운 전자와 정공이 생성된다고 하였다.

② <보기>에서 전자가 위쪽 반도체로, 정공이 아래쪽 반도체로 이동하므로 ⑥가 N형 반도체이고, ④가 P형 반도체이다. 2문단에서 N형 반도체는 실리콘 원자 1개를 인 원자로 대체하여 자유 전자를 지니게 되었고, P형 반도체는 실리콘 원자 1개를 붕소 원자로 대체하여 정공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③ 3문단에서 전류는 N형 반도체 쪽의 전자가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발생된다고 하였다.

⑤ ⑤는 P-N 접합부이다. 3문단에서 태양빛으로 발생된 전자와 정공이 P-N 접합부에서 전자는 N형으로, 정공은 P형으로 밀려난다고 하였다.

03 수용 및 해석의 적절성 평가

①은 P형과 N형 반도체 대신 다른 물질을 사용하여 만든 새로운 태양 전지로, 이 태양 전지에 사용된 물질들은 전도율이 높아 전자와 정공이 잘 흐르는 무기 물질과 유기 물질이다. 그러므로 ①은 태양 전지의 에너지 변환 효율이 낮은 이유 중 발생된 전기 입자(전자, 정공)가 전극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단점을 개선하여 더 효율적인 태양 전지를 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①은 반도체에 사용하는 물질의 전자와 정공의 전도율을 높여 전기 입자의 손실을 막은 것이지, 전기 입자를 빨리 생성하도록 물질을 개발한 것은 아니다.

②, ⑤ ①은 태양광이 반도체 안으로 들어온 후의 반응을 개선하여 에너지 변환율을 높인 것이므로, 빛이 반도체로 입사될 때의 반사율이나 다양한 파장의 태양광을 흡수시키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④ 빛 에너지가 열로 손실되는 것을 막아 빛 에너지의 활용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①의 전자·정공의 전도율이 높은 물질을 개발하여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될 때의 에너지 손실을 줄인다는 내용과 상관이 없다.

예시 1 미술

본문 120~121쪽

01 ④ 02 ④ 03 ⑤

[시각상과 촉각상 _ 이주현]

해제 이 글에서는 이집트 벽화를 예로 들어 시각상과 촉각상의 개념을 제시하고 촉각상에 의존하여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미술의 보편적 기능에 가까움을 설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촉각상에 기초해 형태를 이해하고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미술의 보편적 기능은 시각적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촉각상에 의존해 세계에 대한 앎과 이해, 느낌을 전달하는 데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주제 미술의 보편적 기능을 실현하는 촉각상의 표현 기법

특징 구체적 사례를 통해 핵심 개념을 제시하고 개념 간의 차이점을 설명함

구성 1문단: 촉각상에 토대를 둔 이집트 벽화

2문단: 시각상과 촉각상의 개념과 표현 방법

3문단: 촉각상에 기초해 형태를 이해하려는 경향

4문단: 일반적으로 촉각상에 의존한 그림을 그리는 이유

5문단: 미술의 보편적 기능

한눈에 보기

이집트 벽화: 정면상 + 측면상 → 촉각상을 토대로 함

시각상	촉각상
시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 주체가 본 그대로를 표현한 그림	촉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표현한 그림
미술의 보편적 기능	촉각상에 의해 형태를 인식하여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 즉 세계에 대한 앎과 이해,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미술의 일차적·보편적 기능에 가까움

01 세부 정보 확인

5문단에서 시각적 사실성의 표현은 오직 유럽에서,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대에서만 발달하였으며, 현재에는 그 전통마저 무너졌다고 하였다. '보이는 것의 재현'은 시각적 사실성의 표현이므로 과거보다 현재에 더욱 각광받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3문단에서 어린이들의 그림을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알고 있는 대로 그리려는 경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알고 있는 대로 그리는 것은 촉각상에 의존한 표현이다.

② 5문단에서 미술의 보다 보편적인 기능은 세계에 대한 앎과 이해, 느낌을 전달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③ 1문단에서 고대 이집트 벽화에 그려진 인물은 신체 부위에 따라 정면과 측면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그려졌다고 하였다.

⑤ 2문단에서 시각상은 본 그대로의 상을 나타낸 것이고, 촉각상은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

02 전개 방식의 특징

이 글에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거나 심층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높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이라는 예를 통해 촉각상을 사용한 미술 기법이 무엇인지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생소한 용어인 시각상과 촉각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1, 4문단에서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이유를 답변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이 글 전체에서 시각상과 촉각상의 개념, 시각상에 의존한 표현 방법의 특성과 촉각상에 의존한 표현 방법의 특성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03 구체적 사례에 적용

〈보기〉는 시각상에 의존해 표현한 그림이 아니라 사물에 대해 알고 있는 형태를 충실하게 표현한, 촉각상에 의존한 민화이다. 탁자는 약간 위쪽에서, 그릇은 정면에서 본 모습을 그리고 있으므로 여러 위치에서 보이는 모습을 그렸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시각상에 의존하여 표현했다면 탁자의 뒤쪽 다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짧게 그려야 하지만, 〈보기〉의 그림은 탁자의 뒤쪽 다리가 앞쪽 다리와 크기가 비슷하다.
- ② 〈보기〉는 촉각상에 의존한, 사물의 형태를 온전하게 표현하려는 목적이 강한 그림으로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의 인식을 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 ③ 왼쪽의 가지는 보이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묘사되어 마치 그릇에 담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려져 있다.
- ④ 〈보기〉는 보이는 대로 시각적 사실성을 표현한 그림이 아니라, 대상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충실히 표현한 그림이다.

예습 2 공연

본문 122~123쪽

01 ② 02 ⑤ 03 ④

[연극과 공간 _ 안치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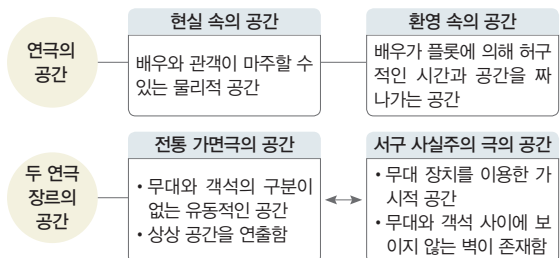
해제 이 글은 연극의 공간을 물리적인 현실 속의 공간과 극이 창조한 환영 속의 공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우리나라 가면극의 공간과 서구 사실주의 극의 공간을 비교하며 각각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사실주의 극의 고정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극장을 탈출하여 관객을 찾아가는 새로운 연극이 가지는 공간의 특징을 덧붙이고 있다.

주제 연극의 공간과 그 특성

특징 전통 가면극과 서구 사실주의 극을 대조하며 제시함

- 구성** 1문단: 현실 속 공간과 환상 속 공간으로 나눌 수 있는 연극의 공간
 2문단: 물리적 공간이 상상적인 공간으로 변할 수 있는 연극의 공간
 3문단: 우리나라 가면극 공간의 특징
 4문단: 서구 사실주의 연극 공간의 특징
 5문단: 배우와 관객이 공유하는 연극 공간을 생성하려는 시도

한눈에 보기



연극의 새로운 시도

고정된 극장을 탈출한 연극

- 고정된 극장이 없어지고 공간이 새롭게 생성됨
- 연극 공간이 배우와 관객이 시간을 공유하는 장소가 됨

01 세부 정보 추론

2문단의 '행인이 관객이 되어 ~ 다시 태어난다.', '연극이 이루어지는 ~ 깊은 영향을 준다.'를 통해 연극이 창조한 상상적인 공간에 관객이 참여한다면, 이 상상 공간이 현실 공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관객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어, 배우와 관객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추리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1문단의 마지막 문장과 2문단의 '하지만 거리라는 물리적 공간은 ~ 깊은 숲이 될 수도 있다.'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
- ③ 4문단의 '극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 객석을 지켜야 한다.'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
- ④ 5문단에서 배우들이 관객들이 있는 터에 같이 자리를 잡으며 배우와 관객들 사이에 흐르는 시간을 공유한다는 내용에서 추측할 수 있다.
- ⑤ 4문단에서 우리나라 가면극은 상상 공간을 연출하고, 서구 사실주의 연극은 가시적인 공간을 만든다고 하였다.

02 전개 방식의 특징

이 글은 연극 공간이 상상적인 공간, 환영 속의 공간으로서 가지는 특징을 제시하고, 이러한 특성이 우리나라 전통 가면극에는 나타나는 반면 서구 사실주의 연극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극의 공간이 상상의 공간으로 창조되지 못하는 서구 사실주의 연극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연극 공간의 의미나 특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이의 효용성 및 가치를 예찬하고 있지는 않다.
- ② 서구 사실주의 극이 고정된 공간을 연출하는 한계와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연극의 공간, 전통 가면극, 서구 사실주의 연극 등에 나타나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전통 가면극의 공간과 서구 사실주의 연극의 공간의 특징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또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3 구체적 사례에 적용

⑦의 '많은 예술가들'은 연극과 관객의 상호 작용이 활발하기를, 연극이 고정된 극장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즉, 이들은 무대 장치를 이용해 만들어진 고정된 공간이 아닌, 거리나 마당이 무대가 되듯 연극이 창조하는 상상적인 공간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④의 연극은 고정된 극장에서 벗어나 무대 장치 없이 배우의 행동으로 상상의 공간을 창조하므로 ⑦이 바라는 연극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일상의 공간을 무대에 꾸몄으므로 무대 장치 등을 이용한 고정된 극장을 벗어난 연극이 아니다.
- ② 야외이긴 하지만 극장이라는 고정된 공간이고, 사무실을 설치하여 연극의 공간을 가시적으로 만들었으므로 상상적인 공간이 생성되지 못한 연극이다.
- ③ 무대 장치가 간소화된 것일 뿐 고정된 극장을 벗어난 연극으로 볼 수 없다.
- ⑤ 관객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고정된 공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IV 문법

개념 한 실전

문법 1

음운

본문 127쪽

01 ④

02 ①

01 [음운] 음운의 변동

‘급행열차[그꺽널차]’는 ‘급’의 ‘ㅂ’과 ‘행’의 ‘ㅎ’이 합쳐져 ‘급행[그꺽]’이 되고 있으므로 ‘ㅂ’과 ‘ㅎ’이 하나의 음운 ‘ㅍ’으로 축약(㉔)된 것이고, ‘열[널]’은 받침 뒤에 모음 ‘ㄷ’이 연결되면서 ‘ㄴ’ 음이 첨가(㉕)된 것이다. 따라서 ‘급행열차[그꺽널차]’에서는 ㉔과 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랑잎[가랑닙]’에서 ‘잎[닙]’은 모음 ‘ㅣ’ 앞에서 ‘ㄴ’ 음이 첨가(㉕)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ㅍ’이 [ㅂ]으로 발음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㉖)에 속한다.

② ‘값지다[갑찌다]’에서 ‘값[갑]’은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탈락(㉗)에 속한다. 또 ‘지[찌]’는 ‘ㅈ’이 받침 ‘ㄱ, ㄷ, ㅂ’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된 것인데, 이 된소리되기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㉖)에 속한다.

③ ‘술하다[수타다]’에서는, 먼저 ‘술[술]’에서 ‘ㅌ’이 [ㄷ]으로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는데, 음절이 끝소리 규칙은 교체(㉖)에 속한다. ‘술하다[수타다]’는 ‘ㄷ’과 ‘ㅎ’이 하나의 음운 ‘ㅌ’으로 합해지는 축약(㉔)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⑤ ‘서른여덟[서른녀덟]’에서는, ‘여[녀]’에서 ‘ㄴ’이 첨가(㉕)되고 있으며, ‘덟[덟]’에서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㉗)에 속한다.

02 [음운] 음운의 변동

‘무릎이야’에서 ‘이야’는 조사이다. 조사는 실질 형태소에 붙어 문법적인 뜻을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받침 ‘ㅍ’이 제 음가대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㉙) [무르피야]로 발음해야 한다. ‘무릎 아래’의 ‘아래’는 명사이다. 명사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받침 ‘ㅍ’이 대표음 [ㅂ]으로 바뀌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㉙) [무르바래]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② ‘서넛이나’의 ‘이나’와 ‘서넛에서’의 ‘에서’는 모두 조사이다. 조사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㉙에 따라 각각 [서넛이나]와 [서넛에서]로 발음해야 한다.

③ ‘걸으로’의 ‘으로’는 조사로서 형식 형태소인 반면, ‘걸아가미’의 ‘아가미’는 명사로서 실질 형태소이므로 ‘걸으로’는 ㉙에 따라 [거트로]로, ‘걸아가미’는 ㉙에 따라 [거다가미]로 발음해야 한다.

④ ‘배꽃이’의 ‘이’는 조사로서 형식 형태소이므로 ㉙에 따라 ‘배꽃이’는 [배꼬치]로 발음해야 하며, ‘배꽃 위’의 ‘위’는 명사로서 실질 형태소이므로 ㉙에 따라 ‘배꽃 위’는 [배꼬뒤]로 발음해야 한다.

⑤ ‘빛에’의 ‘에’와 ‘빛이며’의 ‘이며’는 모두 조사로서 형식 형태소이므로 ㉙에 따라 ‘빛에’와 ‘빛이며’는 각각 [비제]와 [비지며]로 발음해야 한다.

문법 2

단어의 형성

본문 129쪽

01 ③

02 ②

01 [단어] 단어와 형태소

밑줄 친 ‘은/는’, ‘들-/들-’, ‘-았-/ -었-’은 모두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다. 또한 ‘은/는’은 결합하는 말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 ‘들다’의 어간 ‘들-’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어라’와 결합할 때 ‘들-’로 바뀌고, ‘-았-/ -었-’은 어간 끝음절의 모음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 즉 이 형태소들이 음운 환경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는 이형태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 것은 맞지만, 밑줄 친 말 중 조사인 ‘은/는’만 단어에 해당하며 나머지 의존 형태소들은 단어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② 밑줄 친 말 중 조사인 ‘은/는’만 단어에 해당한다. 또한 ‘은/는’, ‘-았-/ -었-’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지만, 동사 어간 ‘들-/들-’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이다.

④ 밑줄 친 말들은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들-/들-’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이다.

⑤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 것은 맞지만, ‘들-/들-’은 실질적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이다.

02 [단어] 단어의 형성

①은 ‘뛰어가다’에서와 같이 어간이 연결 어미로 연결되어 형성된 단어에 대한 설명이다. ‘돌아서다’ 역시 ‘돌다’의 어간 ‘돌-’에 연결 어미 ‘-아’가 붙어 ‘서다’와 연결되어 형성된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① ‘꿈꾸다’는 체언 ‘꿈’과 용언 ‘꾸다’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③ ‘뒤섞다’는 ‘몹시, 마구, 온통’의 뜻을 지니는 접두사 ‘뒤-’와 용언 ‘섞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④ ‘빛나다’는 체언 ‘빛’과 용언 ‘나다’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⑤ ‘오르내리다’는 용언의 어간 ‘오르-’와 또 다른 용언의 어간 ‘내리-’가 연결 어미 없이 직접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된 경우로, (보기)의 ‘오가다’와 같은 방법으로 결합된 합성어이다.

문법 3

단어의 분류와 의미

본문 131쪽

01 ④

02 ①

01 [단어] 단어의 분류

(나)를 형태에 따라 나누면 ‘열/에/아홉/은/매우/학생’은 불변어, ‘착실한/이다’는 가변어이다. 기능에 따라 나누면 ‘열/아홉/학생’은 체언, ‘착실한’은 용언, ‘매우’는 수식어, ‘에/은/이다’는 관계언이다. 또한 의미에 따라 나누면 ‘학생’은 명사, ‘열/아홉’은 수사, ‘착실한’은 형용사, ‘매우’는 부사, ‘에/은/이다’는 조사이다. 즉 의미에 따라 나누었을 때 ‘아홉’은 수사, ‘학생’은 명사이므로 서로 다른 품사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착실한'과 '이다'는 활용하여 그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② '열'과 '학생'은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역할을 하는 체언에 해당한다.
 ③ '은'은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고, '이다'는 서술격 조사로 둘 다 관계언에 해당한다.
 ⑤ '매우'는 부사이고 '착실한'은 형용사이므로, 의미에 따라 나누었을 때 둘은 다른 품사이다.

02 [단어] 단어의 의미 관계

<보기>는 '가깝다'를 통해 다의어의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①에서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의 '낮다'는 '아래에서 위까지의 높이가 기준이 되는 대상이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며,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에서 '낮다'는 '품위, 능력, 품질 따위가 바라는 기준보다 못하거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 중심적 의미가 추상화된 주변적 의미를 나타낸다.

- 오답 풀이** ② '크다'의 중심적 의미는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로 공간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첫 번째 문장에서의 '크다'는 '가능성 따위가 많다.'의 의미로, 두 번째 문장에서의 '크다'는 '일의 규모, 범위, 정도, 힘 따위가 대단하거나 강하다.'라는 의미로, 둘 다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넓다'의 중심적 의미는 '면이나 바닥 따위의 면적이 크다.'로 공간과 관련되어 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넓다'는 모두 공간과 관련하여 '너비가 크다.'라는 중심적 의미로 쓰였다.
 ④ '좁다'의 중심적 의미는 '면이나 바닥 따위의 면적이 작다.'로 공간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장에서의 '좁다'와 두 번째 문장에서의 '좁다'는 모두 '마음 쓰는 것이 너그럽지 못하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작다'의 중심적 의미는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하다.'로 공간과 관련되어 있다. 첫 번째 문장에서의 '작다'는 '일의 규모, 범위, 정도, 중요성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쓰였으며, 두 번째 문장에서의 '작다'는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문법 4 맞춤법과 표기법

본문 133쪽

01 ② 02 ⑤

01 [어문 규정] 한글 맞춤법

①의 '드러서다'는 '들어서다'를 연음으로 발음한 [드러서다]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의 '높이다'를 '높히다'로 잘못 적는 것은 '높다'에 결합하는 사동 접미사를 '-이-'가 아닌 '-히-'로 잘못 파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①과 같은 예로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①의 잘못된 표기인 '드러서다'는 '들어서다'를 연음으로 발음한 [드러서다]를 잘못 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③ ①의 '그러치'는 '그렇지'의 거센소리되기에 따른 발음 [그러치]를 잘못 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④ '얼혀'는 거센소리되기에 따라 [얼켜]로 발음된다. 따라서 '얼혀'를 '얼켜'로 표기한 것은 ㉠과 같은 사례로 볼 수 있다.

- ⑤ '금불이'는 구개음화에 따라 [금부치]로 발음되므로 '금불이'를 '금부치'로 잘못 적는 경우는 ㉡과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02 [어문 규정] 로마자 표기법

①에서 '앞집[압집]'은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그런데 '앞집'을 'apjip'으로, '장릉[장:농]'을 'jangnong'으로 표기한 것에서 'ㅈ'이 'j'로 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된소리되기 현상이 나타나는 '앞집[압집]'이 'apjip'으로 표기된 것은 된소리되기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①의 '가락[가:락]'을 'garak'으로 적은 사례에서 모음 앞의 'ㄱ'과 어말의 'ㄱ'을 각각 'g'와 'k'로 다르게 적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에서 '앞'의 'ㅍ'과 '집'의 'ㅂ'을 모두 'p'로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국어에서 '앞'은 [압]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종성을 'p'로 적은 것이다.
 ③ ㉡에서 '장릉[장:농]'을 'jangnong'으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장음을 표시하는 별도의 표기가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장릉[장:농]'은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인데, 이를 'jangnong'으로 표기한 것은 비음화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법 5 문장의 성분과 짜임

본문 135쪽

01 ⑤ 02 ④

01 [문장] 문장의 성분

⑤의 '주다'라는 서술어는 '~에/에게 ~을 주다'의 문장 구조로 실현되므로 '지혜에게'는 문장의 성립에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빌리다'라는 서술어 역시 '~에서/에게서 ~을 빌리다'의 문장 구조로 실현되므로 '친구에게'도 필수적 부사어이다.

- 오답 풀이** ① '비슷하다'는 '~와/과 비슷하다'의 문장 구조로 실현되므로 '이것과'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하지만 '보다'는 '~을/를 보다'의 문장 구조로 실현되므로 '삼촌과'는 필수적 부사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탈하다'는 '~에서 이탈하다'의 문장 구조로 실현되므로 '궤도에서'는 필수적 부사어나, '만나다'는 '~을/를 만나다'의 문장 구조로 실현되므로 '공원에서는'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③ '잡다'는 '~을/를 잡다'의 문장 구조로 실현되므로 '몽둥이로'는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그러나 '삼다'는 '~을 ~으로 삼다'의 문장 구조로 실현되므로 '사워로'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④ '적합하다'는 '~에/에게 적합하다'의 문장 구조로 실현되므로 '벼농사에는' 필수적 부사어나, '방문하다'는 '(어떤 사람이나 장소)을/를 방문하다'의 문장 구조로 실현되므로 '오후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02 [문장] 문장의 짜임

④에서 '바람이 불면'은 체언을 꾸미고 있지 않으므로 ㄱ이 관형절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바람이 불어서 단풍잎이 흔들린다.'는 ㄱ과 ㄹ이 종속적 연결어미 '-어서'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다.

- ② '차가운 바람이 분다.'는 ㄴ이 ㄱ에 관형절로 안기면서 ㄴ의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다.
- ③ '바람이 차갑고 단풍잎이 빨갛다.'는 ㄴ과 ㄷ이 대등적 연결어미 '-고'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다.
- ⑤ '흔들리는 단풍잎이 빨갛다.'는 ㄹ이 ㄷ에 관형절로 안기면서 ㄹ의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다.

문법 6 문장의 표현과 의미

본문 137쪽

01 ② 02 ③

01 [문장] 문장의 표현

능동문인 ㉠ '나는 그림을 보았다.'에서 목적어 '그림을'은 피동문인 ㉡ '그림이 나에게 보였다.'에서 주어인 '그림이'로 바뀐다. 따라서 ㉠과 ㉡를 보니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에서도 목적어가 된다는 ②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능동문 ㉠의 주어인 '언니가'는 피동문 ㉡에서 부사어인 '언니에게'로 바뀌었다.
- ③ 주동문 ㉠이 사동문인 ㉡로 바뀔 때 '형이'라는 새로운 주어가 나타나고 있다.
- ④ 피동문 ㉡는 피동 접미사인 '-기-'가 결합하여 '안겼다'가 되었고, 사동문 ㉢는 사동 접미사인 '-기-'가 결합하여 '안겼다'가 되었다. 이를 통해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같은 경우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는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한 '안겼다'라는 사동사로 사동문을 만들고 있고, ㉣는 '-게 하다'를 활용하여 사동문을 만들고 있다.

02 [문장] 문장의 의미

"언니가 교복을 입고 있다."는 동작의 진행과 완료에 따른 중의성을 지니는 문장으로, 교복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와 현재 교복을 다 입은 후의 상태라는 의미의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처럼 "언니가 교복을 입는 중이다."로 고치면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만을 나타내게 되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③과 같이 "언니가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라고 수정하면 여전히 동작의 진행과 완료에 따른 중의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예쁜 모자의 장식품이 돋보였다."는 수식의 범위가 불분명해서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모자가 예쁜 경우'와 '장식품이 예쁜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장식품이 예쁜 경우'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예쁜, 모자의 장식품이 돋보였다."와 같이 심표를 사용할 수도 있고, ①의 "모자의 예쁜 장식품이 돋보였다."처럼 단어의 위치를 바꿔 중의성을 해소할 수도 있다.
- ② "손님들이 다 오지 않았어."는 부정의 범위가 불분명해서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와 '한 명도 오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손님들 중 일부가 오지 않았어."나 ②의 "손님들이 다는 오지 않았어."처럼 수정하면 된다.
- ④ "형은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는 비교의 대상이 불분명하여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형이 나와 동생 중 동생을 더 좋아한다.'와 '내가 동생을 좋아하는 것보다 형이 동생을 더 좋아한다.'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전자의 의미, 즉 '나와 동생이 비교 대상인 경우'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형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나 ④의 "형은 나와

동생 중에서 동생을 더 좋아한다."처럼 수정하면 된다.

- ⑤ "나는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했다."는 수식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내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경우'와 '손님이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전자의 의미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나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처럼 수정하거나 ⑤의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는 웃으면서 인사했다."처럼 단어의 위치를 바꾸면 된다.

문법 7 답화

본문 139쪽

01 ③ 02 ③

01 [답화] 답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

③의 "구청에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라는 의문문의 답화 상황은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모를 때'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길을 묻는 의도가 직접 드러난 발화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귀가한 후 누나에게 발화한 상황으로 볼 때, ㉠은 물을 달라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추운 교실이라는 상황에서 창가에 앉은 학생에게 발화한 상황으로 볼 때, ㉡은 창문이 열린 사실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창을 닫게 하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④ ㉢는 의문형으로 표현되었지만, 대답을 요구하는 표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웃을 빌려 달라는 동생에게 빌려 주기 싫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⑤ 추운 겨울 선생님을 맞이하면서 하는 발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는 차를 드시라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2 [답화] 답화의 표현

㉡의 '말씀'은 원장의 말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고, ㉢의 '말씀'은 학생이 자신의 말을 낮추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 오답 풀이** ① ㉠과 ㉡는 모두 원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 ② ㉢과 ㉣는 모두 학생과 원장이 전화로 약속을 잡았던 날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 ④ ㉤는 화자와 청자 모두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지시하는 표현이다.
- ⑤ ㉥는 현재 답화 상황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아버지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문법 8 국어의 역사

본문 141쪽

01 ③ 02 ②

01 [국어의 역사] 한글의 창제 원리

'학생 3'은 <예사소리>-<거센소리>-<된소리>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예사소리>-<거센소리>의 관계를 <A>-<A에 획 추가>로 표현한 것은 <보기 2>의 '나'에서 말한 가획의 원리에 해당한다. 또한 <예사소리>-<된소리>의 관계를 <A>-<AA>로 설명한 것은 <보기 2>의 '다'에서 말한 병서의 원리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학생'의 'ㅅ'의 글자 모양이 어떤 모습을 형상화한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 2>의 '가'에서 말한 상형의 원리에 해당한다.
- ② '학생'의 'ㅅ'은 모음의 기본자 'ㆍ', 'ㅡ', 'ㅣ'를 바탕으로 모든 모음자를 휴대 전화 자판으로 입력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 2>의 '라'에서 말한 중성자의 제자 원리에 해당한다.
- ④ '학생'의 'ㅅ'은 'ㅁ'에 획을 더해 만든 자음자 'ㅂ', 'ㅍ'은 모두 'ㅁ' 모양을 공통적으로 지니며, 공통된 소리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보기 2>의 '나'에서 말한 가획의 원리에 해당한다.
- ⑤ '학생'의 'ㅅ'은 중성자, 즉 받침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이는 한글이 경제적인 문자로 평가받는 특징 중 하나이지만, <보기 2>에 제시된 제자 원리 중에는 이 점에 대한 서술이 나타나지 않는다.

02 [국어의 역사] 중세 국어의 특징

단어의 둘째 음절에 놓인 'ㆍ'가 'ㅡ'로 변화한 사례(㉠)는 ① '마늘'이 '마늘'로, ② '사슴'이 '사슴'으로, ⑤ '아들'이 '아들'로 변화한 경우이다. 첫째 음절에 놓인 모음 'ㆍ'가 'ㅏ'로 변화한 사례(㉡)는 ② 'ㅁ장'이 '가장'으로, ④ 'ㄷ리'가 '다리'로 변화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과 ㉡을 모두 만족하는 사례는 ②이다.

- 오답 풀이** ① '마늘'이 '마늘'로 변화한 것은 단어의 둘째 음절에 놓인 'ㆍ'가 'ㅡ'로 변화한 ㉠의 사례에 해당하지만, '흙'이 '흙'으로 변화한 것은 첫째 음절에 놓인 'ㆍ'가 'ㅡ'로 변화한 것이므로 ㉡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하늘'이 '하늘'로 변화한 것은 ㉠이 아닌 ㉡의 사례이며, '오늘'이 '오늘'로 변화한 것은 ㉠이 아닌 ㉡의 사례이므로 사례가 바뀌어 제시되었다.
- ④ '사람'이 '사람'으로 변화한 것은 둘째 음절의 'ㆍ'가 'ㅏ'로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과 ㉡ 둘 다에 해당하지 않으며, 'ㄷ리'가 '다리'로 변화한 것은 ㉠의 사례이다.
- ⑤ '아들'이 '아들'로 변화한 것은 ㉠의 사례에 해당하지만, '다섯'이 '다섯'으로 변화한 것은 둘째 음절의 'ㆍ'가 'ㅏ'로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과 ㉡ 둘 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점수 올리는 실전

문법 1

본문 142~144쪽

01 ③ 02 ④ 03 ⑤ 04 ④ 05 ②

01 [어문 규정] 표준어 규정

<보기 1>에 따르면, '의'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ㅐ]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는 [민주주의의], [민주주의의], [민주주의의]로 발음할 수 있다. '의의'는 [의의], [의의]로 발음할 수 있다. '의의'의 첫음절을 [이]로 발음하여 [이이]로 발음한 ③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다만 4'에 따라 조사 '의'는 [에]로도 발음할 수 있고, '제5항'에 따라 '의의'는 [의의]로 발음할 수 있다.

- ② '다만 4'에 따라 조사 '의'는 [에]로도 발음할 수 있고, '의의'의 둘째 음절을 [이]로도 발음할 수 있다.

- ④ '다만 4'에 따라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발음함을 허용하므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발음할 수 있고, '제5항'에 따라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하며, 역시 '다만 4'에 따라 '의의'의 둘째 음절을 [이]로도 발음할 수 있다.

- ⑤ '제5항'에 따라 조사 '의'는 [의]로, '의의'는 [의의]로 발음하며, '다만 4'에 따라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발음할 수 있다.

02 [단어] 단어의 형성

'높다랗다'는 형용사 '높다'의 어간 '높-' 뒤에 '그 정도가 꽤 뚜렷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 '-다랗다'가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이 경우 접미사의 결합으로 본래의 품사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형용사이다. '높다랗게' 또한 '높다랗다'의 어간인 '높다랗-'에 어미인 '-게'가 붙어 문장 내에서 부사어로서 기능하지만, 품사는 변하지 않아 형용사이다.

- 오답 풀이** ① '햇알'은 '알'이라는 명사 앞에 '보람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 '햇-'이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 ② '벌이'는 '벌다'라는 동사 어간인 '벌-'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인 '-이'가 붙어 명사가 된 파생어이다.
- ③ '자랑스럽다'는 '자랑'이라는 명사에 '-스럽다'라는 '그런한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가 붙은 파생어이다. 따라서 파생어의 결합으로 명사를 형용사로 바꾼 경우로, 품사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 ⑤ '낮추었다'는 '낮다'라는 형용사의 어간 '낮-'에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 '-추-'가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이때 '낮추다'는 품사가 바뀌어 동사가 된다.

03 [어문 규정] 로마자 표기법

<보기 1>에 나타난 국어의 이중 모음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규정에 따라 'ㅐ'는 'ye', 'ㅏ'는 'wa'로 적으므로 '예화'는 'Yehwa'로 표기해야 한다. 또한 'ㅑ'는 'yeo', 'ㅓ'는 'ui'(불임 1에 의거)로 적으므로 '여의도'는 'Yeouido'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단모음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규정에 따라 'ㅡ'는 'eu'이므로 '영등포'는 'Yeongdeungpo'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로마자 표기법을 지켜 ㉠~㉣에 들어갈 표기들로만 짝지어진 것은 ⑤이다.

04 [담화] 담화의 이해

'군말'은 담화에서 '아, 저, 음, 뭐'와 같이 의미 전달과 상관없이 발화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용하는 말로, '어색함, 곤란함, 머뭇거림'과 같은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보기>에서는 이러한 군말을 찾아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참 훌륭하시네요'는 칭찬의 내용으로 진술되지만 질책의 의도를 갖는 반어적 발화이며, 화자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발화이다.
- ② '여기, '그거' 등은 지시 표현, '그러한'은 '한 시간 동안 줄을 서서 사온 빵'이어서인지를, '그 말'은 '네가 천사라는 소문'을 대신 표현하는 대응 표현으로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 ③ '네가 천사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파다한데, 만약 빌려주면 그 말이 세계로 퍼질 거야'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사실 여부를 전달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표현으로 설득을 위한 과장된 발화이다.
- ⑤ '밥때를 놓치면 안 되지 않니?'는 밥을 같이 먹자는 요청을, '말겨 돈 돈 있어?'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거절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발화이다.

05 [문장] 문장의 표현

㉠의 ‘오시게’는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청자를 높이고 있다. ㉠의 ‘모시러’는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데리러’의 높임말로 특수한 어휘를 통해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것이다. 즉 ㉠은 ‘-시-’를 사용해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고 있으나, ㉠은 특정 어휘를 사용하여 객체를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에서는 높임 대상인 ‘할아버지’의 신체 일부를 높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고, ㉡에서는 ‘할머니’와 관련된 사물인 ‘귀걸이’를 높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③ ㉠의 ‘말씀’은 화자 자신의 말을 낮춘 표현인 반면, ㉡의 ‘말씀’은 ‘선생님’의 말을 높이는 표현이다.

④ ㉠에서는 ‘진지’, ‘잡수시다’라는 특정 어휘를 사용하여 주체를 높이고 있고, ㉡에서는 ‘드리다’라는 특정 어휘를 사용해 객체를 높이고 있다.

⑤ ㉠의 ‘가십시오’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청자를 높이고 있다. 하십시오체는 격식체로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나 공적인 상황에 사용되며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멀다. ㉡의 ‘가’는 해체를 사용하여 청자를 낮추고 있다. 해체는 비격식체로 일상적 상황에 사용되며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

문법 2

본문 145~147쪽

01 ⑤ 02 ④ 03 ⑤ 04 ② 05 ⑤

01 [음운] 음운의 변동

‘날날이’는 [난:나치(음절의 끝소리 규칙, 구개음화)] → [난:나치(비음화)]의 과정을 거쳐 발음된다. 이 과정에서 음운의 축약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 ‘낮[남]’, ‘루름[무름]’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ㅈ’, ‘ㅍ’이 ‘ㄷ’, ‘ㅂ’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난다. ㉡의 ‘국물[궁물]’에서는 ‘ㄱ’이 비음인 ‘ㅇ’의 영향으로 ‘ㅇ’으로 발음되는 비음화, ‘설날[설랄]’에서는 앞에 있는 ‘ㄹ’의 영향으로 ‘ㄴ’이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나타난다.

② ‘앞나’는 [압나(음절의 끝소리 규칙)] → [압나(비음화)]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 ㉡과 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난다.

③ ‘같이[가치]’, ‘굳이[구지]’에서는 ‘ㄷ’, ‘ㅌ’이 ‘ㄴ’ 앞에서 ‘ㄷ’, ‘ㄸ’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나타나고, ‘널고[나코]’, ‘법학[바팍]’에서는 ‘ㄱ’, ‘ㅂ’이 ‘ㅎ’과 만나 ‘ㅋ’, ‘ㅍ’으로 바뀌는 음운의 축약이 나타난다.

④ ‘달하디’는 [다티다(음운의 축약)] → [다치다(구개음화)]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 ㉡과 같은 음운의 축약과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02 [단어] 단어의 의미

다의어 ‘쓰다’, ‘쓰다’, ‘쓰다’의 ㉠과 ㉡는 각각 의미상 상관관계를 갖지만, ‘쓰다’, ‘쓰다’, ‘쓰다’는 동음이의 관계로서 의미상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얼굴에 어떤 물건을 겹거나 덮어쓰다.’는 ‘쓰다’의 ㉠, ㉡와 의미상 유사한 관계를 가지므로, ‘쓰다’의 의미로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둘 이상의 의미를 갖는 단어를 다의어라고 한다. 따라서 ‘쓰다’, ‘쓰다’, ‘쓰다’는 각각 ㉠과 ㉡의 뜻을 지니므로 다의어이다.

② 동음이의어는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른 단어로, 국어사전에 각기 다른 표제어로 수록된다. 따라서 ‘쓰다’, ‘쓰다’, ‘쓰다’는 동음이의어이다.

③ ‘소비하다’는 ‘돈이나 물자, 시간, 노력 따위를 들이거나 써서 없애다.’라는 의미이므로 ‘쓰다’ ㉡의 유의어이고, ‘벌다’는 ‘일을 하여 돈 따위를 얻거나 모으다.’라는 의미로, ‘쓰다’ ㉡의 반의어이다.

⑤ ‘그 경험은 썼다.’의 ‘썼다’는 ‘달갑지 않고 싫거나 괴로웠다.’의 의미이다.

03 [어문 규정] 한글 맞춤법

‘보이다’는 ‘보다’의 피동사로, 제37항의 규정에 따라 ‘되다’로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의 언어 자료의 ‘되다’는 ‘보다(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의 피동사의 준말이 아니라, ‘웃어른을 대하여 보다.’라는 뜻을 가진 본말(줄지 않은 본디 음절의 말)이다.

오답 풀이 ① ‘썩었다’는 제35항에 따라 ‘구’로 끝난 어간에 ‘-었-’이 어울려 ‘썩’으로 될 수 있으므로, ‘썩다’로 적을 수 있다.

② 제35항 [붙임 1]에 따라 ‘놓아’를 ‘놔’로 준 대로 적을 수 있으므로, ‘놓아둔’을 ‘놔둔’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③ 제35항 [붙임 2]에 따라 ‘ㄴ’ 뒤에 ‘-었-’이 어울려 ‘냈’이 될 수 있으므로, ‘되였어요’는 ‘됐어요’로 적을 수 있다.

④ 제36항에 따라 ‘ㄴ’ 뒤에 ‘-어’가 와서 ‘너’로 줄 수 있으므로, ‘견디어’는 ‘견뎌’로 적을 수 있다.

04 [문장] 문장의 성분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란 꼭 있어야만 문장이 성립하는 성분을 말한다. ㉠은 ‘관람했다’를 꾸미는 ‘교정에서’가 빠져도 문장이 성립하므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이다. 따라서 ‘관람했다’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은 주어와 목적어 두 개이다.

오답 풀이 ① ㉠에서 ‘진달래꽃’과 ‘피었다’를 꾸미는 ‘예쁜’과 ‘활짝’은 부속 성분이고, 주어 ‘진달래꽃’과 서술어 ‘피었다’만이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다.

③ ㉡은 문장 성분이 하나만 빠져도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생겼다’는 ‘어떻게’, ‘비슷하게’는 ‘무엇과’를 꼭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④ 일반적으로 문장은 관형어 없이도 성립된다. 그러나 주어가 의존 명사이면 관형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므로 주어가 의존 명사인 ㉡의 문장에서 관형어인 ‘반짝이는’이 빠지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⑤ ㉢의 ‘발표하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동사이다.

05 [국어의 역사] 중세 국어의 특징

㉡의 ‘하다’는 중세 국어에서 ‘ 많다’라는 의미였는데, 현대 국어에서 ‘사람, 동물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이동한 예이다. 의미 이동은 이처럼 단어의 의미가 다른 의미로 바뀐 것을 말한다. 의미의 확대는 단어가 지시하는 범위가 원래보다 넓어진 것을 말한다.

오답 풀이 ① ㉠의 ‘말씀’은 중세 국어에서 ‘말’ 자체를 의미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남의 말을 높여 이르거나 자기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이고, ㉡의 ‘놈’은 중세 국어에서 ‘사람’을 의미했는데 현대 국어에서 ‘남자를 낮잡아 부르는 말’이라는 의미이므로 둘 다 의미가 축소된 경우이다.

② ㉠, ㉡은 각각 ‘말씀+이’, ‘놈+이’로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되었고, 이는 현대 국어에서도 ‘이’로 사용되고 있다. ㉢은 ‘바+ㅣ’로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된 것인데, 현대어 풀이에서는 ‘가’로 바뀌었다.

③ ㉠의 ‘어리다’는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다’를 의미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이고, ㉡의 ‘어엿쁘다’는 중세 국어에서 ‘가엾다’를 의미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다’라는 의미이므로 의미가 이동한 경우이다.

④ ㉢의 ‘뜨들’은 ‘뜰을’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이어적기 방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뜰’처럼 끊어 적는 방식으로 표기한다.



화법

개념 전 실전

화법 1

발표

본문 154~155쪽

01 ② 02 ④ 03 ④

01 [발표] 말하기 계획

이 발표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발표자가 개인적 일화를 소개하며 발표 주제의 선정 목적을 제시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학생은 발표 도입부에서 ‘(화면을 가리키며) 여러분, 전자 제품에서 이런 라벨을 본 적이 있으시죠?’라고 물으며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③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에 따라 월간 소비 전력량 차이가 크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42인치 텔레비전을 예로 들어 ‘1등급은 43.7kWh/월, 5등급은 105.9kWh/월’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④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왜 표시하는 걸까요?’, ‘제 발표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와 같이 질문을 던지며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중이 발표 내용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 ‘우리 모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에 관심을 가져,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해야겠습니다.’라고 청중의 관심을 당부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02 [발표] 담화 과정과 내용 파악

발표 내용 중 4문단을 보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의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생산된 제품은 같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생산된 제품과 등급이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에서 학생은 동일한 모델에 대해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발표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을 통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의 개념에 대해 알 수 있다.

② 5문단을 통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③ 4문단을 통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정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⑤ 6문단을 통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에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03 [발표] 듣기·말하기 전략

〈보기〉에서는 발표 내용을 통해 발표자의 이전 행동을 추리하면서 듣는다는 듣기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발표 준비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표시한 라벨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았을 것이라고 추리하는 ④의 반응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발표 내용에 신뢰감이 생긴다고 평가하는 듣기 태도이다.

② 발표자의 말이 자신의 생각과 같다고 공감하는 듣기 태도이다.

③ 발표 내용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듣기 태도이다.

⑤ 발표에서 제시한 근거가 부족해서 타당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듣기 태도이다.

알아 두기 발표의 표현 전략

정해진 시간 활용	- 주어진 시간에 맞게 발표할 내용의 분량을 조절함 - 청중의 질문을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여 자료를 준비함
다양한 자료와 매체 활용	- 발표 장소와 청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활용할 자료와 매체를 선정함 - 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함
청중과의 상호 작용	- 청중의 집중을 환기하는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함 - 청중의 반응을 살펴 발표 분량, 내용, 순서 등을 조절함

화법 2

대담

본문 156~157쪽

01 ③ 02 ① 03 ⑤

01 [대담] 듣기·말하기 전략

진행자는 해설가의 발언에 호응하며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진행자는 해설가의 물음에 “소나무가 아닌가요?”, “소나무인가요?”처럼 의문문의 형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

② 진행자는 “네, 정말 멋진 산수화네요. 그림을 보니 어떤 말씀을 해 주실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처럼 해설가의 말에 호응하며 해설가의 설명에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④ 진행자는 “굵은 모습 때문이라니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등과 같이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해설가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⑤ 진행자는 “아, 소나무의 아름다운 외형과 그것에 부여된 상징적 의미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처럼 바로 앞에 나온 해설가의 설명을 다시 요약하면서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묻고 있다.

02 [대담] 화법 이론

텔레비전 방송 대담은 공적 담화의 성격이 강하고 불특정 다수인 시청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기〉와 같은 사적 담화에 비해 경어적 언어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오답 풀이 ② 텔레비전 방송 대담은 정해진 방송 시간이 있으므로 사적 담화인 〈보기〉에 비해 시간상의 제약이 많다고 할 수 있다.

③ 텔레비전 방송 대담은 공적 담화로, 공적 인간관계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존중을 표현할 수 있는 규범적인 언어 사용을 중시한다. 따라서 사적 담화인 〈보기〉가 공적 담화인 텔레비전 방송 대담보다 형식이나 절차가 자유로운 편이라고 볼 수 있다.

④ 텔레비전 방송 대담은 ‘나무와 문화 예술’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특정한 목적에 따른 담화라고 볼 수 있다. 〈보기〉는 자매가 텔레비전 방송 대담을 시청한 후에 자유롭게 나누는 대화이므로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담화라고 보기 어렵다.

⑤ 텔레비전 방송 대담은 복수의 가상적 청자, 즉 시청자를 의식하고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활동이지만, 〈보기〉의 대화는 화자와 청자가 자매로 한정되어 있다.

03 [대담] 자료와 매체 활용

해설가가 버드나무 영상을 보여 준 것은 소나무와 대비되는 버드나무의 예술적 가치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버드나무가 고향을 연상케 하는 소재임을 시청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대담의 도입 부분에서 보여 준 그림은 산수화이므로 '나무와 문화 예술'이라는 대담의 주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② 해설가는 산수화에 소나무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산수화에 등장하는 나무 순위를 보여 주는 표를 제시하여 자신의 말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③ 해설가는 산수화에 소나무가 가장 많이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면서 전통 미의식과 곡선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소나무 사진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④ 해설가는 나무가 그림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등장한다고 설명하면서 음악을 들려주어 '그림 속의 나무'에서 '음악 속의 나무'로 화제가 전환됨을 직관적으로 알리고 있다.

화법 3

토의

본문 158~159쪽

01 ② 02 ④ 03 ③

01 [토의] 화법 이론

'정 과장'은 관광객이 줄어드는 문제의 원인이 불거리나 즐길 거리가 예전과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며 문제 관련 현황을 제시하고 있고, '김 교수'는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문제 해결 방안을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향교와 고택을 개방하고 이를 묶어 이야기가 있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 실행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지역 관광 산업의 실태와 관련하여 문제 관련 현황은 제시했지만 대안을 비교 분석하고 있지 않으며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하는 절차도 드러나지 않는다.

③ 문제 발생의 원인이 불거리나 즐길 거리가 예전과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는 있지만 여러 개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정 과장'이 문제 발생 원인을 분석한 후 '김 교수'가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정 과장'은 문제 관련 현황부터 언급하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고 볼 수 없고, 대안 비교 분석, 최선의 해결책 선택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02 [토의] 듣기·말하기 전략

이 토의에서 '김 교수'는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끌 만한 대책으로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발언의 요지를 제시한 후, 서원을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한 곳에 다녀온 자신의 경험을 들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사회자는 토의 참여자의 발언을 이끌며 토의를 진행하고 있을 뿐, 발언자가 말한 의도를 재차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② 사회자는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고 있지 않고, 다만 발언자들이 차례로 발언할 수 있도록 토의를 이끌고 있다.

③ '정 과장'은 지난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거리나 즐길 거리가 수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으면서 조사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⑤ '고택 주인'은 자신의 입장에서 '정 과장'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있을 뿐, 설의적인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다.

03 [토의] 말하기 계획

협상 참여자는 '정 과장'과 '고택 주인'이므로 이들이 토의에서 한 발언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토의에서 '고택 주인'은 "말씀하신 방안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라고 하며 '정 과장'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정 과장'이 '고택 주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다시 공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협상 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고택 주인'은 고택을 개방할 경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건물이 훼손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 과장'이 '고택 주인'에게 고택 훼손 방지를 위한 관리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안이나 대안 제시'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전략이다.

② '고택 주인'은 고택을 개방할 경우 사생활이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 과장'이 '고택 주인'에게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안이나 대안 제시'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전략이다.

④ '정 과장'은 고택 훼손 방지를 위한 관리 지원과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경우 '고택 주인'이 '정 과장'이 제시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조정 단계에서 '실현 가능성, 기대 이익 등에 대한 상호 검토'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전략이다.

⑤ '고택 주인'이 고택 개방이라는 '정 과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고택 개방 방법을 요구하는 것은, 조정 단계에서 '자신이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 제시'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전략이다.

알아 두기 협상의 전략과 성립 조건

• 협상의 전략

목표 설정과 타협안 마련	- 타협 가능한 협상 목표를 미리 설정하여 복수의 대안을 마련함 -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유리한 조건을 거절하는 잘못을 막기 위해 일정한 기준이 되는 대안을 마련해 둬
쟁점 분석과 문제 해결	-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파악함 - 상대방의 주장을 예측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세움 - 갈등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함 - 협상 분위기와 조건을 고려하여 대안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하기 전략을 세움
결론 도출을 위한 협력	- 상대방이 제시한 대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되,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함 - 협상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지님

• 협상의 성립 조건

참여자 조건	참여자들이 경쟁적이면서도 협력적인 관계여야 함
상황 조건	협상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갈등 상황이 존재해야 함
행위 조건	참여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며 합의 결과에 대해 이행 의무를 지녀야 함

01 [대화] 듣기·말하기 전략

㉠은 상대방의 요청에 대해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며 완곡한 표현을 통해 거절의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오늘 모인 목적과 할 일을 제시하여 여러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이끌고 있다.

② 준영이는 건희의 제안에 대해 통명스럽게 반응하여 건희와의 의사소통에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③ “그거 좋은 생각이다.”라고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하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④ 바로 앞에 나온 수지의 말을 요약하여 되물음으로써 수지의 생각을 확인하고 있다.

02 [대화] 담화 내용 생성

〈보기〉에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반응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수용하므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나타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아 개념을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 건희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④와 같이 건희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을 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발표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건희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게 하려면 건희에게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만한 말이 필요하다. 그러나 ①과 ②에는 현재 건희의 상태에 대한 확인과 함께 스스로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③ 과거 건희의 발표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있어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강화하고 있다.

⑤ 건희도 발표를 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의 말이 아니라 건희가 발표를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03 [토론] 듣기·말하기 전략

‘반대 1’은 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여 실질적인 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최저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찬성 1’의 주장에 대해 물가 상승률에 비해 최저 임금의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 반론에 대해 ‘찬성 1’은 기존의 최저 임금이 너무 적으므로 인상률만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따라서 ‘찬성 1’이 ‘반대 1’의 반론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사회자는 토론 시작 부분에서 “최저 임금을 현재 상태보다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많습니다.”라고 토론의 배경을 제시하고, “이번 시간에는 ‘최저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언급하면서 토론의 논제를 소개하고 있다.

② 사회자는 ‘반대 1’의 입론이 끝나고 이어진 ‘반대 2’의 발언에 대해 양측이 번갈아 가면서 발언을 해야 하는 토론 규칙을 언급하며 토론 절차에 맞게 토론 참가자의 발언을 조절하고 있다.

③ ‘찬성 1’은 법에 명시된 최저 임금제의 목적을 근거로 최저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반대 1’은 ‘2000년 이후 연평균 최저 임금 인상률은 8.1%’이며, ‘같은 기간 내 전체 임금 상승률 4%, 물가 상승률 3%’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04 [토론] 담화 내용 생성

‘찬성 2’는 ‘반대 2’의 최저 임금 인상이 기업에게 부담이 되어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펼쳐야 한다. 그러므로 최저 임금 인상이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⑤에서는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이직률이 줄고 생산성이 높아져 새로운 근로자를 훈련시키는 비용이 절감되어 기업 입장에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반론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노동자와 기업 간의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은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② 최저 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활이 안정되어 세금 확보가 안정되는 것은 국가적 측면에서의 장점이므로 기업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③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이 다른 나라의 최저 임금보다 낮다는 내용은 국가적 측면의 내용이므로 최저 임금의 인상이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④ 사회 복지 정책으로서의 최저 임금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므로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

알아 두기 토론의 일반적 절차

논제 설정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뚜렷한 논쟁점을 지니고, ‘~해야 한다.’, ‘~이다.’의 형식으로 표현해야 함
주장 제시	논제의 쟁점을 파악하고 뒷받침 근거와 함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힘
입론과 반론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밝히며 상대의 주장 중 불분명하거나 모순이 발견되는 점을 근거를 들어 반박함
토론의 정리와 판정	사회자가 논의 사항을 중심으로 찬반 양측에 대해 청중의 판정 결과를 알려 주고 토론을 정리함

05 [토론] 자료와 매체 활용

〈보기〉는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내용이므로 최저 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토론에서 찬성 측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 임금만으로 가족을 부양하거나 기초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하였으므로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찬성 측은 이 토론에서 기업 보호보다 근로자의 생계 문제를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③ 찬성 측은 최저 임금 인상이 사회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각종 사회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보기〉는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이 다른 나라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이므로 최저 임금 인상이 사회에 불려올 효용에 대한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

④, ⑤ 〈보기〉는 우리나라 최저 임금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자료이므로 반대 측의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01 [면접] 듣기·말하기 전략

고등학교 때래 상담 동아리에 지원한 지원자와, 지원자가 이 동아리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면접자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고 있는 면접 상황이다. 지원자는 면접자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진로를 밝히거나 신념을 덧붙여 말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다. 면접자는 지원자가 자신의 동아리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하여 새로운 질문을 하고 있을 뿐, 지원자의 대답을 요약하거나 정리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지원자는 초등학교 때 상담을 받아본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상담가가 되고 싶어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기 위해 동아리에 지원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② 면접자는 또래 상담가들에 의해 상담이 이루어지는 동아리의 특성을 알고 있는지 지원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 ③ 면접자는 상담을 받았던 학생이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갈등 상황을 가정하여 그 대처 방안에 대해 묻고 있다.
- ⑤ 지원자는 면접이라는 의사소통 상황을 고려하여 또래 상담가의 자질을 묻는 면접자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한 후,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며 남의 말을 옮기지 않는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여 답하고 있다.

02 [발표] 말하기 계획

발표는 도입, 전개, 정리의 순서로 내용이 구성된다. 이 발표의 <전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문화가 예전보다는 성숙해졌고 최근 유기 동물을 분양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동물들이 버려진다는 실태만을 언급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반려동물 문화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국외의 반려동물 문화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학생은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개 선발 대회'에 대한 소개로 발표를 시작함으로써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② 동물 자유 연대 관계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우리나라 유기 동물의 실태와 유기 동물 입양의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 ④ 농림 축산 검역 본부가 집계한 조사 결과를 통해 현재 유기 동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발표 내용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 ⑤ 발표자는 유기 동물의 수가 많다는 문제를 제기한 후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유기 동물 입양 및 동물 등록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03 [발표] 담화 내용 생성

이 발표에서는 최근 유기 동물을 입양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유기 동물의 경우 입양 비용이 없으니 책임감 없이 한번 키워 보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입양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누구나 쉽게 유기 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학생의 발표 내용과 상충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동물 등록제에 대한 내용은 이 발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추가 설명해 준다면 '유기견 입양 시의 주의점'에 대해 토의할 때 필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 ② 유기견 입양의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추가 설명은 유기견 입양과 관련한 토의에서 필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 ③ 유기견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알려 준다면, 유기견 입양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토의를 할 수 있다.
- ⑤ 우리나라의 유기견 발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한 원인 파악을 통해 유기견 입양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고, 유기견 입양과 관련한 본받을 만한 사례를 제시한다면 입양 시의 주의점을 확인해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04 [토의] 듣기·말하기 전략

'시민 1'은 자전거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자전거 전용 도로를 시 전체에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해결 방안으로 말하고 있다. 또 시의 예산 부족이라는 문제를 들은 후에는 학교 주변부터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김○○'은 토의의 처음 부분에서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시민 1'과 '시민 2'의 의견을 듣고 난 후 사회자가 제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도 성실하게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답변하고 있다.
- ② '사회자'는 토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학교 주변부터 자전거 도로를 조성할 것, 안전 교육을 실시할 것을 말하며 해결 방안을 정리하고 있다.
- ③ '사회자'는 토의 시작 부분에서 토의의 주제를 안내하고, 토의 중간에 '시민 1'과 '시민 2'의 발언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다.
- ⑤ '시민 2'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의식이 부족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문제 상황으로 지적하며, 지속적인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05 [토의] 담화의 수용 및 평가

'시민 1'은 자전거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전거 도로가 별로 없어 위험한 상황이고, 실제로 자전거와 관련된 안전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의 증가 추세를 통계 자료로 제시한다면 현재의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고, 문제의 해결 방안인 자전거 도로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토의의 내용은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인도에서는 보행자와, 차도에서는 자동차와 사고가 날 것이 우려되므로 자전거 도로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 추세와 교통안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데 현재 토의의 발표 순서로 충분한 내용임으로 이 때문에 굳이 발표 순서를 바꿀 필요는 없다.
- ③ 이미 시의 예산 문제로 시 전체에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했으므로 자전거 도로와 일반 도로의 설치 비용을 확인할 필요도 없으며, 이러한 자료는 전문가의 동영상 자료보다는 도표나 그래프로 보여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④ 자전거 안전 장비의 효과 자체는 '시민 2'가 말한 안전 교육 실시와 연관되는 내용이지만, 안전 장비의 종류와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자전거 안전 장비의 효과를 드러내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
- ⑤ 시 안에서 인도와 차도 외에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지는 내용의 토의이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도로를 좋아하는지를 묻는 설문 자료는 토의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개념 찬 실전

작문 1

본문 176~177쪽

01 ④ 02 ⑤

01 [설명문] 작문 이론

글쓰는 (가)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기보다는' 단락에 따라 정의와 예시 등의 방법으로 대상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나)의 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작문이 소재에 따라 내용 구성 방법을 달리한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을 구성하였다는' ④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예상 독자를 '교지를 읽을 학교 친구들'이라고 한정하고 있다.

② (가)에서 잡상의 특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가)에서 글의 구성과 표현 전략에 따라 구성한 내용을 (나)에서 생성하고 있다.

③ (가)의 글의 구성과 표현 전략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정의의 방법을,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나)에서는 잡상의 의미를 정의하고, '봉황, 용, 해태'나 '손오공, 저팔계, 사오성' 등의 예시를 들고 있다.

⑤ (가)에서 '잡상을 잘 모르는 학교 친구들에게 소개하여 잡상의 문화적 가치를 알려야겠다.'라고 작문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02 [보고서] 글쓰기 계획

ㄱ. '답사 전에 읽어 본 책에 의하면 ~'이라고 책에서 정보를 얻었음을 말하고 있지만 참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ㄴ. '~ 머물러 쉬고 싶은 곳이었다.',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 얼마나 좋을까?', '~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다.' 등에서 주관적 느낌이나 감상이 드러나게 진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ㄱ.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답사의 목적이 '담양 일대의 정자를 찾아 전통 정자 문화의 특성을 알아보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ㄴ. '처음 방문한 곳은 식영정이다.', '그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환벽당이었다.'처럼 답사의 이동 경로를 드러내고 있다.

ㄷ. 2문단의 셋째 줄에 보면 '우리를 안내해 준 문화 해설사의 설명에 따르면 ~'을 통해 답사지에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여 보고서를 썼음을 알 수 있다.

작문 2

본문 178~179쪽

01 ③ 02 ④

01 [논설문] 내용의 구체화

(나)-1은 관광객들이 원하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의 유형을 조사

한 자료이고, (다)는 생태 관광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우수 사례이다. 이를 통해 생태 보전을 고려한 관광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신문 기사를 통해 생태 관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그 조성 과정에서 생태계가 훼손되는 등 그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생태 자원 개발 측면의 문제점으로 '생태계 훼손' 문제를 다룰 수 있다.

② (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의 태도를 알 수 있으며, (나)-2를 통해 '주민 참여 유도의 어려움'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다)의 둘째 사례를 통해 주민들의 가계 소득이 증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1에서는 관광객이 원하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지역의 자연 체험 프로그램, 지역의 고유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알아 두기 시각 자료의 활용

• 시각 자료의 유형과 역할

유형	• 그림, 사진 등의 구성적 시각 자료 • 표, 그래프 등의 형식적 시각 자료 • 마인드맵, 흐름도 등의 절차적 시각 자료
----	--



역할	• 독자의 이해를 도움 •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높임 • 내용을 입체적으로 전달함
----	---

• 시각 자료 활용 시 유의점

유의점	• 그림이나 도표가 글의 목표, 기능, 분량, 내용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함 • 독자의 이해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림이나 도표의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함 • 예상 독자가 대상에 대한 충분한 배경지식을 지닌 경우 그림이나 도표가 불필요하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함
-----	--

알아 두기 개요 작성 시 유의점

- 개요만으로 글의 논리적 흐름이 보여야 함
- 앞부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뒷부분의 내용이 조직되어야 함
- 상위 제목과 하위 제목은 서로 상하 관계를 이루어야 함
- 동일한 상위 제목 아래 있는 하위 제목들 간의 위상이 맞아야 함

02 [논설문] 제시된 내용에 따라 글쓰기

④의 전개를 보면 먼저 '자연은 우리 세대의 자원이 동시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이다.'라며 근거를 밝히고, '생태 관광을 할 때 그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며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한다. 또한 이 내용은 관광객의 인식과 실천, 즉 태도에 대한 내용이므로 첫 번째 조건 역시 충족한다.

오답 풀이 ① 관광객의 의식 전환을 다루고 있으므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나 주장만 있을 뿐 그 근거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② '근거 - 주장 -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순서로 짜여 있으므로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관광객의 태도 측면이 아닌 프로그램 운영 측

면에 관한 것이므로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③ 생태 자원 개발 측면을 다루고 있으므로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글의 전개 역시 근거와 주장만 나열하고 있으므로 두 번째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⑤ 관광객의 태도를 다루고 있으므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나 '대중 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해당하고, '관광객들의 승용차 배기가스로 인해 그 지역의 환경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는 근거에 해당하며, 마지막 문장도 주장에 해당하므로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작문 3

본문 180~181쪽

01 ① 02 ②

01 [수필] 글쓰기 계획

2문단의 '나는 그 마중물이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다.'와 '바로 그런 준비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를 통해 글쓴이가 미래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삶의 의미를 발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문단의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 시간들이 늘 후회스러웠다.'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마중물과 같은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지금의 생활에 더욱 충실해야겠다.'를 통해 의미 없이 보냈던 시간을 돌아보며 현재에 충실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③은 삶의 의미를 발견한 내용과는 관련이 없고, ⑥은 학생의 초고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⑥은 학생의 초고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③은 삶의 의미를 발견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③은 삶의 의미를 발견한 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알아 두기 수필의 특징

-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자유롭게 표현함
- 다양하고 폭넓은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개성이 드러남
- 글쓴이의 경험을 통한 자기 성찰에서 삶의 지혜가 나타남

02 [수필] 내용의 보완·조정

'할머니께서는, 물이 나오게 하려면 먼저 약간의 물을 펌프에 넣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에서 문장의 주어이자 높임의 대상은 '할머니'로, '할머니'가 한 말을 높여야 하므로 '넣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라고 한 원래의 표현이 알맞다.

오답 풀이 ① ①에서 '낯선'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 눈에 익지 아니한'이므로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낯선'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펌프가 쏟아내기'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③에 '물'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글의 흐름으로 볼 때 ③은 앞뒤의 문장과 어울리지 않아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③은 기본형이 '마르다'이므로 '마르다고'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점수 올리는 실전

작문 1

본문 182~186쪽

01 ⑤ 02 ④ 03 ① 04 ③ 05 ③

01 [일기문] 내용의 연상

〈보기〉는 '3개월에 걸쳐 수집한 식물 우표 자료를 정리함 → 서적과 인터넷을 통해 식물 우표 관련 정보와 등장 시기를 확인함 → 이 내용을 다연이에게 알려 줌 → 다연이에게 동물 우표 자료를 물어 봄 → 다연이에게 말한 것을 메모함'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식물 우표나 동물 우표에 대해 새로 얻은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⑤와 같이 새로 얻은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한다는 점은 연상하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는 식물 우표와 관련해 궁금한 것을 찾기 위해 우표와 관련된 서적을 살펴보고, 식물 우표가 처음 등장한 시기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연상할 수 있다.

② 〈보기〉의 학생은 3개월에 걸쳐 수집한 식물 우편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또 한 다음 달부터는 동물 우표 자료들을 수집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기간을 두어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계획을 수립한 뒤 그에 맞춰 지식을 꾸준히 습득해야 한다는 점을 연상할 수 있다.

③ 〈보기〉에서 '나'가 찾은 식물 우표에 대한 이야기를 다연이에게 들려 준다는 것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연상할 수 있다.

④ 〈보기〉에서 다연이에게 동물 우표 자료를 어디에서 얻었는지 물어보았다고 하였으므로, 질문하기의 방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적극적으로 확장해야 함을 연상할 수 있다.

02 [보고서] 내용의 보완·조정

'Ⅲ. 탐구 방법 - 3'의 내용을 살펴보면 물의 혼탁성과 양파의 생장 정도를 모두 관찰한다고 하였다. 'Ⅳ. 탐구 결과 - 1'은 두 양파가 담긴 물의 혼탁성을 관찰한 결과이고, 'Ⅳ. 탐구 결과 - 2'는 두 양파의 생장 정도를 관찰한 결과이므로 둘 중 하나라도 삭제해서는 안 된다.

오답 풀이 ① 'Ⅱ. 탐구 목적'을 보면 언어 실험을 통해 말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의 제목을 '말이 식물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이 실험은 말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말 이외의 환경적인 조건을 모두 같게 해야 말에 의한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A와 B 양파의 환경적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라는 내용을 하위 항목에 넣어 주는 것이 적절하다.

③ 'Ⅱ. 탐구 목적'에서 과학적 분석을 통한 자료를 제시한다고 했으므로 기간 별 양파의 발육 상태를 관찰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올바른 언어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함'은 양파를 담은 물과 양파의 생장 정도를 탐구한 결과와 자료가 아니라 이를 통해 얻어 낸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상위 항목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Ⅴ. 결론 및 제언'의 하위 항목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03 [보고서] 작문 이론

이 글은 우리반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장시의 형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쓴 과제 보고서이다. 글쓰이는 반 학생들을 고려해 알기 쉽게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작문은 글쓰이가 독자와 교감하는 적극적인 의사소통 행위임을 알 수 있다(ㄱ). 또한, 장시의 형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과제 보고서라는 작문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으므로 작문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목적 지향적 사고 행위(ㄴ)임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ㄷ. 이 글은 장시의 시초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장시의 개념, 최초 형성 지역, 형성의 이유 등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있으므로 문제 상황이 드러나지 않으며, 제시된 내용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문제 해결 행위라고 볼 수 없다.

ㄹ. '장시의 형성'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재라고 하기 어렵고, 과제 보고서이므로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글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글은 편지글이나 식사문 등이다.

ㅁ. 이 글은 과제 보고서로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글이 아니며 자기 생각을 독자에게 이해시키는 글은 논설문에 가깝다.

04 [보고서] 내용의 보완·조정

'펼쳐져 있어'에서 '펼쳐져'는 '펼치(어간)-+-어지어'가 결합된 것이다. 즉, '-어지다'에 의한 피동 표현이 한 번만 쓰인 것이므로, 이는 이중 피동 표현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에는 '거래하는'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상품을'을 첨가해야 바른 문장이 된다.

② '〈성종실록〉에 의하면~'으로 시작한 인용하는 문장이므로 서술어는 '되었다'가 아니라 '되었다고 전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결국'은 결론을 가리키는 접속어이다. ㉡의 앞 문단은 무안, 나주에서 시장이 먼저 형성된 이유를 설명한 내용이고, ㉢을 포함한 문단은 15세기에 시장 출현 원인을 사회·경제적 변화에서 도출하는 내용이다. 즉, 두 문단은 각각 다른 시장 출현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한편' 등의 접속어로 연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시장의 형성은 농업 경제력이 전파되어(여러 군데로 퍼져서)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농업 경제력이 커져서 가능해진 것이므로 단어를 '전파되어'에서 '신장되어'로 고쳐야 한다.

알아 두기 보고서의 작성 과정

계획하기	보고서의 구성 요소를 계획하는 단계
자료 수집하기	보고서의 내용에 알맞은 자료 수집 방법을 선택하고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자료 정리 및 분석하기	조사를 통해 수집된 결과를,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하게 분석하는 단계
개요 및 보고서 쓰기	보고서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며, 보고서 쓰기 윤리를 지키며 작성하는 단계

05 [홍보문] 제시된 내용에 따라 글쓰기

③에서는 고전을 '지혜의 열쇠'에 비유하여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고전을 읽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넓히세요'라며 [추가 자료]에서 제시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홍보 문구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당신'을 '나무'에 은유하고 있으므로 형식 조건은 갖춰졌으나, 고전을 읽는 것이 아닌 독서 전반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내용 조건이 맞지 않는다.

② 고전을 읽으면서 세대를 초월하는 경험, 즉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으나 은유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고전으로 생각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은유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형식 조건이 맞지 않는다.

⑤ '독서 활동'을 '지름길'에 은유하였으므로 형식 조건은 맞다. 그러나, 다양한 활동을 하라는 내용은 고전을 읽으라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작문 2

본문 187~191쪽

01 ③ 02 ④ 03 ③ 04 ② 05 ④

01 [건의문] 글쓰기 계획

<보기>는 도서관 마감 시간 연장을 건의하는 학생의 글이다. 학생은 문제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건의하고 있지만, 교장 선생님을 설득하기 위한 근거로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방과 후 수업을 듣거나 자율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바로 책을 찾아볼 수가 없고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건의의 배경이 드러나 있으며, 도서관 자료실 개방 시간을 10시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건의의 목적이 나타나고 있다.

② 도서관 마감 시간 연장은 학생들의 독서열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업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④ 이 글의 예상 독자는 교장 선생님이므로, 학생은 최대한 정중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의 자율 학습을 하는 도서관원이 남아 대출, 반납의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고 하며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알아 두기 건의문을 쓰는 방법

-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요구 사항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한다.
- 문제의 해결이나 개선이라는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 예상 독자에 따라 건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설득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
- 건의를 받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글이므로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 간결하면서도 진지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02 [논설문] 자료 활용 방안

(나)는 청소년 비만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 (다)는 청소년 비만에 대한 전문가 의견으로 운동 부족과 패스트푸드 섭취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패스트푸드 섭취가 비만을 유발하기 때문에 비만이 인간관계 갈등이라는 문제 상황을 야기하는 것이지, 청소년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를 통해 초등학생보다는 중·고등학생의 비만 유행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비만의 실태를 강조하는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② (나)는 비만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청소년 비만의 문제점에 대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③ (다)는 청소년 비만의 원인 중 하나로 운동 부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문에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가)는 청소년 비만 유행률을, (다)는 그 원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결론에서 청소년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함을 권고하며 글의 주제를 강화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03 [논설문] 제시된 내용에 따라 글쓰기

(다)에서는 패스트푸드 섭취의 위험성을 알리며 올바른 식습관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언급하면서 ‘악당의 손아귀’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③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 문구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다)는 아름다운 몸매를 강조하기보다는 비만을 유발하는 패스트푸드의 위험성을 알리며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② 패스트푸드의 위험성과 건강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④ 비유법은 나타나지 않으며, 대신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다.

⑤ 어머니가 해 주시는 밥상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다)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04 [소개문] 글쓰기 계획

학생은 교지의 ‘유망 직업 돋보기’ 코너에 직업을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글쓰기 전략을 세우고 초고를 작성하였다. 이 글은 진로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예상 독자로 하고 있는데, 글쓰기 전략과 초고에서 이러한 예상 독자의 경험을 상기시키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모바일 앱 개발자라는 직업을 소개하기 위한 글이므로 작문의 목적은 정보 전달이다.

③ 과제 수행을 위한 글쓰기 전략에 따르면, 독자인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인 모바일 앱 개발자에 관한 정보를 글감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책과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자료를 조사해야겠다고 하였다.

④ 모바일 앱 개발자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 먼저 전체적인 수준에서 ‘모바일 앱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뒤에 모바일 앱 개발자가 하는 일과 모바일 앱 개발자가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라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⑤ 모바일 앱과 모바일 앱 개발자의 뜻을 정의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비유나 수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건조한 문체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05 [소개문] 내용의 보완·조정

㉔은 ㉔의 앞 문장에서 제시한 모바일 앱 개발자가 PC에서 쓰이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들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 많다는 내용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장 간의 연결을 고려하여 ‘작동되는 공간의 차이 때문이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㉔의 ‘진솔한’은 ‘진실하고 솔직하다.’라는 뜻이다. 이는 문맥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낱아서 새롭지 못하다.’라는 뜻인 ‘진부한’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㉔과 같이 표현하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하므로 ‘있어서 가능하게 됐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㉔은 앱 개발을 배울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문단에서는 모바일 앱 개발자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㉔은 이와 관련이 적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배치해야 한다’를 꾸미는 말이 빠져 어색하므로 ㉔에 ‘정밀하게’를 첨가하는 것이 적절하다.